

2015.06⁴

U.B. 한국학연구

- ✧ 한국어와 몽골어의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파생접사의 고찰 ... 강 선화
- ✧ 한·몽 기초어휘 '해', '날', '불'의 어원 연구 ... 이 지영
- ✧ 몽골어와 한국어의 높임법 비교 연구 ... 채.어용게렐
- ✧ 제주방언의 오름 지명 고찰
 - 중세몽골어와의 개연성을 중심으로 ... 임 도희
- ✧ 한국어와 몽골어 보조동사의 연결어미 비교 ... 장 희수
- ✧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안 제안 ... 게.바야르마
- ✧ 동요를 활용한 초급한국어 연구 ... 장영아
- ✧ 몽골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발음 지도 방안 연구
 - 몇 자음과 모음을 중심으로- ... 몽흐치멕
- ✧ 한국어 문화교육 수단으로써 신조어 교육의 의의
 - '남(男)/여(女)' 형태소에 의한 단어형성을 중심으로- ... 벌러러
- ✧ 고려와 원나라의 문화교류 ... 아마르타이방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U.B. 한국학연구

국제올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목차

언어

1. 한국어와 몽골어의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파생 접사의 고찰 강 선화/4
2. 한 · 몽 기초어휘 '해', '날', '불'의 어원 연구 이 지영/14
3. 몽골어와 한국어의 높임법 비교 연구 체.어용게렐/25
4. 제주방언의 오름 지명 고찰
-중세몽골어와의 개연성을 중심으로- 임 도희/38
5. 한국어와 몽골어 보조동사의 연결어미 비교 장 희수/54

교육

6.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안 제안 계.바야르마/70
7. 동요를 활용한 초급한국어 수업모형 제시 장영아/89
8. 몽골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발음 지도
방안 연구 -몇 자음과 모음을 중심으로- 몽흐치멕/108
9.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어휘 교육의 중요성
-'남(男)/여(女)' 형태소에 의한 신조어 형성을
중심으로- 벌러러/122

문화

10. 고려와 원나라의 문화교류 아마르타이방/131

ГАРЧИГ

Хэл шинжлэл

- | | | |
|--|-------|----------------|
| 1.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давтах утгатай үйл үг бүтээх дагаврын ажиглал | | Кан СоньХуа/4 |
| 2. Солонгос-монгол хэлний '해', '날', '불' гэдэг уугуул үгсийн судалгаа | | И Жи-Йөн/14 |
| 3.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хүндэтгэлийн дүрмийн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 | | Ц.Оюунгэрэл/25 |
| 4. Жэжү нутгийн аялгууны "урым" газар усны нэрийн ажиглалт
-Дундад зууны монгол хэлтэй холбогдох магадлалыг голлох- | | Им Дохый/38 |
| 5.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услах үйл үгийн холбох нөхцөлийн харьцуулах нь | | Жан Хисү/54 |

Боловсрол

- | | | |
|--|-------|--------------------|
| 6. Солонгос хэл суралцагчдад зориул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хэлзүйн заах аргазүйн зарим санал | | Г. Баярмаа/70 |
| 7.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анхан шатны сургалтанд хүүхдийн дууг ашиглах арга зүйн судалгаа | | Жан Ён-А/89 |
| 8.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анхлан суралцагч монгол хүнд зориулсан зөв дуудах зүйн заах аргын судалгаа
-зарим нэг гийгүүлэгч, эгшгийг онцлон | | Б.Мөнхчимэг/108 |
| 9. The importance of lexical education for teaching korean culture
- Based on word formation by gender morphemes | | Ө.Болор-эрдэнэ/122 |

Соёл

- | | | |
|----------------------------------|-------|------------------|
| 10. Корйө, Юаний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 | | М.Амартайван/131 |
|----------------------------------|-------|------------------|

한국어와 몽골어의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파생접사의 고찰

강 선 화¹

목차

들어가는 말

1. 한국어의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파생접사
2. 몽골어의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파생접사
 - 2.1. 의태어²에 결합하는 동사파생접사
 - 2.2. 의성어기에 결합하는 동사파생접사
3. 비교
 - 3.1. 형태적 비교
 - 3.2. 의미적 비교

나가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반복'의 의미를 가진 동사파생접사들을 중심으로 형태적, 의미적으로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는 모두 10 여개로 한국어는 상징부사와 결합하는 '-거리다, -대다, -하다', 몽골어는 의태어기에 결합하는 '-лз-, -гана-', 의성어기에 결합하는 '-жигна-, -ш-, -тна-, -ч-'접사가 있다. 한국어 접사들은 선행어기의 음절수와 형태에 따라, 몽골어 접사들은 선행어기의 말음과 의미에 따라 접사결합의 제약을 보였다.

또한 한국어는 선행어기의 주체나 의미와 상관없이 '-거리다, -대다, -하다'가 결합할 수 있으나, 몽골어의 접사들은 선행어기의 주체나 소리의 강도, 속도에 따라 결합하는 접사가 다르다.

한국어의 접사들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정도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몽골어의 '-лз-, -гана-'접사도 그 반복의 속도와 주기를 설명할 수 있었다.

¹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한국어과 전임강사.

² 본고에서 '어기'라 함은 '어근'과 '어간'을 총칭하여 이르는 용어이다. 몽골어는 통상 의태어나 의성어가 홀로 쓰이지 않고 다른 단어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의태어근, 의성어근으로 불린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의식의 이론을 받아들여 '어기'로 통합하여 사용한다.

지속성과 반복성을 동시에 갖는 접사로는 '-거리다, -대다', '-жигна-/чигна-'이며, 반복성만을 나타내는 접사로는 '-하다', '-ш-, -тна-, -ч-' 등이다.

주제어: 접사, 파생접사, 동사파생, 반복

들어가는 말

단어의 어기의 앞이나 뒤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는 접사를 파생접사라고 부른다. 한국어에는 접사의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지만, 몽골어에는 접미사만 있다. 이 접사들은 어기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진 단어를 파생하는데, 동사파생접사의 경우는 '동작, 행위, 반복, 지속, 사동, 피동'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를 파생한다. '반복'의 의미를 가진 접사로 한국어에는 '-거리다, -대다, -하다³', 몽골어에는 "가 있다. 본고는 이 접사들을 중심으로 형태적, 의미적으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1. 한국어의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파생접사

한국어의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파생접사로는 부사어기에 결합하는 '-거리다, -대다, -하다' 접사가 있다. 이들은 부사어기 중에서도 상징부사 즉, 의성어기와 의태어기에 결합하는 접사이다. 이 접사들과 결합하는 선행어기의 말음은 모음보다 자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서 '-거리다, -대다, -하다' 접사와 결합한 파생동사를 조사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거리다	-대다	--하다
자음	2569	2387	2645
모음	29	27	77
전체	2598	2414	2722

<표 1> 한국어 접사와 결합하는 선행어기의 자모음 현황

³ 본고에서 '-하다'는 '쿵쿵하다, 깜빡깜빡하다'와 같이 선행어기가 반복형에 결합하는 형태를 말한다.

<표 1>과 같이 '-거리다, -대다, -하다'접사와 결합하는 선행어기의 말음은 현저하게 자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어기의 형태에 따라 결합의 유무가 결정되는데, '-거리다, -대다' 접사는 1 음절 어기나 유음접어에는 결합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1) 광 - *광거리다, 광광거리다

째깍째깍 - 째깍거리다

티격태격 - *티격거리다, *티격태격거리다,

(2) 광 - *광대다, 광광대다

째깍째깍 - 째깍대다

티격태격 - *티격대다, *티격태격대다

그러나 (1, 2)에서 볼 수 있듯이 '광광거리다, 광광대다'와 같이 1 음절의 반복형어기에는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 음절의 '광'은 순간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순간성은 있으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지닌 '-거리다, -대다'접사와는 결합할 수가 없다. 그러나 1 음절의 '광'의 반복형인 '광광'의 경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거리다, -대다'와 결합할 수 있다.

동음접어인 '째깍째깍'의 경우는 '-거리다, -대다'가 상태의 되풀이됨 즉, 반복을 나타내므로 '째깍'만을 어기로 취하여 결합하여도 반복이나 지속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유음접어인 '티격태격'의 경우는 '티격'과 '태격'이 의미의 차이를 보이므로 단순형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다, -대다' 접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반면 '-하다' 접사는 비교적 선행어기의 형태적 제약이 많지 않다.

(1) 광 - 광하다, 광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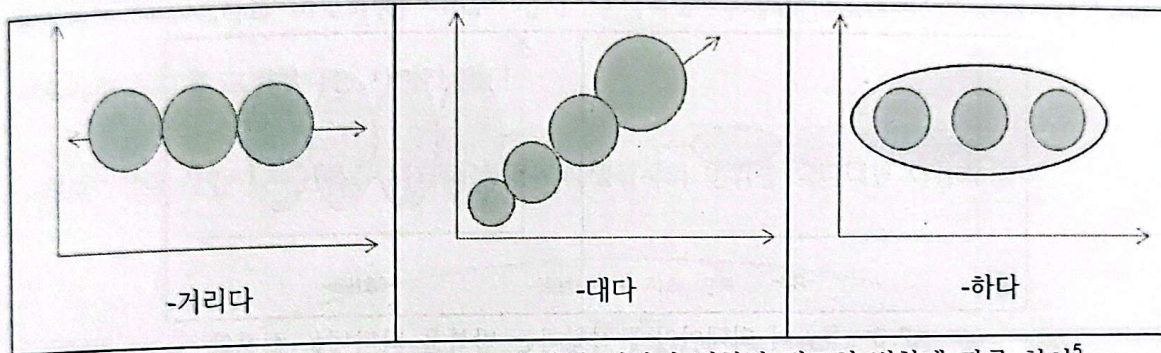
(2) 째깍째깍 - 째깍하다, 째깍째깍하다

(3) 티격태격 - 티격태격하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 음절(1), 1 음절 반복형(1), 동음접어(2), 유음접어(3)와의 결합이 자유롭다. 그러나 선행어기의 형태가 단순형인지 반복형인지에 따라 파생동사의 의미가 달라진다. '광, 째깍'과 같이 단순형어기와 결합할 경우에는 단순 동작이나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굉굉, 째깍째깍'과 같이 반복형어기와 결합했을 경우에는 반복이나 지속의 의미를 갖게 된다.

'거리다, -대다, -하다' 접사가 반복이나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들은 시간과 정도(크기나 세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신현숙⁴은 말했다. 다음은 시간의 변화 정도의 변화에 따른 표이다.



<표 2> 한국어 반복을 나타내는 접사의 시간의 변화와 정도의 변화에 따른 차이⁵

위의 <표 2>에 의하면 '-거리다'는 움직임이 2 회이상 연속되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면 그 움직임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 '-대다'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움직임의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움직임의 시작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으나 끝은 알 수 없다. 반면에 '-하다'는 2회 이상의 움직임, 반복을 의미하나 연속적이지 않다고 인식한다.

2. 몽골어의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파생접사

몽골어의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파생접사로는 의태어기에 결합하는 '-лз-, -гана-'와 의성어기에 결합하는 '-жигна-, -ш-, -тна-, -ч-'가 있다.

2.1. 의태어기와 결합하는 '-лз-, -гана-'

'-лз-'접사는 외적 상태를 묘사하는 의태어기와 결합하여 'булталз-, гялалз-'와 같이 사람, 동물, 사물 등의 상태가 느리게 반복되는 의미의 동사를 파생하고, '-гана-'접사는 'арзгана-, цандгана-'와 같이 순간적이고 반복적인 의미의 동사를 파생한다. '-лз-'접사는 '-валз-, -галз-'의 이형태를 띠는데, 의태어기에 '-г-, -га-, -в-' 등 절반의 기능을 가진 접사를 결합한 후 '-лз-'접사를 다시

⁴ 신현숙(1998), 의미 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사, p.87-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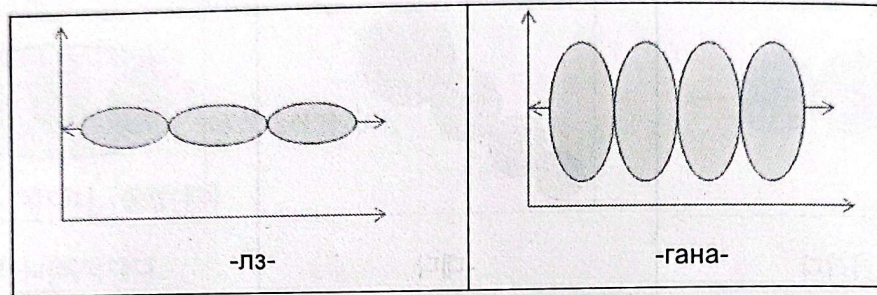
⁵ 신현숙(1998), 의미 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사, p.96.

결합시킨 형태로 그 의미는 '-г-, -га-, -в-'의 반복과 갑작스러운 의미를 더하여 갑작스럽고 빠르게 반복되는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

(1) Хамар нь сарталзана.

(2) Хамар нь сартгалзана.

(1)은 천천히 반복됨을, (2)는 갑작스럽게 반복됨을 알 수 있다.



<표 3> 몽골어 의태어기에 결합하는 반복을 나타내는 접사의

시간의 변화와 정도의 변화에 따른 차이

2.2. 의성어기와 결합하는 '-жигна-, -ш-, -тна-, -ч-'

'-жигна-'접사는 'таржигна-(тарчигна-), түржигнэ-(түрчигнэ-),'와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소리'를, '-ш-'접사는 'тогш-, янш-'와 같이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소리'를, '-тна-'접사는 'бувна-, гүвнэ-'와 같이 '사람이나 동물의 조용하게 반복되는 소리'를, '-ч-'접사는 'Гуагч-, хашгич-'와 같이 '동물의 소리 중 보통 반복되는 새소리'를 나타낸다.

이들은 선행어근인 의성어기의 말음환경에 따라 결합하는 접사가 다르다. 선행어근의 말음이 'р, л'이면 '-жигна-'접사가, 'г, н(г), в'이면 '-ш-'접사가, 'в, х'이면 '-тна-'접사가, 'г, ги'이면 '-ч-'접사와 결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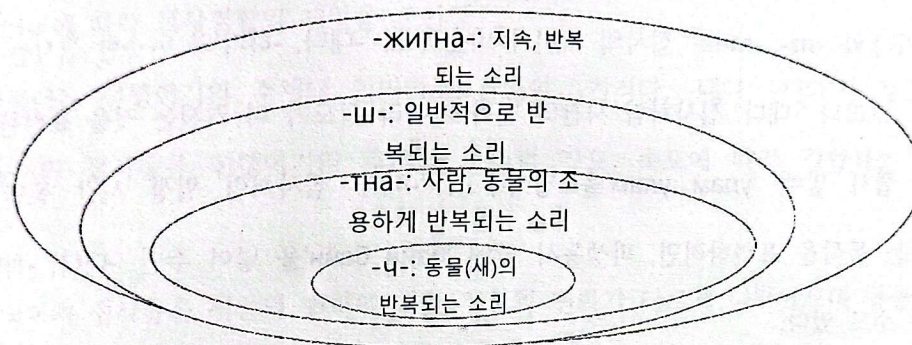
학자들은 통시적으로 이 접사들 중 '-жигна-'접사는 반복적 의미를 나타내는 '-ч-'와 지속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гина-'의 합성구조로 보았으며,⁶ Ц.Өнөрбаян 은 '-жигна-'접사와 결합하는 선행어근의 말음 'р'의 유무에 따라 파생어의 의미의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Дужигна-, тачигна-'와 같이 'р'가 탈락된 경우는 '매우 다회적으로, 빠르게 반복되거나 반복되는 사이가 거의 없이

⁶ Ц.Өнөрбаян, 1999, p.127..

계속되어 떨리는 소리'를 나타낸다. 그러나 'Дуржигна-, тарчигна-'와 같이 'р'가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결합된 경우는 '크고, 느리게 반복되거나 반복되는 사이가 순간적으로 끊겨 거의 느낄 수 없는 소리'를 나타낸다.

'-тна-'접사는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 중 들리지 않는 내부의 조용한 소리'를 나타내는 동사를 파생하는 '-на-'접사와 비교하면, '-тна-' 접사 '분명하고 구체적인 소리'를, '-на-'접사는 '좀더 부드러운 소리'를 표현한다는 차이가 있다.

의성어기에 결합하는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파생접사의 범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몽골어의 의성어기에 결합하는 반복의 동사파생접사의 범위

3. 비교

3.1. 형태적 비교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파생접사 중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는 모두 9 개로 나타났다. 한국어에는 '-거리다, -대다, -하다'로 이들은 모두 상징부사 즉, 의성어기와 의태어기 모두에 결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몽골어에는 의태어기에 결합할 수 있는 접사와 의성어기에 결합할 수 있는 접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의태어기에 결합하는 접사로는 '-лз-, -гана-', 의성어기에 결합하는 접사로는 '-жигна-, -ш-, -тна-, -ч-'접사가 있다. 한국어 접사들은 선행어기의 음절수와 선행어기가 단순형인지 반복형인지하는 선행어기의 형태에 따라 접사결합의 제약을 보이는 반면, 몽골어 접사들은 선행어기의 말음에 의해 접사결합의 제약을 보였다.

3.2. 의미적 비교

한국어는 선행어기의 주체가 사람이나 동물, 물건인지, 선행어기가 의미하는 것이 모양인지 소리인지와 상관없이 '-거리다, -대다, -하다'가 결합할 수 있으나, 몽골어의 접사들은 좀더 세분화하여 결합할 수 있는 접사가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소리'는 '-ш-'접사, '사람이나 동물의 조용하게 반복되는 소리'는 '-тна-'접사, '동물의 소리 중 보통 반복되는 새소리'는 '-ч-'접사로 소리의 반복을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의 '-거리다, -대다, -하다'를 <표 2>에서 제시했듯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정도의 변화가 다른 것처럼 몽골어의 '-лз-, -гана-'접사도 그 반복의 속도와 주기를 설명할 수 있었다.

'-거리다'와 '-лз-, -гана-' 접사의 의미가 비슷하고, '-대다, -하다'와 비슷한 접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 접사처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정도가 더 커지는 것을 표현한다면 '-лз-, -гана-' 접사 앞에 'улам улам'을 넣어주고, '-하다' 접사처럼 일정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표현하려면, 파생동사 앞에 'байн байн'을 넣어 주면 '-대다, -하다'의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어의 '-거리다, -대다, -하다' 접사 중 '-거리다, -대다' 접사는 지속성을 갖는 반면 '-하다' 접사는 지속성을 갖지 못한다. 그 이유는 '-거리다'는 연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며 동작의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는 미완성의 동작을 가리키며⁷, '-대다'는 동작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동작이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 동작의 연속성으로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하다'는 일정한 시간 동안 동작이 연속적이나 끊어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와 같이 반복과 지속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몽골어접사로는 '-жигна-/чигна-'가 있다. '-жигна-/чигна-'접사는 합성접사로써 '-ч'는 반복성을, '-гина'는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반복과 지속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나가는 말

⁷ 신현숙(1998), 의미 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사, p.89.

한국어와 몽골어의 '반복'의 의미를 가진 동사파생접사들을 형태적, 의미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파생접사 중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는 모두 10 여 개로 한국어는 상징부사와 결합하는 '-거리다, -대다, -하다', 몽골어는 의태어기에 결합하는 '-лз-, -гана-', 의성어기에 결합하는 '-жигна-, -ш-, -тна-, -ч-'접사 등이 있다.

이들 접사들은 각각 형태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접사들은 선행어기의 음절수와 형태에 따라 접사결합의 제약을 보이는데 이는 '반복'을 나타내는 접사 고유의 의미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몽골어 접사들은 선행어기의 말음에 의해 접사결합의 제약을 보이며, 선행어기의 의미에 따라 접사결합의 제약을 보인다.

둘째로 한국어는 선행어기의 주체나 의미와 상관없이 '-거리다, -대다, -하다'가 결합할 수 있으나, 몽골어의 접사들은 선행어기의 주체나 소리의 강도, 속도에 따라 결합하는 접사가 다르다.

셋째로 한국어의 접사들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정도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몽골어의 '-лз-, -гана-'접사도 그 반복의 속도와 주기를 설명할 수 있었다.

지속성과 반복성을 동시에 갖는 접사로써는 '-거리다, -대다', '-жигна-/чигна-'이며, 반복성만을 나타내는 접사로써는 '-하다', '-ш-, -тна-, -ч-' 등이다.

이것을 통해 선행어기의 형태나 의미에 따라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파생접사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음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반복의 정도나 속도의 차이점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몽골어

1. П.Бямбасан 외,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зүйн байгуулалт –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ийн тогтолцоо』, УБ, 1987.
2. П.Бямбаса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онол, бүтцийн асуудалд』, УБ, 2006.
3. Ш.Лувсанванда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бүтэц』, УБ, 1999.
4. Д.Отгонсүрэ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ийн хэв байдлын дагаврын найруулгын үүрэг』, ШУА, 1982.

5. Ц.Өнөрбая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зүй』, УБ, 2004.
6. Ц.Өнөрбая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йл үг бүтэх ёс』, УБ, 1999.
7. МУБИС МССМХТ,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УБ, 2004.

한국어

8. 고영근, 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9. 김계곤,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6.
10. 김학선, 현대 몽골어와 한국어의 부사 대조 연구 『몽골어학 22』, 2004
11.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8.
12. 신현숙(1998), 『의미 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사, p.87-103.
13. 채완,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4. 최현배, 『우리 말본』, 정음문화사, 1994.
15. 하지근, 『우리말 형태론』, 경진, 2010.

논문

16. 김태환, 『현대 국어의 접미파생어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7. Б.난딩тоя, 『현대 국어의 접미파생어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18. 조남호, 『현대 국어의 파생접미사 연구 - 생산력이 높은 접미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9. 조성자, 『국어접미사연구: 생산적인 접미사를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학위 논문, 1995.

사전

20. Я.Цэвэл,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лбар толь』, УБ, 1996, 2013.,
21. МУШУА, 『Монгол хэлний дэлгэрэнгүй тайлбар толь I~V боть』, УБ., 2007.
22. 백문식, 『우리말 파생어 사전』, 삼광출판사, 2004.
23. 유재원, 『우리말 역순 사전』, 정음사, 1985.
24.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CD-ROM』, 두산동아, 2001.
2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давтах утгатай үйл үг бүтээх дагаврын ажиглал

Кан СоньХуа

[Хураангуй]

Уг судалгаанд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давтах” утгатай үйл үг бүтээх дагавруудыг хэлбэр, утгын талаас харьцуулан судалсан ба үүнийг товчлон дурдвал :

“давтах” утгатай үйл үг бүтээх дагаврын тоо нь нийт 9 бөгөө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илэгдлийн дайвар үг(үйл хөдлөл ба дуу авиа дуурайх дайвар үг)-д залгах ‘-거리다, -대다, -하다’, монгол хэлний идэвхгүй язгуур буюу үйл хөдлөл дуурайх язгуурт залгах ‘-лз-, -гана-’, дуу авиа дуурайх язгуурт залгах ‘-жигна-, -ш-, -тна-, -ч-’ дагаврууд байна.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дагаврууд өмнөх язгуур үндсийн үеийн тоо, хэлбэрээс, монгол хэлний дагаврууд өмнөх язгуурын төгсгөлийн үсэг ба утгаас шалтгаалан үгийн язгуурт залгахад хязгаарлагдана.

Мө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хувьд өмнөх язгуур үндсийн эзэн, утгаас үл хамааран ‘-거리다, -대다, -하다’ дагавруудыг залгах боломжтой бол монгол хэлний хувьд өмнөх язгуурын эзэн, дууны хүч, хурдаас хамааран залгагдах дагавар өөр өөр байна.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дагаварууд нь хугацааны ялгаанаас шалтгаалан хир хэмжээнг илэрхийлэх нь харилцан өөр байсан бол монгол хэлний ‘-лз-, -гана-’ дагавар ч тухайн үйлийн давтамжын хурд, ээлжийг тайлбарлах боломжтой.

Үйлийн үргэлжлэх шинж болон давтах шинжийн утгыг тодруулах ‘-거리다, -대다’, ‘-жигна-/чигна-’, зөвхөн давтах утгатай ‘-하다’, ‘-ш-, -тна-, -ч-’ дагаврууд байна.

Түлхүүр үг: Дагавар, үг бүтээх дагавар, үйл үг бүтээх, давтах

한 · 몽 기초어휘 ‘해’, ‘날’, ‘불’의 어원 연구

이 지 영¹⁾

< 차례 >

<국문 초록>

1. 들어가는 말
2. 한 · 몽 기초어휘 ‘해(太陽)’와 ‘нар[ nara,  naran]’
 - 2.1. 현대한국어 ‘해(太陽)’
 - 2.2. 현대한국어 ‘날(日)’과 현대몽골어 ‘нар[ nara,  naran]’
3. 한 · 몽 기초어휘 ‘불(火)’과 ‘гал[ gal]’
 - 3.1. 현대한국어 ‘불(火)’과 현대몽골어 ‘гал[ gal]’의 대응관계
 - 3.2. ‘불(火)’의 의미를 가진 몽골어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4. 맺음말

<참고문헌>

<몽골어 초록>

< 국문 초록 >

이 연구에서는 알타이어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관계를 기초어휘비교라는 연구방법을 통해 고찰하여 한국어와 몽골어의 친근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현대한국어 ‘해(太陽)’와 ‘날(日)’, ‘불(火)’과 ‘팔다’, ‘그을음(炁)’, 그리고 이에 음운적으로 대응하는 현대몽골어 ‘нар[ nara,  naran]’, ‘гал[ gal]’, ‘дөл[ dölü]’, ‘нөл[ nöl]’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대한국어 ‘해(太陽)’와 ‘날(日)’은 현대몽골어 ‘нар[ nara,  naran]’에 대응하였고, 현대한국어 ‘불(火)’, ‘팔다’, ‘그을음(炁)’에 음운론적으로 대응되는 현대몽골어 ‘гал[ gal]’, ‘дөл[ dölü]’, ‘нөл[ nöl]’은 모두 동원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해(陽)’, ‘нар[ nara,  naran]’, ‘불(火)’, ‘팔다’, ‘그을음(炁)’, ‘гал[ gal]’, ‘дөл[ dölü]’, ‘нөл[ nöl]’, 어원, 동원어

1) IEC(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국제교육협력기구) 몽골리아 대표, 언어학 박사.

1. 들어가는 말

날말의 어원을 밝힌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지만, 어원을 찾는다는 것은 본래 지닌 의미와 더불어 단어의 형성과정에 대한 탐구이므로 궁극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유사 이전의 구체적인 한국어와 몽골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세기 초 인도유럽어족이 확립된 이후, 각 언어의 계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어의 계통에 관해서는 로니(Rosny. de. Leon 1864)가 최초로 한국어와 우랄알타이제어에 유형적인 유사성을 제시하는 논문에서 한국어의 계통을 다루었다. 이후 달레(Dallet. ch 1874)와 로스(Ross. J. 1878), 아스톤(Aston. W. G. 1879) 등이 한국어의 계통문제를 다루었고, 허버트(Hulbert. Homer. B 1905)는 드라비다어와의 유사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시라도리구라기찌(白鳥庫吉 1914-1916)는 '조선어와 우랄알타이어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595개 항목의 날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한국어를 우랄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람스테트(Ramstedt. G. J. 1907)는 우랄어족과 알타이어족을 분리시켰고, 알타이제어에는 몽골어, 튀르크어, 만주통구스어, 한국어가 있으며, 이 중 한국어가 공통조어알타이어에서 일찍이 분파되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폴리바노프(Polivanov. E.D. 1927)도 한국어가 알타이제어와 친근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음운과 형태면에서 유사성을 논증하였다. 이후 람스테트(G.J. Ramstedt)의 알타이어족설을 계승하여 체계화시킨 포페(N. Poppe)는 몽골어, 터키어, 만주·통구스어가 매우 밀접한 친족 관계에 있으며, 한국어가 알타이조어에서 제일 먼저 분리해 나온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한국어가 알타이어의 공통 특질을 가장 적게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최기호(1995, 1996)에서는 알타이어족설을 지지했던 서양학자들이 계통적 친족관계가 아닌 차용관계에 있었던 튀르크어와 몽골어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한 것을 비판하고, 만일 기준점을 한국어, 만주어, 몽골어에 두었다면 튀르크어가 가장 먼 언어로 취급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람스테트와 포페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어와의 비교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언어학자 강길운 교수의 길악어 연구 등 한국어의 계통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의 결과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20여 년간 한국어와 몽골어의 유사성은 주로 문법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져서, 많은 논문들이 양국 언어가 동계어임을 예측하는데 힘을 싣고 있다. 최근에 몽골의 학계에서는 한국과 특히 일본의 역사적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알타이제어 범위에 몽골어와 만주-함니간어 등 다른 알타이제어와의 비교연구 및 중국어와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와 몽골어를 비교하여 동계어임을 밝히는 일은 의미 있는 연구다. 비교대상 언어의 기초어휘의 음운론적 대응관계는 두 언어의 계통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한국어와 몽골어와의 계통관계가 좀 더 밝혀질 수 있으리라 여긴다. 그 작은 시도로 한 · 몽 기초어휘 '해(太陽), нар[ nara,  naran]'와 '날(日)'을 비교해보고, 현대한국 · 몽 기초어휘 '불(火),  gal,  gal]'와 'дел[ dölü], 'нөл[ nöle]' 등의 어 '불(火)'에 대응하는 현대몽골어 'гал[ gal], 'дөл[ dölü], 'нөл[ nöle]' 등의

어휘들과 이들에 음운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어 '팔다'와 '그을음(炁)' 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한·몽 기초어휘 '해(太陽)'와 'hap[ᄃᆞᆫ nara, ᄃᆞᆫ naran]'²⁾

2.1. 현대한국어 '해(太陽)'

현대한국어 '해(太陽)'는 천체어로서 시간 관련어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해(太陽)'의 중세 표현은 '히'이며 중세 한국어 문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³⁾

- (1) ㄱ. 普光天子는 히(陽)라 <석보상절13:6>
- ㄴ. 히 년(年) <훈몽자회상2>
- ㄷ. 히 세(歲) <신증유합상4>⁴⁾

중세 한국어 문헌에 나타난 것 같이 '히(太陽)'는 '해(陽)', '年(년)', '歲(세월)'의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는 시간에 관한 관념어가 '해(太陽)'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안병효(1985:79)에 의하면, 중국어 '日(해)'/ri/를 12세기 『계림유사』의 고려어에서는 'ᄃᆞᆫ'이라고 표기하였고, 조선시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한자 '日(해)'를 '날일'로 혹은 '날들'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고려시대의 'ᄃᆞᆫ[hang]'은 음운상 현대한국어 '해[hae]'와 더 가깝고, 조선시대의 '날일[nal il]', '날들'에 대하여는 현대한국어 '날[nal]'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한국어 '해(太陽)'의 어원과 관련하여, 강길운, 서정범 두 어원학자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길운(2012상:829-831)에서는 12세기 『계림유사』에서 '해(日, 太陽)'를 나타낸 '日曰ᄃᆞᆫ'의 'ᄃᆞᆫ/hən/(>ᄃᆞᆫ)'은 'ken/kən/'<Gily>과 'küneš'<O.Turk>와 음운상 대응이 되며, 'küneš' <O.Turk> 보다는 'ken/kən/'<Gily>이 고려어 'ᄃᆞᆫ/hən/(>ᄃᆞᆫ)'과 더 가깝다고 하여⁵⁾, 한국어와 길약어와의 동계성을 강조하였다. 또 강길운은 후기신라 지배층어와

2)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어문규정, 로마자 표기법 제8항의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는 규정에 따랐으며, 한국어와 몽골어의 로마자전사 표기 및 몽골문어는 []에 넣었고, 음성은 / /에 넣었다.

3) 서정범(2000), 『한국어 어원사전』, 보고사, pp.547-548.

4) 新增類合(신증유합)은 한문 입문서의 하나이다. 유합을 증보하고 수정하여 편찬하여서 신증유합이라 이름 하였다. 조선시대 宣祖(선조) 9년 1576년(목판권 2권 1책)에 유희춘(柳希春)이 2권 1책으로 지은 목활자본이다. 천자문(千字文)·훈몽자회(訓蒙字會) 등의 한자 입문서와 함께 널리 이용되었다.

5) 강길운(2012상:830-831)에서는 "hən(>ᄃᆞᆫ)"hiuan(曉聲蒸韻)<옛유>: 胡登切<集韻>을 고려초에 쓰이던 말이라고 보고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말을 'ken/ken(태양)<Gily>: küneš(태양)<O.Turk>'라고 하였다. 길약어(Gilyak) 'ken/ken'은 음운상으로도 han<ᄃᆞᆫ(하)>과 대응이 된다고 보았다. 또 강길운(2010: 1203)은 '해(陽)'의 어원에 대해서 "이 말은 kün(해, O.Turk)·ken/xen/ken(해, Gily)·šun(해, Ma)·veyil(햇빛, Dr-Ta)·vé(타다·뒹다, Dr-Ta)·vera(태양, Dr-Kond)·vele(해, Dr-Ga)·velil(햇빛, Dr-Ma)·vēla(해, Dr-Kui)·vel(밝은·빛나는, Dr-Ta)·bela(빛, Dr-Ka)·pötu

고대터키어를 동게어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어 '해'는 고대터키어 'küneš'(현대 터키어는 güneş)의 터키어 차용으로 보았으며, 만주어 'šun'도 'kün'의 차용으로 보았다. 한국어가 차용어의 말자음이나 발음절을 생략하는 관례로 보아서 'küneš>kün'의 발달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h<한국어> ~k<터키어>, ʌ<한국어>~ü<터키어>, ɳ<한국어>~n<터키어>의 음운대응이 가능하므로 "hən<한국어>~küneš<터키어>도 대응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고려어 "hən(현)에서 "hən> 'hən-i>hli>hE(히)'의 변화과정을 거쳐 한국어 '히'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kün> kü>kö>ke>hE(히)>hä(해)'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보아, '해'의 어원은 고대터키어 "kün'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서정범(2000:547,548)에 따르면, '히'는 '히'가 줄어진 말로서 '흔>홀>홀이>홀이>히'의 변화를 거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중세한국어 '하늘(天)'의 '하'는 '할'의 발음탈락 형일 것이라고 하였고, '늘'은 '해'의 뜻을 지닌 말로서 '날(日)'과 동원어(同源語)라고 하였다.

2.2. 현대한국어 '날(日)'과 현대몽골어 'наp[ᠨᠠᠫ nara, ᠨᠠᠨ naran]'

현대한국어 '날(日)'의 사전적인 뜻은 다음과 같다.⁶⁾

- (2) 1. ㄱ.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동안. 자정에서 다음 자정까지의 동안으로 24시간이다.
 ㄴ. 하루 중 환한 동안.
 ㄷ.=날씨01.
 ㄹ.=날짜01「2」.
 ㄴ. 어떠한 시절이나 때.
 ㅂ. ('날에는', '날이면' 꼴로 쓰여)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말.
 2. 「의존명사」. (고유어 수 뒤에 쓰여)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동안을 세는 단위.

현대한국어 '해(太陽)'가 천체어로서 시간 관련어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처럼, 현대한국어 '날(日)'이 곧 '해(太陽)'는 아니지만, '해'에서 비롯된 시간에 관한 관념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현[hən]'이 음운상 현대한국어 '해[hæ]'와 더 가깝고, 조선시대의 '날일[nal il]'은 현대한국어 '날[nal]'과 관련이 있으므로, 의미상 같은 뜻을 가지는 '해'와 '날'에 대해서 이들과 의미적으로나 음운적으로 대응하는 몽골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한국어 '해(太陽)'에 대응하는 현대몽골어는 'наp'이다. 'наp'는 현대한국어 '날

(시간·태양, Dr-Ta)·portu/hottu(시간·태양, Dr-Ka)·pod(해, Dr-kol)·podu(해, 낮, Kond) 등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길약어가 'ken/xen/ken(해)'이고, 고려어가 '현[hən>hən]'이어서 kün과 대응될 것('kün>hən>hən>hən' '현')이며, 그것이 길약어 'ken/xen/ken(해)'으로 수용되었다고 했다. 또한 만주어 šun도 kün의 차용으로 보아, "kün>hün>šün>šun"이 되었다고 보았으며, '해(태양)'의 어원은 'kün'으로 추정하였다.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7) 송의민(2001:19)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 「몽골 솔롱고스 어휘 하ल्ली тогтолцоот харилцааны судалгаа」에서 한국어와 몽골어의 숫자의 체계를 연구하다보면, '태양송배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태양송배사상'의 중심이 되는 '해/hæ/(몽골어 'наp')라는 말에서 숫자들이 나왔으며, '태양

[nal]과도 음운적으로 대응한다. 'nar'의 몽골문어는  이며, 로마자로 전사하면 각각 [naral]와 [naran]이다. 현대한국어 '날'은 의미적인 면에서는 현대몽골어 "өдөр, хоног, цаг хугацаа"로 번역할 수 있지만, '해'에서 비롯된 시간 관념어이므로 음운적으로 대응하는 현대몽골어 'nar'와의 관계를 통해서 'nar'와 동원어임을 짐작케 한다.

현대몽골어 'nar() [naral], ) [naran]'의 형태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몽골어군에서 비교적 일찍 분화한 것으로 알려진 몽골어의 5개 방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가. nar	현대몽골어
	나. nara()	몽골문어
	다. nar	다월어(達韓爾語)
	라. naran	동부위그어(東部裕固語)
	마. nara	투주어(土族語)
	바. naran	동상어(東鄉語)
	사. naran	보안어(保安語)

현대몽골어 'nar'의 중세형태인 'naran'⁸⁾을 포함하여 'nar'의 몽골어 방언들을 살펴보면, 각 방언들의 음운이 거의 다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모든 방언들마다 어근 'nar-'를 다 가지고 있다. 어근 'nar-'는 현대한국어 '날[nal]'의 'nal-'과 음운적으로 대응이 된다. 몽골어 'nar-'와 한국어 'nal-'의 음운구조가 자음-모음-자음(CVC)의 형태로 같으며, 어두자음은 모두 'n-', 두 번째 음운은 모음 '-a'으로 같다. 종성자음은 몽골어는 '-r-', 한국어는 '-l-'인데, 'l'과 'r'은 서로 유음(liquid)으로 쉽게 교체되는 음운들이어서 'r'~'l'의 대응이 된다. 그러므로 현대몽골어 'nar'의 'nar-'와 현대한국어 '날'의 'nal-'은 정확히 서로 음운대응이 된다.⁹⁾

승배사상과 동양의 '음양오행설'에서 숫자를 세는 방법인 '5진법'이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8) Б. Сумьябаатар, Б.Нарангэрэл(2008),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ны толь』, Улаанбаатар, 610쪽.

9) 조영연(1996:14)에서는 한국어 '날'[n, nal]은 드라비디어 nāl(날), naːl(날, 내일), nār(내일) 등과 동계어이고, 또 알타이어인 몽골어 'naran(nar)'과 동계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므로, 이 낱말 역시 알타이어, 드라비디어, 한국어 3자 일치의 Nostratica라고 하였다.

'The Tower of Babel'의 Altaic etymology(<http://starling.rinet.ru/>)에서도 Nostratic 언어인 'su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Proto-Altaic: *ŋera
- Nostratic: Nostratic
- Meaning: day, sun, light
- Russian meaning: день, солнце, свет
- Turkic: *jar-in
- Mongolian: *naran
- Tungus-Manchu: *ŋēr(i)-
- Korean: *nar
- Japanese: *ari-

3. 한·몽 기초어휘 '불(火)'과 'ᠭᠠᠯ[ᠶ᠋ᠠᠯ]

3.1. 현대한국어 '불(火)'과 현대몽골어 'ᠭᠠᠯ[ᠶ᠋ᠠᠯ]'의 대응관계

현대한국어 '불(火)'의 중세 형태는 '불'이다. 중세 한국어의 '불'에서 모음 'ㅡ'가 'ㅏ'로 교체되어 현재의 '불'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현대한국어 '불'은 중세 한국어 문헌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¹⁰⁾

- (4) ㄱ. 밧기 브리 비취여: 火照城外 <용비어천가69장>
ㄴ. 군 꼭고 불 피우니 <월인천강지곡上22>
ㄷ. 불을 따호야 <월인천강지곡上37>

현대한국어의 '불(火)'에 해당하는 현대몽골어는 'ᠭᠠᠯ'이다. 현대몽골어 'ᠭᠠᠯ'의 몽골문어는 ᠭᠠᠯ이며, 그 로마자 전사형태는 'yal'이다. 몽골어 'ᠭᠠᠯ[ᠶ᠋ᠠᠯ]'의 형태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몽골어군에서 비교적 일찍 분화한 것으로 알려진 몽골어의 5개 방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ㄱ. ᠭᠠᠯ(ᠭᠠᠯ) 현대몽골어
ㄴ. yal 몽골문어
ㄷ. galj 다월어(達斡爾語)
ㄹ. gal 동부위그어(東部裕固語)
ㄴ. gal 투주어(土族語)
ㄷ. qan 동상어(東鄉語)
ㄸ. xal 보안어(保安語)

위의 몽골어 방언들을 보면, 몽골어 'ᠭᠠᠯ[yal]'의 첫 자음 'ᠭ-'이 'g-' 또는 'g-'로 음운상 같거나, 'q-' 또는 'x-' 등 어두자음에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음운의 구성형태는 현대몽골어, 몽골문어, 몽골어 방언들은 다월어를 제외하면 모두 자음-모음-자음(CVC)으로 단음절이며, 동상어를 제외한 모든 방언들에서 'CVI'의 형태를 가진다. 'CVI'의 형태에서 중성 '-I(ᠢ)'은 현대한국어와 중세한국어에서도 동일하게 중성에 자음 '-ᄃ(ᄃ)'을 가진 'CVI'의 형태이므로 현대몽골어 'ᠭᠠᠯ[yal]'은 현대한국어 '불[bul]', 중세한국어 형태인 '불[beul]'과 대응이 된다.

현대몽골어 'ᠭᠠᠯ[yal]'과 현대한국어 '불[bul]'에 대해서 김선기(1968: 38)에서는 일찍이 "g~b의 원리¹¹⁾에 좇아 하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gbur' 이라고 하던 말에서 둘로 갈려 왔든지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는 송의민(2001:71)의 예¹²⁾를 들어 몽골

10) 남광우(1997),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p.728.

11) 김주원(2007:50)에 의하면, 김선기는 음운법칙 [g]>[w]>[b]>[m]에 따라 [g]와 [m]은 한 통시소(diachroneme)라고 하였다.

12) Сон Ый-минь(2001),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өвөг хэлний тогтолцоот харилцааны судалгаа』, хэл бичгий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доктор(Sc.D)-ын зэрэг горилсон зохиолын хураангуй, УБ. 71쪽.

이 'g'와 한국어 'b'의 대응 및 교체관계로 보는 것이 옳다.

3.2. '불(火)'의 의미를 가진 몽골어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현대몽골어에 '불'(火)의 의미를 가지는 말로 'гал[ɣal]' 외에, 'дөл[~~ᠳᠥᠯᠦ~~ dölü, 불꽃]'과 'нөл[~~ᠨᠥᠯᠡ~~ nölе, 화염]'이 있으며, '타다, 그을리다'의 뜻을 가진 동사 'борлох[borolaqu]'가 있다.¹³⁾

'гал[ɣal]', 'дөл[~~ᠳᠥᠯᠦ~~ dölü]', 'нөл[~~ᠨᠥᠯᠡ~~ nölе]'은 모두 단음절의 명사형으로 종성에 자음 '-l[리]'를 가진 'CVI'의 형태를 하고 있어서 한국어 '불[bul]'과 '불[beul]'에 대응이 된다. 또 '불'(火)의 의미를 지닌 동사 'борлох[borolaqu]'의 어근 'bor-'도 현대한국어 '불[bul]', 중세한국어 '불[beul]'과 음운대응이 된다.

먼저, 현대몽골어 'дөл[~~ᠳᠥᠯᠦ~~ dölü]'과 'нөл[~~ᠨᠥᠯᠡ~~ nölе]'의 어두자음 'd-'와 'n-'은 한국어 '불[bul]' 또는 '불[beul]'의 어두자음 'b-'와 대응이 된다. 몽골어의 어두 자음 'd-'나 't-'는 몽골어 'b-'와 상호간에 대응이 되며, 몽골어의 어두 자음 'd-'나 't-'가 한국어의 어두 자음 'b-'와 서로 대응되어, 'b- : t-', 'b- : d-'간에 음운 교체가 일어나는 예는 다음과 같다.¹⁴⁾

- (6) ㄱ. бөглөх[Mo. böglekü, '막다, 메우다'] : таглах[Mo. taylaqu, '뚜껑을 닫다, 막다']
 ㄴ. бээрэх[Mo. begereku, '추위를 타다'] : даарах[Mo. dayaraqu, '추워하다']
 ㄷ. 바로[baro 'даруй'] : даруй[Mo. darui, '바로, 즉시']
 ㄹ. 바르다[bareuda 'шулуун'] : дардан[Mo. dardang, '곧은, 광활하고 평탄한 큰 길']
 ㅁ. 바퀴[bakwi 'дугуй'] : дугуй[Mo. duɣui, '바퀴']

현대한국어 '불[bul]'과 중세한국어 형태인 '불[beul]'은 현대몽골어의 'дөл[~~ᠳᠥᠯᠦ~~ dölü]'과 'нөл[~~ᠨᠥᠯᠡ~~ nöl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어두자음이 서로 대응된다.

(7)	한국어(K)	몽골어(M)	대응관계(K : M)
	불(beul), 불(bul)	dölü	b : d
		nölе	b : n

그러므로 현대몽골어 'дөл[~~ᠳᠥᠯᠦ~~ dölü]'과 'нөл[~~ᠨᠥᠯᠡ~~ nölе]'은 현대몽골어 'гал[~~ᠭᠠᠯ~~ ɣal, 불]'과 더불어 중세한국어 형태 '불[beul]'과 현대한국어 '불[bul]'에 대응이 되며 이들은 모두 동원어라고 할 수 있다.

'불'(火)의 의미를 지닌 동사 'борлох[borolaqu, '타다, 그을리다']'의 어근 'bor-'은

ㄱ. 바라다: горьдох[W.Mo. ɣoridaqu '바라다']

ㄴ. 빠지다: гуужих[W.Mo. ɣuujiɣu '빠지다'], гоожих[W.Mo. ɣoɣujiɣu '새다']

13) 이지영(2014:42)의 "한·몽 기초어휘 '불'다 улаан[~~ᠤᠯᠠᠭᠠᠨ~~]와 '별' од[~~ᠣᠳ~~]의 어원 연구"에서 '(월월)타다'라는 뜻의 'бадмалах[badmalaqu]'와 'бадмарах[badmaraqu]'를 기초어휘의 범주에 넣어 비교를 한 바 있는데, 이 두 단어는 고유한 몽골어가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제외시켰다.

14) Сон Ый-минь(송의민 2001), Op. cit., p.71.

‘bVr-’의 형태를 가지며, 현대한국어 ‘불[bul]’은 ‘bVl-’의 형태를 가진다. 한국어 ‘불[bul]’과 몽골어 ‘bor-’는 모두 어두자음이 ‘b-’로 같으며 두 번째 음운인 모음은 ‘u~o’, 자음 ‘l~r’의 관계를 가지므로 음운대응¹⁵⁾이 된다.

현대한국어 ‘불(火)’과 관련이 있는 어휘 중에 ‘괄다’와 ‘그을음’, ‘그슬음’이 있다. “불기운이 세다”는 뜻의 형용사 ‘괄다[gwalda]’의 어근 ‘gwal-’의 음운구조를 보면 ‘자음-모음-자음’의 형태로 단음절 ‘CVC-’의 형태이다. ‘불(火)’의 뜻을 가진 현대몽골어 ‘ral[ᠷᠠᠯ]’과 비교해 보면, 음운구조는 ‘CVC’로서 같다. 어두자음도 한국어는 ‘g-’, 몽골어는 ‘ᠷ-’로서 대응이 되며, 두 번째 음운인 모음은 ‘-wa-’와 ‘-a-’가 서로 대응하고, 종성 자음은 둘 다 ‘-l’로서 같다.

현대한국어 ‘그을음(炁)’은 “어떤 물질이 불에 탈 때에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모양의 검은 가루”를 뜻하고, ‘그슬음’은 “불에 걸만 약간 타게 하는 일”을 뜻하는 명사이다. ‘그슬음’과 관련하여 “불에 걸만 약간 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그슬다’와 피동사 형태인 ‘그슬리다’도 있다.

‘그을음(炁)’의 중세한국어 형태는 ‘그스름(炁)’이다. 중세한국어 문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¹⁶⁾

- (8) ㄱ. 그스름 텃(炁) <훈몽자회下35>
- ㄴ. 머리와 니마 그슬려서 <三譯總解9:1>
- ㄷ. 그슬리다(燎子) <同文類解上60>

‘그스름’ > ‘그으름’ > ‘그을음’의 변화를 통해 중세의 ‘그스름(炁)’이 현대에는 ‘그을음(炁)’이 되었고, 중세한국어 ‘그슬리다’의 어근 ‘그슬-’에 명사형 접미사 ‘-음’이 더해져서 ‘그슬음’이 되었음도 알 수 있다.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스름(炁)’의 조어를 ‘*그슬-’로 추정할 수 있다.

- (9) ㄱ. ‘그스름’ > ‘그으름’ > ‘그을음’ ← ‘*그슬-(炁)’ + 명사형 접미사 ‘-음’
- ㄴ. ‘그슬리다’의 ‘그슬-’ + 명사형 접미사 ‘-음’ → ‘그슬음’

‘*그슬[geuseul-]’은 ‘불[bul]’, ‘ral[ᠷᠠᠯ]’, ‘döl[dölü]’, ‘nöl[nöle]’, ‘gwal[gwal-]’ 등과 같은 단음절은 아니지만, ‘불(火)’의 뜻을 가진 현대몽골어 ‘ral[ᠷᠠᠯ]’에 대응한다. 두 어두자음은 ‘g-’~‘ᠷ-’의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종성 ‘-l’(ᠷ)의 음운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그슬[geuseul-]’도 몽골어 ‘ral[ᠷᠠᠯ]’과 동원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5) 몽골문어표기상, a~e, o~u, ö~ü는 같은 표기를 한다.

16) 남광우(1997), Op. cit., p.175.

4. 맺음말

한국어와 몽골어의 계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한 방법으로 어휘의 음운론적인 대응관계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알타이제어에서 가장 먼 관계라고 보았던 한국어와 몽골어 어휘의 대응관계를 음운론적으로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현대한국어 '해(太陽)'와 '날(日)', '불(火)'과 '칼다', '그을음(烱)',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현대몽골어 'ᠬᠡ[ᠬᠡ nara, ᠨᠠᠷᠠᠨ]', 'ᠭᠠᠯ[ᠭᠠ ᠶᠠᠯ]', 'ᠳᠥᠯ[ᠳᠥ dölü]', 'ᠨᠥᠯ[ᠨᠥ nölö]'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계성을 밝히고 분파된 언어들의 기원이 되는 공통 조어를 찾고자 하였다.

먼저, 현대한국어 '해(太陽)'가 천체어로서 시간 관련어에 다양하게 쓰이는 것처럼, 현대한국어 '날(日)'도 '해'에서 비롯된 시간에 관한 관념어이고, 고려시대의 'ᠬᠠᠩ[hang]'이 현대한국어 '날(日)'도 '해'에서 비롯된 시간에 관한 관념어이고, 조선시대의 '날일[nal il]'은 현대한국어 '날' 음운상 현대한국어 '해[hae]'와 더 가깝고, 조선시대의 '날일[nal il]'은 현대한국어 '날[nal]'과 관련이 있으므로, 현대한국어 '날[nal]'과 의미적·음운적으로 대응하는 현대몽골어 'ᠬᠠᠭ[ᠬᠠᠭ-]'와의 대응관계를 살펴보았다. 모두 다 단음절 CVC의 형태를 가지며, 어두자음, 두 번째 모음, 종성자음 모두 음운적으로 대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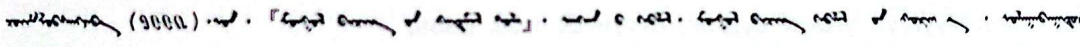
현대한국어 '불(火)'에 대응되는 현대몽골어를 'ᠭᠠᠯ[ᠶᠠᠯ]' 외에 'ᠳᠥᠯ[dölü, 불꽃]', 'ᠨᠥᠯ[nölö, 화염]'에서도 살펴보았는데, 한국어 '불[beul]과 불[bul]'의 어두자음 'b-'는 몽골어 'ᠶᠠᠯ', 'ᠳᠥᠯ', 'ᠨᠥᠯ'의 어두자음 'ᠶ-', 'ᠳ-', 'ᠨ-'과 대응하였다. 또 '불(火)'의 의미를 지닌 동사 'ᠪᠣᠷᠯᠠᠭ[borolaqu, 타다, 그을리다]' 어근인 'bor-'도 한국어 '불[beul]'과 '불[bul]'에 대응이 됨을 확인하였다.

'불(火)'의 의미를 지니는 현대한국어 '칼다'와 '그을음(烱)'에 대해서도 그 중세형태가 현대몽골어 'ᠭᠠᠯ[ᠶᠠᠯ]'과 음운적으로 대응이 됨을 밝혔다.

그러므로 현대한국어 '불[bul]', 그 중세형태인 '불[beul]', '불(火)'의 의미를 지니는 현대한국어 '칼다'의 '칼[gwal]-', '그을음(烱)'의 '*그슬[geuseul]-', 현대몽골어 'ᠭᠠᠯ[ᠶᠠᠯ]', 'ᠳᠥᠯ[ᠳᠥ dölü, 불꽃]', 'ᠨᠥᠯ[ᠨᠥ nölö, 화염]'은 모두 동원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길운(2010), 『비교언어학적 어원사전』, 한국문화사.
강길운(2012), 『한국어 계통론』上, 한국문화사.
강길운(2012), 『한국어 계통론』下, 한국문화사.
김무림(2012), 『한국어 어원사전』, 지식과 교양.
김선기(1968), "한·일·몽 단어 비교-계통론의 깃들-", 『한글』142, 한글학회, pp.7-51.
김중훈·박영섭·박동규·김태곤·김종학(2008), 『한국어의 역사』, 집문당.
金炯秀(1994)編著, 『滿洲語・蒙古語 比較語彙辭典』, 형실출판사.
남광우(1997), 『교학 고어사전』 12쇄, 교학사.

-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2003), 『한몽사전』, 몽골국립대학교, Улаанбаатар.
- 산기도르지 바트히식(2009), 『17-18세기 몽골어의 음운론적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서정범(2000), 『한국어어원사전』, 보고서.
- 안병호(1985), 『계림유사와 고려시기 조선어』,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延边新华印刷厂印刷, 牡丹江市.
- 이지영(2014), “한·몽 기초어휘 ‘불다 улаан[ (1999) . . . 『』 . . . с нээ .  . . .
- Ц.Шагдарсүрэн(2013), “Ханзаар галиглан эртний Монгол үгийг солонгос ханзын дуудала -гаар сэргээх боломж”,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ны чиг хандлага』, УБ.
- Ts Shagdotsuren(1999), On Two Words for '2' or '1 + 1 = 2' in the Altaic Languages, алтаихакбо Vol.9 No.1, 한국알타이학회, pp.313-334.
- 孙竹主編(1990), 『蒙古语族言词典』, 青海人民出版社, 北京, China.
- 小沢重男(Озава Шигэо, 1958), 『Орчин Үеийн Монгол-Япон товч толь』, 大學書林, 東京.

Солонгос • Монгол хэлний '해(нар)', '날(өдөр)', '불(гал)' гэдэг уугуул үгсийн судалгаа

И Жи-Йөн(이지영)

[Хураангуй]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гаар Алтай хэлний хамгийн хол төрөл болох монгол хэл боло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хоорондын харилцааг уугуул үгсийн харьцуулал гэдэг судалгааны аргын тусламжтайгаар судлан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оёр хэлний ойр харилцааг тодруулахыг зорьсон. Энэ хоёр хэлний уугуул үгсийн гарлын холбоог тодруулж, өвөг хэлний шинжийг сэргээн тодорхойлох бөгөөд монгол ба солонгос хэл нэгэн уугуул үгсийн гарвалтай хэл мөн гэдгийг нотлох зорилготой.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нд орчин цаг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해[hae, '太陽']', '날[nal, '日']', '불[bul, '火']', '팔다[gwalda]', '그을음[geu-eul-eum, '烱']'-тэй дүйж байгаа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ар[ᠨᠠᠷ nara, ᠨᠠᠷᠠᠨ naran]', 'гал[ᠭᠠᠯ ḡal]', 'дөл[ᠳᠥᠯᠦ dölü]', 'нөл[ᠨᠥᠯᠡ nölē]' гэдэг уугуул үгсийг судлагдахуун болгож авав.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 орчин цаг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해[hae, '太陽']', '날[nal, '日']' нь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ар[ᠨᠠᠷ nara, ᠨᠠᠷᠠᠨ naran]'-тай дүйж байгаа бөгөөд, орчин цаг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불[bul, '火']', '팔다[gwalda]', '그을음[geu-eul-eum, '烱']' нь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гал[ᠭᠠᠯ ḡal]', 'дөл[ᠳᠥᠯᠦ dölü]', 'нөл[ᠨᠥᠯᠡ nölē]' гэдэг үгстэй гарал нэгтэй гэж үзэж болно.

Түлхүүр үг: '해(陽)', 'нар[ᠨᠠᠷ nara, ᠨᠠᠷᠠᠨ naran]', '불[bul, '火']', '팔다[gwalda]', '그을음[geu-eul-eum, '烱']', 'гал[ᠭᠠᠯ ḡal]', 'дөл[ᠳᠥᠯᠦ dölü]', 'нөл[ᠨᠥᠯᠡ nölē]', 'уугуул үг', 'өвөг язгуур'

몽골어와 한국어의 높임법 비교 연구

체.어용게렐1)

목차

- I. 서론
- II. 몽골어의 높임법
 - 2.1 문법적 범위
 - 2.2 어휘적 범위
- III. 한국어의 높임법
 - 3.1 문법적 범위
 - 3.2 어휘적 범위
- IV. 몽골어와 한국어의 높임법의 차이점과 유사점
 - 4.1 높임법 차이점
 - 4.2 높임법 유사점
- V. 결론

[국문 초록]

본고는 몽골어와 한국어 높임법을 문법적, 어휘적 범위로 비교 연구한다. 첫째, 몽골어의 높임법에 대해 제시한 후, 둘째로 한국어의 상대높임법, 문법적, 어휘적 범위의 높임법을 제시하는데 이는 한국어는 말이나 글 하나 하나가 모두 높임 표현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위계질서가 엄격히 반영되는 언어이다. 한국어 높임법은 외국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에게도 완벽하게 정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용법이 복잡하고 미묘하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한국어 높임법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문법적 범위와 어휘적 범위의 높임법을 제시했다. 셋째, 몽골어와 한국어의 높임법을 비교하면서 연구한다. 양 언어의 높임법이 문법적으로 어떤 어미나 조사로 나타나며, 어휘적으로는 높임법의 어떤 품사가 있는지를 예를 들면서 비교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양 언어의 높임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한다.

주제어 : 존대어, 높임법,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상대높임법

I. 서론

본고는 몽골어와 한국어의 높임법을 문법적, 어휘적으로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알타이어족²⁾, 즉 요즘 한국어 언어학자인 최기호의 의견인 동북아시아어족 (North East

1)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학과 전임강사

2) 몽골어와 한국어의 계통적 위치를 만주어, 튀르크어와 함께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가설을 확립한 사람은 핀란드의 역사언어학자 람스테트 (Ramstadt.G.J)이다. 그는 많은 논저를 통하여 알타이어족설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다.

Asian Language family)³⁾에 속한 몽골어와 한국어는 문법과 형태론적, 통사론적으로는 비슷한 것은 본 연구의 큰 목적이다.

높임법은 양 언어 문법 교육 과정의 하나이다. 그래서 교수들과 학습자들을 위해서 양 언어 문법교육의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몽골어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양 언어의 높임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언어란 것은 추상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 언어는 그 나라 국민의 생활습관과 풍습, 철학과 종교, 민속학과 문화의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언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특히 양 언어를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것은 그 국어를 가진 국민의 사상과 생활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왜냐하면, 언어의 높임법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고 그 나라의 언어 성장과 풍요함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말을 주고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상대방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좋다. 이럴 때는 언어의 높임법이 큰 역할을 한다.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몽골어와 한국어의 특징인 높임법을 잘 알아야 상대방에게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양 언어의 높임법을 잘 알아야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높임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교수나 학습자들, 통역사와 번역사의 의무이다. 이것이 바로 본고 몽골어와 한국어의 높임법의 비교 연구의 의의이다.

II. 몽골어의 높임법

몽골어에서는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존경법이 있다. 부모님과 친척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 존대법이다.⁴⁾

몽골어 높임법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휘적 범위로는 연구된 적이 있다. 존대어를 언어학적으로는 유의어에 포함하고 연구해 왔다. 표현이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말이 유의어이다. 예를 들면 *амар - тайван, жаргал - цэнгэл, зовлон - зүдгүүр, баяр - хөөр, зам - жим, нүд - мэлмий, гар - мутар, идэх - зооглох, унтах - нойрсох*

2.1. 문법적 범위

예사말에는 어미나 조사를 붙여 존대어를 파생시키는 것을 문법적 범위의 높임법이라고 한다. 이런 문법적 범위로서의 높임법은 몽골어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명사와 동사에 붙는 몇 가지 조사와 어미가 있다. 예를 들면, 명사에다가 “тан”, “гтай, гтой, гтэй”, “тань” 조사를 붙여 주체를 높이는 말이 된다. 동사에는 “гтун, гтүн”, “гтий”, “аат-4” “аарай-4” 등의 어미를 붙여 상대방을 높이는 뜻이 된다.

3) 몽골, 보리야트몽골, 만주,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같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인종적으로도 몽골 반점이 있고, 체형, 인류학적 형질이 유사하게 나타나며, 고고학 유물이 유사하고, 민속학적 풍속도 매우 비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은 같은 계통의 언어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어족 (North East Asian Language family) 이라는 계통설을 주장하는 것이다.

4) 테, 남길, 『몽골 가족의 전통적 풍습』, 2005, p.15

2.1.1. 동사에 붙는 어미

1. 이인칭 존대명령형 어미: “гун, гүн”

이 어미는 상대를 존대하면서 명령하는 것이다. 몽골표준어로서는 “гун, гүн”인데 지방 방언에는 “ту, тү”, “тий”, “гий”이고, 이들은 오이라드와 다르하드 방언에 나타나고 있다.⁵⁾ 예를 들면,

Та тавтай зооглогтун.

당신은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나 이 예들은 청자를 존대하면서도 명령하는 화행의미를 수반하기 때문에 화자의 권위가 드러나는 고풍스러운 문어체나 공식적, 외교적인 수사 및 대중선동을 위한 슬로건, 표어 등으로 그 쓰임이 제한된다.

2. 이인칭 권고명령형어미: -аарай, оорой, ээрэй, өөрэй

이 어미는 화자의 의향 및 억양과 감정에 따라 요청, 요구, 청탁, 권유, 허용, 기원 등의 서법의미를 각각 지닌다. 예를 들면,

Та наашаа ирээрэй. (당신은) 이리 오세요. (요청)

Та аян замдаа сайн яваарай. (당신은) 여행길에 안녕히 가세요.(기원)

Надад энэ номноос аваад ирээрэй. 나한테(내게) 이 책을 가져오라.(청탁)

앞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종결어미 “-аарай, оорой, ээрэй, өөрэй”는 화자의 심적 태도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화행의미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높임표현 등급을 따져 보았을 때 두루 높이는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이인칭 요구명령형어미: “-аач, ооч, ээч, өөч, -аат, оот, ээт, өөт”

현대몽골어 요구명령형 종결어미 “-аач, ооч, ээч, өөч, -аат, оот, ээт, өөт”은 복합 형태라는 설이 있다. 밤브상(1987)에 의하면 이 형태는 이인칭 요구명령형어미인 '양 모양' 형태로 활용한 동사어간 다음에 오는 이인칭 대명사 사이에 “аа, оо, ээ, өө”라는 발화음이 추가되어서 생긴 것이다.⁶⁾ 그 변화 과정을 보여 주면 다음과 같다: 동사어간 + аа + чи, та = 동사어간 + -аач, ооч, ээч, өөч, -аат, оот, ээт, өөт

여기서 대명사 “чи”가 비존대 대명사이고, “та”가 존대 대명사이면 “аач,ооч, ээч, өөч” 비존대형 어미이고 “аат,оот, ээт, өөт”은 존대형어미이다. 예를 들면,

Чи суугаач. 너 앉아.

그런데 현대몽골어에는 “аат,оот, ээт, өөт”은 방언에 많이 사용되며 상대방을 높이는 뜻을 가진다. 예를 들면,

Та суугаат. (당신은) 앉으세요.

Та уншаат. (당신은) 읽으세요.

이상, 이인칭종결어미 중에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몽골어의 이인칭종결어미가 화행적 의미뿐만 아니라 높임의 뜻도 지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몽골어에는 현재시제의 “на, нэ, но, но”라는 어미가 있는데 이 어미 뒤에는 “уу, үү”가 오고 상대방을 높이는 한 가지 형태가 된다. 예를 들면,

5) 르.자그왈를, 『몽골어 존대말』, 1976, p. 35

6) 밤브상, 『현대몽골어 형태론 구조』 1987, P.46

Та сууна уу. 당신이 앉으세요.

Манайд орно уу.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2.1.2. 명사에 붙는 어미

1. 높임접미사: “гтай, гтой, гтэй”

몽골학자 르.자그왈를이 “예사 말 어간에 “гтай, гтой, гтэй”, “гай /гуй /гий”, “тань /тэнь”, “аа /ээ” 조사를 붙여 높임의 뜻을 제시하기 때문에 높임의 접사가 된다.

의미적으로는 모두 높임의 뜻이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Хатагтай (양부인), Ноёгтой (신사), Эзэгтэй(부인), Эрэгтэй (남자), эмэгтэй (여자) 등 높임 접사가 붙은 명사가 주체를 높이는 높임법이다.

2. 높임접미사: “тан, тэн, тон”

이 접미사는 주로 인칭 파생 접미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한적으로 명사에 붙여서 높임의 뜻을 가진다. 그래서 명사에 붙여 평칭을 경칭으로 바꾸어 주는 기능을 하는 접미사이다. 예를 들면, Эрдэм – эрдэмтэн, лам – ламтан, багш – багштан, ноён-ноёнтон, эзэн – эзэнтэн, хатан – хатантан, гүнж – гүнжтэн

3. 높임접미사: -гай, гий

이 접미사는 명사에 붙여 높임의 뜻을 가진 명사를 만든다. 이렇게 파생한 명사는 많지 않다. 예를 들면 авгай, гэргий 등이다.

4. 이인칭재귀조사: -тань, тэнь

이 조사는 이인칭 예사 대명사 “чинь”의 높임표현이다. “Таны”(당신의)라는 말이 명사 뒤에 오는 표현이다. 예를 들면,

Ээж тань сайн сууж байна уу?

(당신) 어머니께서 잘 계십니까?

Бие тань муу байна уу?

(당신) 몸이 편찮으십니까?

“Таны”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하는 것을 말할 때 주체를 높이는 말이다. 예를 들면,

Таны цүнх энд байна. (Цүнх тань энд байна.)

당신의 가방이 여기 있습니다.

2.2. 어휘적 범위

몽골어 높임법은 어휘적 범위에서 발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높이는 대상자의 신체부위 관련 어휘 또는 그 대상자가 거하는 장소, 음식, 쓰는 물품과 관련된 어휘가 주로 사용된다. 이것은 몽골인들이 존대하는 인물 대상과 그 대상과 관계되는 것들을 두루 높이는 관습이 있기 때문이다. 몽골어 어휘적 범위의 높임법은 존대의 뜻을 가진 단어에 나타나며, 여기에는 명사, 동사, 대명사가 포함된다. 이 같은 몽골어 존대어는 구어체나 문어체에서 두루 사용된다. 현대 몽골어 존대어는 정부예식이나 환영회 등의 공식적인 자리에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른들을 존경할 때는 사용한다. 그리고 요즘은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단체나 병원, 식당 같은 곳들을 존대어로 이르는

7) 르.자그왈를, op.cit., p. 35

짓는 일이 많다. 예를 들면, Ён мэлмий (안경가게 이름), Хатагтай (산부인과 이름), Сонор (경호소 이름), Гүнцэг(식당 이름) 등이다.

2.2.1. 높임 명사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지칭하거나 호칭하는 경우에 쓰인다. 몽골어에는 존대하는 인물과 인물이 쓰는 소유품과 관련되는 높임말들이 많다. 예를 들면,

Хоол – зоог, архи – сархад, гэр – өргөө, нэр – алдар, нас – сүүдэр,
эхнэр – гэргий, өглөг – хишиг

특히 대상자의 신체부위에 관련되는 명사도 많다. 예를 들면,

Бие –лагшин, толгой – тэргүүн, дух – магнай, нүд – мэлмий,
чих – сонор, гар – мутар, хөл – өлмий

몽골어에는 어린이를 위한 완곡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높임표현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몽골인들이 옛날부터 어린이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서 어린이들과 관련되는 것들을 존대어로 써 왔다. 예를 들면,

Хүүхдийн дээл – баривч, гутал – бойтог, үс – сэвлэг, даахь,
шүд – цахиур

2.2.2. 높임 동사

존대의 뜻을 가진 동사는 인물의 행동을 존대어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동사는 몽골인들의 풍습과 종교, 생활 태도와 예절과 관련된다. 옛날부터 대화에서 많이 사용해 왔는데 현대 몽골어에도 그 기능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Үг хэлэх – айлдах, хэлэх – айлтгах, дуулгах – сонордуулах.
өгөх – өргөх, идэх –зооглох, зөвшөөрөх – соёрхох.
очих – айлчлах, явах – залрах.

몽골어 높임 동사는 명사에서 파생하거나 어미를 붙이어 파생 높임 동사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높임 동사가 예사 동사와 같이 쓰기도 한다. 예를 들면,

Алдар нэр, нас сүүдэр, өргөө гэр.

2.2.3. 높임 대명사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개인적 친분이 없을 때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높임 대명사를 사용한다. 몽골어에는 높임 대명사가 한국어보다 적다. 현대 몽골어에는 이인칭대명사 “та”가 빈도 높게 사용되는 대명사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부를 때는 “чи”로 불러도 된다. 그리고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으려고 할 때는 “өөрөө”라는 이인칭 대명사를 쓴다.

몽골어에는 옛날에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기 위해 일인칭대명사 “би”(나)를 “мөхөс би, дорд би, боол би, өчүүхэн би, өчүүхэн боол би, мөхөс миний бие, мөхөс хүн би”라는 말을 사용한 바 있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저”라고 할 수 있다. 이 일인칭 대명사는 현재는 문학 작품과 역사책에는 많이 쓰인다.

III. 한국어의 높임법

한국어의 가장 큰 특성이 높임법이다. 한국어 문장은 어느 문장이든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에 높임의 개념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높임의 관념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기 마련인데,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의향 태도를 가지고 언어 내용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가 높임법이다.⁸⁾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연구가 옛날부터 이어져 왔다. 높임법 표현 체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청자높임법의 세 분류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본고에는 최현배, 이희승, 김태엽, 권재일, 정렬모, 서정수, 최기호, 황문용, 민현식 등 학자들의 높임법 연구가 있는데 최현배와 이희승의 견해를 살펴보고 하겠다.

최현배(1937)의 연구를 따르면⁹⁾

1. 말의 높임의 두 가지

- 움직임의 임자인 사람 곧 월의 임자를 높이는 것이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말을 높이는 것:

· 대이름씨 높임: 당신, 자네, 나, 저 등

· 이름 밑에 높임말 '선, 씨, 님',

또는 관직 따위를 붙이는 것: 아무선, 설 씨, 강님 등.

- 움직임을 높이는 말을 쓰는 것이다.

2. '(으)시'를 더하는 것

움직임을 높이는 말을 쓰는 것: 주무시다, 드시다, 계시다 등

말 듣는 이를 높임: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이희승(1949)의 연구에 따르면¹⁰⁾

1. 존경법

- 예삿말 외에 존경하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경우다.

명사: 밥/진지, 손갈(수갈)/간자, 수염/염, 병/병환 등

동사: 먹다/자시다, 잡수시다, 자다/주무시다, 죽다/돌아가시다

대명사: 너/자네, 당신, 이이/이분, 어느 분/아무 분

존재사: 있다/계시다, 없다/안 계시다

조사: 이/가/께서, 아야/여/이여

- 예삿말에 존경하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덧붙여서 쓰는 경우.

명사 뒤에 "-님"

용언의 경우는 어간에 보조 어간 "-시-" 삽입

조사의 경우는 특수 조사에 한하여 "께서"를 그 앞에 붙임: 께서는, 께서도

2. 겸손법

8) 김태엽,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1999, p.8

9) 이 윤하, 『현대 국어의 대우법 연구』, 2001, p.279

10) 이윤하, op.cit., p.280

- 예삿말에 외에 겸손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경우.

명사: 말/말씀, 아버지/에비(겸사말) 등

대명사: 나/저(겸사말)등

동사: 이르다/여쭙다, 속이다/가만하다(기망하다), 주다/드리다,
데리고/모시고(겸사말) 등

- 예삿말에 겸손한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덧붙여서 쓰는 경우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는 복잡하고 세밀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는 특히 상대높임법이 좀 어려운 편이다. 현대 한국어 높임법 연구는 상대높임법을 중심으로 높임법의 체계를 잡아가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3.1. 문법적 범위

한국어의 상대높임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한국어의 높임 표현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높임 표현을 이해하는 데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높임법이 화자가 청자에 알맞은 말씨를 선택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주로 어미나 조사에 의하여 구분된다. 이런 현상은 몇 단계로 범주화하여 논의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화계라 한다. 이 화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나이, 사회적 신분, 친밀도 등이 고려된다.

3.1.1. 김영희 (1996)가 제시한 상대높임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격식체

- 높임 : 하옵니다체, 합니다체, 하오체, 하네체
- 안 높임 : 하다체

2. 비격식체 a)

- 높임 : 해요체,
- 안 높임 : 해체

여기서 '하옵니다체'의 사용 빈도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국 사극이나 종교적 용어로 지금도 그 언중들 가운데 쓰이고 있다.

3.1.2. 성기철 (1970, 1985) 11)의 상대높임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높임 (존대)

- 등분 : 아주 높임 (하십시오) - 예사 높임 (하오)
- 등회 : - 두루 높임 (해요)
- 등회 : - 두루 낮춤 (해)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체계를 보면 '하십시오,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하오체, 하게체'가 극히 제한되어 그 쓰임이 감퇴된다.

문법적 범위는 예사 말에는 높임의 뜻을 가진 조사나 어미를 붙여 생긴다. 여기는 체언류와 용언류가 있다. 가령, 명사에는 주격조사 '께서', 보격조사 '께'를 붙여 주체높임법이 된다. 또한 명사에는 '님'과 '씨'를 붙여 높임 명사가 된다. 예사 동사

11) 이윤하, op.cit., p.237

접미사 '님'

'님'은 존귀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을 지칭하거나 호칭하는 어휘 뒤에 연결되는 것이다. 한국어의 호칭에는 '님'이 상당히 활발히 쓰인다.

'님'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²⁾

1. 친족명칭에 결합한다. 예를 들면,

형 / 형님, 누나 / 누님, 아버지 / 아버님, 어머니 / 어머님,
아주머니 / 아주머님

2. 직함에 붙어 경칭을 만든다. 예를 들면,

과장 / 과장님, 국장 / 국장님, 장관 / 장관님, 시장 / 시장님,
소장 / 소장님

격조사 : -께서, -께

격조사 중에 주격조사 '이 / 가'의 존대형이 '께서 (께옵서)'이다. 예를 들면,
아버님께서 오신다.

주격조사의 존대형인 "께서" 뒤에는 '는, 도' 조사가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버님께서서는 / 도 작년에도 상을 받으셨다.

주격조사 "께서"가 존대 동사를 파생시키는 '-시'와 직접 관련된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가르치신다.

보격조사 "에게, 한테"의 존대형이 "께"이다. 예를 들면,
아버님, 영수가 할아버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보격조사의 존대형 "께" 뒤에도 "는, 로"가 온다. 예를 들면,

아버님께는 돈이 있습니다. 격조사로 높이는 것은 한국어의 큰 특징이다.

어말어미 "- (으) 시 -"

문장의 주체가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신분계가 가깝지 않을 때, 화자는 동사의 어간에 "- (으) 시"를 붙이고 동사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때 "- (으) 시"를 붙인다.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께서 노래하신다.

문장이 주체가 청자이거나 제삼자일 때는 높이지만 화자가 주어일 때는 높이지 않는다. 즉, '나는 가신다'라고 할 수 없다.

듣는 사람이 문장의 주체보다 높은 인물이 경우에는 주어가 말하는 이보다 높은 분이라고 '시'가 쓰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할머니, 형 왔어요.

주체가 높아도 누스를 보도하거나 교과서 등의 공식적인 표현에서는 '-시'가 쓰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높임이 뜻을 가진 '-시'가 서술어에 붙는다. 이 형태는 "- (이) 시"이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의사입니다.

12) 이익섭, 『이상역, 한국어의 언어』 1997, p. 239

3.2. 어휘적 범위

한국어에는 높임의 뜻을 가진 어휘들이 있다. 어휘적 범위는 체언류와 용언류가 있다. 예를 들면, 존대의 뜻이 있는 명사 : 진지, 말씀, 춘부장, 자당, 노형, 당신, 이분 등이다. 존대의 뜻을 가진 명사는 인간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존대말로 쓴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는 진지를 잘 잡수시니?

“진지”라는 존대어는 “잡수시다”와 같이 쓴다. 이것은 존대어가 있는 문장이 그대로 존대의 뜻을 가진 단어만 사용하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어의 존대 동사는 어휘적으로 단독으로 존대의 뜻을 가진 동사이다. 예를 들면, 할머니께서 안방에서 주무십니다.

한국어에서 또 한 가지 존대의 뜻을 가진 동사를 파생시키는 문법이 있는데 그것은 존대 접사 “ (으) 시”를 예사 동사 어간에 붙여 존대동사를 파생하는 것이다. 어휘적으로 보면 이것도 존대 동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기 위해 낮춤말, 즉 ‘드리다, 여쭙다, 뵙다, 모시다’를 쓴다. 예를 들면,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존대 대명사

많은 언어에서 2 인칭 대명사는 평칭과 경칭으로 나뉘어 있다. 경어법이 발달되어 있는 한국어도 1 인칭, 2 인칭, 3 인칭 존대 대명사가 있다. 1 인칭 대명사는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저’, ‘저희’가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저도 가겠어요.

선생님,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2 인칭 대명사 쓰임이 제한하지만, 상대를 높일 때 대명사 대신 이름이나 호칭으로 부른다. 예를 들면,

박사님도 저희들과 같이 가지지요.

아랫사람에게도 대명사를 쓰기보다 이름을 부르면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영희가 (네가) 엄마를 도와 주겠니?

김 계장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IV. 몽골어와 한국어의 높임법 유사점과 차이점

양 언어의 높임법이 문법적 범위와 어휘적 범위에서 어떤 형태를 갖는지를 비교 연구해 보겠다.

한국어와 몽골어의 높임법을 문법적 범위와 어휘적 범위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양 언어 높임법 표현의 실현 방식과 특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과 유사점들이 나타난다.

4.1. 양 언어의 높임법 차이점

1. 한국어에는 존대 명사를 파생하는 '님'이 친족명칭과 직함에 붙어 경칭을 만드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아버님, 어머님, 형님, 사장님, 선생님 등이다.
몽골어에는 존대를 나타내는 접미사 '님'과 비슷한 "тан, тэн, тон"이 있지만 직함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에만 붙는다. 예를 들면, хаантан, ламтан, багштан, сайдтан 등이다. 그러나 친족명칭에는 붙을 수 없다.
2. 한국어에는 격조사 중에서 부사격조사 '께서', 보격조사 '께'라는 높임조사가 있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오신다. 이 선물을 형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높임법과 몽골어 높임법의 한 가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어에는 격조사가 높임의 뜻을 표현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주격조사 '께서'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으)시' 어미와 같이 쓰인다. 부사격조사 '께'는 화자가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는 '드리다, 여쭙다, 뵙다'와 같이 쓰인다.
3. 한국어 주체높임법에는 동사 어간에 '(으)시'를 붙여 높임 동사가 된다. 이런 점이 한국어 높임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면,
저분이 김 박사님이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오십니다.
몽골어에는 동사 어간에 높임의 뜻을 가진 접사를 붙여 높임 동사를 파생하는 것이 없다. 다만 존대의 뜻을 보조동사만 붙여 파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Та сууж болгооно уу. (당신이 앉으십시오.)
4. 한국어의 상대높임법이 몽골어 상대높임법과 달리 문말어미가 많다. 문말어미에 의해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 나타난다. 한국어에서는 평서문뿐만 아니라,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의 어미에도 존대형이 있다. 그런데 몽골어에는 2인칭 종결어미에만 존대형이 있다. 한국어의 상대높임의 문말어미에 따라 '하옵니다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요체, 해라체, 해체'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에는 상대높임의 표현이 많은데 몽골어에는 적다.
5. 존대 명사에는 사람의 신체 부분과 관련되는 말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нүд - мэлмий - 눈, гар - мутар - 손, чих - сонор - 귀, хөл - бойв - 다리,
нүүр - гэгээн - 얼굴, үс - сэвлэг - даахь - 어린아이의 머리카락,
гэдэс - хэвлий - 배
그런데 현대 한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궁중어에만 쓰던 임금의 신체에 관련되는 명사가 있었다. 예를 들면,
лагшин - 옥체, мэлмий - 안정, гэгээн - 용안, ам - 구순 등이다.
6. 한국어에는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는 대명사가 많다. 예를 들면,
저, 저희, 당신, 여러분, 그분, 저분
한국어 대명사를 보면, 1인칭, 2인칭, 3인칭에서 각각 낮춤이나 존대대로사가 있다. 몽골어에는 낮춤 대명사가 별로 없는데 2인칭에만 상대를 높이는 대명사가 있다.
7. 몽골어 높임의 뜻을 가진 단어들이 예사말과 같이 쓰는 것이 흔하다. 예를 들면,
алдар нэр, нас сүүдэр, өргөө гэр, уйлах хайлах, архи сархад
그러나 한국어의 존대어를 같이 쓰는 일이 별로 없다.

4.2. 양 언어의 높임법 유사점

1. 한국어 주체높임법의 명사에 붙는 '님' 접사가 몽골어의 "тан, тэн, тон", "гтай, гтэй, гтой", "гай, гий, гэй" 등의 높임의 뜻을 가진 접사들과 같다. 예를 들면,

багштан - 선생님, хаантан - 임금님, хатантан - 왕비님,

гүнжтэн - 공주님

2. 양 언어의 호칭어는 명사에 '씨'를 붙여 높이는 것을 표현한다. 한국어에는 사람의 이름이나 성에 붙이는데 몽골어에는 이름이나 직함에 붙인다. 상대를 높이기 위해 '씨'를 쓰는 것이 양 언어에서 비슷한 점이다. 예를 들면,

김 씨 - Ким гуай, 도르쑈 씨 - Дорж гуай

3. 몽골어에는 명사 어간에 높임 접사 "гтай, гтэй, гтой"를 붙일 때 자음이 생략하는 일이 있다. 가령, "ноён, эзэн"의 어간에 붙으면 "н"이 생략되어 "эзэгтэй, ноёгтой"이 된다. 그런데 몽골어의 뜻은 한국어와 같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생략 현상은 한국어에도 있다. 즉, 명사 어간에 '님'을 붙을 때 자음이 생략한다. 예를 들면,

아들 - 아드님, 딸 - 따님, 아버지 - 아버님, 어머니, 어머님

V. 결론

의사소통에서 언어에서 상대를 높일 때 나타나는 것을 높임법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화자가 주체를 높이거나 상대를 높여 말할 때 쓰이는 것이 높임법이다. 한국어와 몽골어의 높임법을 비교 연구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는, 양 언어의 높임법을 연구한 각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높임법은 문법적 범위와 어휘적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문법적 범위로는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 그리고 객체높임법이 있다. 몽골어의 높임법 연구는 오래 되지 않았지만, 한국어 높임법 연구는 오래 전부터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본고에서 제시한 것처럼 양 언어의 어휘적 범위의 높임법은 체언류와 용언류가 있다. 몽골어는 어휘적 높임법이 많이 발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양 언어에서 가장 활발히 나타나는 문법적 범위의 높임법은 상대높임법이다. 한국어에는 상대높임법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문말어미가 있다. 몽골어에는 상대높임법의 표현이 2인칭종결어미이다.

둘째는, 어휘적 범위의 높임법에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비교 연구하기가 쉽다. 한국어와 몽골어의 존대어는 명사, 동사, 대명사에 나타난다. 존대 명사는 인간과 관련되는 명칭이다. 또한 몽골어에는 어린이 중심의 존대말이 있다. 양 언어의 존대 동사는 인간의 행위나 행동을 높이는 동사이다. 존대 대명사는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높임법의 어휘적 범위는 존대의 뜻을 가진 단어로 주체를 높이거나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셋째는, 높임법의 한 가지 특징은 완곡표현과 금기어, 호칭어 호격과 관련되는 점이다. 문법적인 이런 형태는 모두 서로 높이는 것과 세밀하게 관련된다. 특히 호칭어는 그 그렇다. 부모나 친척들을 호칭어로 부를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도 높임의 호칭어를 이용한다. 완곡 표현이나 금기어도 상대를 높이기 위해 생긴 것이다. 양 언어에는 죽은 사람을 존경하면서, 죽는 것을 '돌아가시다, 하늘나라에 가다'라고 한다. 이것도 인간에 대한 한 가지 높임이다.

넷째는, 높임법은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문제적으로 큰 역할을 한다. 특히 문어체에 많이 이용된다. 존대말이 문학에는 가장 아름다운 문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높임법은 인간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래서 양 언어에서 높임법을 잘 쓸 수 있으면 그 언어를 더 잘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는, 본고에서 양 언어의 높임법을 비교 연구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차이점과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높임법이 어휘적으로 존대 체언류와 존대 용언류가 있는 것은 양 언어의 큰 유사점이다. 그런데 문법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높임법에는 큰 차이점이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어에서는 동사 어간에 '(으)시'를 붙여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 된다. 또한 명사에 '님'이나 격조사 '께서, 께'를 붙여 주체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특징이 몽골어에는 없다. 또, 한국어의 상대높임법이 몽골어와 달리 문말어미가 많다. 몽골어 상대높임법이 2인칭 종결어미밖에 거의 없다.

앞으로 한국어와 몽골어의 높임 표현 체계를 더 깊이 있게 비교 연구하며 호칭체계, 또는 높임 표현 간의 호응관계와 공기관계를 더 세밀하게 조사하여 높임 표현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밝혀 나가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김태엽, 『우리말 높임법 연구』, 대구대학교출판부, 1999.
2. 남기성,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97.
3. 서정수, 『존대법의 연구-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한신문화사, 1984.
4. 이익섭, 채완,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서울, 2002.
5. 이정복, 『경어법과 사회언어학』, 월인, 2002.
6. 임동훈,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태학사, 2000.
7. 한길,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역락, 2002.
9. Бадамдорж.Д,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утгасудлалын үндэс』, УБ, 1997.
10. Батсүрэн.Ч, 『Монгол хэлний чухал үг хэллэг1,2』, Ном эх сургууль УБ, 2001.
11. Жагварал.Р, 『Хүндэтгэлийн үг』, УБ, 1976.
12. Намжил.Т, 『Монгол гэр бүлийн ёс уламжлал』, УБ, 2005.
13. Өнөрбаян. Ц,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зүй』, УБ, 1973.
14. Өлзийхутаг.Ц,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ийн сангийн судлал』, АБЯамны хэвлэл, 1973.
15. Төмөрцэрэн.Ж,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зүйн байгуулалт』, 1987.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хүндэтгэлийн дүрмийн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

Ц.Оюунгэрэл

[Хураангуй]

Ахмад настан, ээж аав, нийгмийн дунд өдөр байр суурьтай, хүндэтгэвэл зохих хүмүүст хандан үгээрээ хүндэтгэн эрхэмлэж байгаа санаагаа илэрхийлэх нь хэлний хүндэтгэлийн хэлбэр юм. Монгол хэлний хүндэтгэлийн хэлбэрийг судалсан судалгаа цөөн бөгөөд хүндэтгэлийн үг хэллэгийг ойролцоо утгатай үгсийн санд судлан оруулж ирсэн. “Хүндэтгэлийн үгийг хэл найруулгын эрэмбээр буюу хэлэхгүйн хувьд харилцан ойролцоо утгатай үг бий. Жишээнь: Зоог–хүндэтгэл, хоол–жирийн, лагшин–хүндэтгэл, бие–жирийн, цогцос–амьгүй хүндэтгэл гэх мэт”– Солонгос хэл зүйд хүндэтгэлийн хэлбэр нь бүхэл бүтэн төлөв болтлоо хөгжсөн байдаг.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өгүүлэгч ба сонсогчийн харилцаанд хүндэтгэлийн хэлбэр илэрхийлэгдэхгүй тохиолдол гэж байдаггүй.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хүндэтгэлийн хэлбэрийг Чой Хёнбэ, И Хисын, Ким Тэёб, Квөн Жэил, Жон Нёлму, Со Жонсу, Чой Гихо зэрэг олон эрдэмтэд судалж ирсэ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хүндэтгэлийн төлөвийн хэлзүйн онцлог нь жирийн үгэнд дагавар, нөхцөл залган хүндэтгэн эрхэмлэж харьцах утга бүхий үг үүсгэдэг.

Монгол хэлэнд нэр үг ба үйл үгэнд хүндэтгэлийн утга бүхий үгсийг үүсгэх дагавар, нөхцөлийг залган тухайн хүнээ хүндэтгэн харьцаж байгаа санааг гаргадаг. Жишээлбэл, нэр үгэнд “тан”, “гтай, гтой, гтэй”, “тань” дагавар залгаж, хүндэтгэлийннэг үгийг үүсгэдэг. Харин үйл үгэнд “-гтун”, “-гтий” нөхцөлийг залгаж, тухайн харилцагч этгээдээ хүндэтгэн хандаж буй утгыг илтгэж болдог байна. Мөн монгол хэлнээ үйл үгэнд “-жболгоох”, “-жхайрлах”, “-жсоёрхох” гэх мэтээр туслах үг залгаж хүндэтгэж байгаа санаагаа илэрхийлдэг.

Хоёр хэлний онцлог болох хүндэтгэлийн үг нь хэлний харилцаанд чухал байр суурьтай болох нь тодорхой байна. Хүмүүсийн хэлний харилцаанд зайлшгүй байх ёстой зүйл бол хүндэтгэлийн хэлбэр, хүндэтгэлийн үг даруй мөн юм. Иймээс хоёр хэлний хүндэтгэлийн хэлбэрийг гүнзгийрүүлэн харьцуулж судлах, улмаар хэлээр хүндлэх ёс, мэндлэх ёсыг цаашид дэлгэрүүлэн судлах зайлшгүй шаардлагатай. Ийнхүү судалснаар бичгийн ба ярианы хэлний тодорхой жишээний хавсралт гаргах, ярианы загвар хийх, хэлний зөв зохистой хэрэглүүрээр бодитой хэрэглэх үндэс суурийг тавина.

Голлох үг: Хүндэтгэлийн хэлбэр, эзэн бие хүндэтгэх, харьцагчаа хүндэтгэх, хүндэтгэлийн төлөөний үг, хүндэтгэлийн үг

제주방언의 오름 지명 고찰

-중세몽골어와의 개연성을 중심으로-

임도희¹⁾

목차	
I. 들어가는 말	
1. 1 오름	1. 2 오름의 어원
II. 오름의 이름	
2. 1 가시낭봉오름(gasi nan bun)	2. 2 당오름(dan)
2. 3 더데오름(dode)	2. 4 망오름(man)
2. 5 바라오름(bara)	2. 6 사라오름(sara)
2. 7 소모오름(sumu)	2. 8 아진오름(ajin)
2. 9 알오름(al)	2. 10 어승생오름(usun sain)
III.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오름’이라는 지명은 한국 내 제주도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어휘로써, 오름은 ‘山(산), 岳(악), 峰(봉)’등의 한자표기를 하며 368개가 있다. 제주의 오름은 역사적, 사회적인 가치면에서 뿐만 아니라 오름의 어원에서도 많은 설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 제주의 오름은 한국내의 산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으며, 제주전역에 걸쳐 있거나 산이나 동산과 구별되어 있다. 몽골어 ‘уул(ayula)’은 산을 뜻하지만 오름과 같은 형태나 특징이 없고, 일반적으로 모든 산을 명칭한다. 그러므로 제주의 ‘오름’은 몽골어와는 관련이 없으며, 한국어 (땅이 솟아) ‘오르다’와 관련된 이름이다. 또한 오름명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사라오름, 어승생오름’은 많은 언어학자들이 몽골어 ‘сар, ус сайн’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지명이다. 그리고 김기선(1993)의 논문에 새롭게 게재된 지명에 ‘당오름, 소모오름’은 중세몽골어와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당오름’의 한자표기는 ‘堂’으로 제주에서는 모두 집을 의미하는데, 예부터 봉수대로 사용하거나 자손생산을 기원하는 중요한 장소로 여겼다. ‘darhan’에서 차용하여 ‘장인, 귀한, 큰’의 의미를 내포하는 ‘당’으로 명칭 했으리라 짐작된다. ‘소모오름’의 ‘소모’는 중세몽골어 ‘суму’가 현대몽골어에서 ‘-у’가 탈락된 ‘сум’으로 표기하는데, 이것은 형태적으로나 음운적으로 정확히 중세몽골어와 일치한다. ‘가시낭봉오름, 더데오름, 망오름, 바라오름(바리오름), 아진오름, 알오름’등은 제주방언이나 한국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주제어 : 오름, 당, 사라, 소모, 어승생

1) 후레정보통신대학교 기술한국어통역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1. 1 오름

기생화산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올라온 뜨거운 마그마와 같은 열이 지층의 부드러운 부분을 뚫고 솟아올라와 만들어진 야트막한 산을 말한다. 이러한 산은 제주도에서 예부터 '오름'이라고 불려 지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997년 제주도에 실시한 종합조사를 통해 정확한 오름의 개수를 파악하였다. 오름의 종류는 크게 산(山), 악(岳), 봉(峰) 등으로 표기하는데 제주시에 210개, 서귀포시에 158개로 모두 368개가 된다. 한라산을 중심부에 두고 산세를 따라 고지대에서 저지대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불록불록 솟은 오름들은 대부분이 마을의 뒷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낮은 구릉지대가 많아 오래전부터 제주인들은 소와 말의 방목지로 쓰고 있다. 이러한 제주의 오름은 역사적, 사회적인 가치면에서 뿐만 아니라 오름의 어원에서도 많은 설문들이 나타나고 있다.

1. 2 오름의 어원

중세몽골어가 제주어와 관계되어 있는 어휘가 240개에 달한다고 제시한 석주명(1947)은 오름에 대한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대개 산은 '오름'이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흔히 '岳'으로 표한다. ...오름보다 작은 것은 동산이라고 하는데 육지에서는 고개에 해당 한다²⁾고 하였다. 즉 산보다 작고 동산보다 큰 것을 '오름'으로 정의하고 있다. 沈汝澤(1975)은 “山岳名에는 오름, 봉(峰), 악(岳), 미(岬) 등이 쓰이고 있다. 악(岳)과 오름은 同一한 概念을 純國語와 漢字語로 表現한 差異이고 미는 岬(山)의 音變이며, 봉(峰)과 악(岳:오름)은 그 形態의 약간의 變化에서 오는 差다. 그러므로 山岳名의 根幹要素는 山岳의 形態를 識別하여 區分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고 설명하였다. 오름에 대한 기록은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지명으로 오름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오창명(1996)에서

옛글에는 대부분 '오름'(현평효, 1985:515)으로 쓰고 있다. 옛 문헌인 『남사록』(권1)에 “사투리로...岳은 '오름'(吾老音)이라 한다. 『탐라지』에 岳을 '오름>오름'이라 한다.”고 하여 이른 시기부터 岳의 뜻으로 '오름·오름>오름'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원래 '岳'과 '峰'은 그 뜻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으나(훈몽-초, 상:2) 제주의 '오름'을 지칭할 때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기문(1991:179)에서 吾老音을 '오름'으로, 兀音을 '오름'으로 읽고 '오름'이 '오름'보다 古形인 듯한 점이 주목된다고 하였다. 양주동(1942:584)에서 향가인 <헌화가>에서 나오는 岳音[오름]의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 음은 말음 '口'의 음차로, '오름'은 '오름'의 명사형이라 했다⁴⁾

2) 『제주도방언집』 석주명, 서울신문사출판부, 1947. p173.

3) 『濟州道 地名의 構成:中文面의 地名을 中心으로』 (국내학술기사) 심여택, 제주대국어국문학회, 1975. p59.

4) 「濟州道 마을[洞里]과 山岳 이름의 종합적 연구」『탐라문화 제18호』 오창명,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

고 설명하였다. 오창명(2006)에서 ‘오름’ 또는 ‘오름’은 제주방언으로, 산이나 산봉우리를 이르는 말이다. 노년층들은 주로 ‘오름’이라 하고, 젊은층들은 주로 ‘오름’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오름’이 ‘오름’보다 옛말에 속한다. ...제주도 오름은 400여 개가 있다⁵⁾고 하였다. 신영대(2004)는 오름의 어원은 자그마한 산의 의미를 가지는 제주도 방언으로 ‘오르다’의 명사형으로서 ‘자그마한 기생화산’이란 의미로도 이야기하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⁶⁾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선인들이 굳이 산과 오름을 구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문덕찬(2005)은 오름은 제주 특유의 후부요소이며, ‘오르다’에 명사형전성어미 ‘-ㅁ’이 결합된 형태⁷⁾라 하였다. 강길운(2010)에서 의미상으로는 orui(정상, 봉우리)와 더 잘 대응되나 명사형접사 -m을 덧붙여야 하므로 orui(중세몽골어)보다는 orman(山林, 투르크어)으로 보는 경우⁸⁾가 있다(*orui>ori-m>orim‘오름’). 위의 주장을 정리하면

- ㉠ 산은 ‘오름’이라 하며 ‘岳’으로 표기(산>오름>동산): 석주명
- ㉡ 오름(중세한국어)>오름- 현평효: 오창명
- ㉢ 사투리로 岳은 ‘오름’(吾老音)- 『남사록』 : 오창명
- ㉣ 岳의 뜻으로 오름·오름>오름- 『탐라지』 : 오창명
- ㉤ 吾老音を ‘오름’으로, 兀音を ‘오름’으로 읽고 ‘오름’이 ‘오름’보다 古形인 듯한 점- 이기문: 오창명
- ㉥ ‘오름’은 ‘오르-’의 명사형- 양주동: 오창명
- ㉦ ‘오르다’의 명사형, 자그마한 기생화산의 의미: 신영대
- ㉧ 제주 특유의 후부요소이며, ‘오르다’에 명사형전성어미 ‘-ㅁ’이 결합된 형태: 문덕찬
- ㉨ 정상, 봉우리를 뜻하는 orui(중세몽골어)보다 orman(山林, 투르크어)으로 추정: 강길운

몽골어와 관련지는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을 뜻하는 몽골어 ‘yyn’과 관련짓고 있다. 최범훈(1980: 18, 1993: 186)은 “‘오름’이 중세한국어 ‘오르-’의 명사형 ‘오름’의 변이형이라 하고, 몽골어 oroi(山頭·頂上), urguho(登·昇), ula(山) 등과 계통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중세한국어 ‘오르-’와 ‘오로-’가 같은 시기에 나타나므로, 이의 명사형 ‘오름’과 ‘오름’도 같은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다”⁹⁾고 하였다. 박상규(1989)는 “제주도의 가장 뚜렷한 지명어의 특성으로, ‘산, 마을, 언덕, 岳’의 의미를 가지며, 異形態로는 ‘모르, 도름, 모루, 마루, 름’을 들 수 있으리라 ‘오름’이 ‘산’과 同意味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oola’(mountain)<蒙古語>이기 때문에 ‘오름’은 ‘oola’+‘-m’(接尾語添加) ortum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⁰⁾고

소, 1996. p6.

5) 「제5절 지명」『濟州道誌』 제7권 오창명, 제주도, 2006. p164.

6) 「제주 문화 속의 오름-자연풍수관을 중심으로」『탐라문화』 제24호 신영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4. p184.

7) 「제주 지명어의 형태·음운론적 연구」(박사논문) 문덕찬, 제주대학교, 2005. p65.

8) 『비교언어학적 어원 사전』 강길운, 한국문화사, 2010. p935.

9) 「濟州道 마을[洞里]과 山岳 이름의 종합적 연구」『탐라문화 제18호』 오창명,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6. p6.(이기문(1991:179)은 吾老音を ‘오름’, 兀音を ‘오름’으로 읽고, ‘오름’이 ‘오름’보다 고형으로 봄)

10) 「제주도 지명에 나타난 어학적 양태 고찰」『제주도연구』 제6집 박상규, 제주도, 1989. p176.

하였다. 김기선(1993; 197)은 투르크·만주어에서 13세기 어세산의 의미가 변하였지만, 산정상이라는 뜻이 분명하다고하여 yyn(ayula)과 관련짓고 있다. 그리고 최기호(1995)는 현대몽골어 산을 뜻하는 'yyn'에서 기원되었다고 언급¹¹⁾하였다. 김기선(1998)은 오름을 'orai', 'a yula'(오르, 오을)로 산을 표현하여 오름의 기원이 몽골어 차용어임을 주장¹²⁾하기도 하였고, 그는 2008년에 쓴 도서에서 오름에 관한 견해는 소미야바타르(1975; 47)¹³⁾에 근거하여 알타이제어 속에 그 의미와 음성적으로 가장 가까운 'or'와 'orman'의 어형을 재구해 보면 'por*>Bor>hor>or, orman*>orgil>oroi'로 산을 뜻하는 or 에 명사형성접미사 'oi, gil, man'이 붙어 '산의 정상, 언덕, 봉우리'가 파생되었음을 밝혀 주는 중요한 지명요소라 할 수 있다¹⁴⁾고 하였다. 위의 주장을 정리하면

- ㉔ 카자크, 타타르어 orman, 초와쉬어 urman 중에서 or, ur 두 형태소는 '산, 봉우리'의 뜻을 갖는 접두어로 설명(람스테드), 몽골어의 대응어로 agula, oroi, orkil 등-소미야바타르: 김기선(2008)
- ㉕ 중세한국어 '오르-'의 명사형 '오름'의 변이형이며, 몽골어 'oroi(山頭·頂上), urguho(登·昇), ula(山)와 계통적 관련('오르-(중세한국어)와 '오로-(몽골어)'가 같은 시기에 나타났으므로 명사형 '오름'과 '오름'도 같은 시기): 최범훈
- ㉖ 'oola'(mountain)<蒙古語>이기 때문에 '오름'은 'oola'+ '-m'(접미어첨가) ortum이 됨: 박상규
- ㉗ 몽골어에서 산을 뜻하는 'yyn(현대몽골어)'에서 기원: 최기호
- ㉘ 산을 의미하는 'orai(중세몽골어), a yula(오르, 오을)(현대몽골어)'로 몽골어와 관련: 김기선(1998)
- ㉙ 산을 뜻하는 'or'에 명사형성접미사 'oi, gil, man'이 붙어 '산의 정상, 언덕, 봉우리'가 파생: 김기선(2008)

오름(오름)은 한 번의 분화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을 뜻하는 사전적의미¹⁵⁾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원에 있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그러면 '오르다'와 '오름'의 어원에 대해 강길운(2010; 935)은 '오르다'의 경우 *ö:r->orï-(오르-)>orλ-(오르-, 모음조화)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오르다'의 어원은 *ö:r-(오르다)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오름의 어원은 *orman>orma>orïmī>orïm(오름)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 11) 『알타이어족설의 문제점』『한글학회지 227』 최기호, 1995. p94.
- 12) 『중세몽골어와 제주방언의 차용·기원 관계』『탐라와 몽골 교류의 역사와 문화』 김기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p76.
- 13) 『한·몽 문화교류사』 김기선, 민속원, 2008. p102.(몽골어의 대응어로 agula, oroi, orkil 등이 대응되는 요소들이다. 산봉우리의 뜻을 나타내는 위 단어들과 알타이적 요소들을 비교해보면, 만주-통구스어군의 설령어에 oröl horön, 네기달어 horön, 오르종어 xoron, 우대이어 xor, 나나이어 poro, 만주어에 alin, foro의 어형이 나타난다. 터키어군에서는 카자크, 타타르어에 orman, 초와쉬어 urman의 어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중 or, ur 두 형태소는 '산, 봉우리'의 뜻을 갖는 접두어로 설명한 람스테드의 해석을 들어 스미야바타르는 비정하였다).
- 14) 『한·몽 문화교류사』 김기선, 민속원, 2008. p102.
- 15) 『개정증보 제주어 사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 2009. p675.

‘오름(小山)’의 어원은 *orman(삼림‘山林’)으로 추정된다¹⁶⁾고 하였다.

제주의 오름은 지금까지 국어의 ‘오르-’ 어간에 명사형성접미사 ‘口’이 붙어 명사가 된 어휘로 보고 있으나, 1990년 이후 제주방언에 대한 만주어와 몽골어의 차용가능성이 제기된 어휘의 하나다. 일반적으로는 제주도민이나 한국인들은 ‘오르다’의 명사형으로 ‘오름’이라는 지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름’은 한국 내 여러 지명 중에서 특히 제주도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어휘이며, 가축을 키우는 목마장으로서 제주인과 옛 부터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관계로 보았을 때,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로 추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름은 오름의 형태(풍수지리학)나 역사적,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항쟁과 생활의 터전이었고, 지금 현재에도 여러 나라에서 많은 학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주를 찾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고해야할 것은 ‘산이나 동산’ 이외에 ‘오름’이라는 용어가 굳이 필요했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높은 산을 ‘오르다’의 명사형이나 몽골어 ‘yyn(ayula)’과의 개연성만을 가지고 나눌 것이 아니라, 화산분출로 인한 땅의 지면이 솟아 오른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어에 ‘해오름, 용오름, 오름세, 오름차’ 등의 어휘가 있다. ‘해오름’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나타낸 어휘이며, ‘용오름¹⁷⁾’은 육지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맹렬한 바람의 소용돌이를 말한다. ‘오름세, 오름차’는 물가나 가치가 오르는 형세를 나타낸 어휘다. 분명 제주의 오름은 한국내의 산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으며, 제주전역에 걸쳐 있거나 산이나 동산과 구별되어 있다. 서정범(2000)¹⁸⁾은 몽골어 ‘yyn(ayula)’과 동원어(同源語)로 보았는데, 오르다의 어근 ‘올’이 명사로서 산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오름에 어원¹⁹⁾은 자그마한 산을 말하는 제주도 방언으로서 한라산체의 산록상에서 만들어진 개개의 분화구를 갖고 있는 소화산체를 의미하며, 이것은 (분)화구를 갖고 있고, 내용물이 화산쇄설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산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몽골어 ‘yyn(ayula)’은 산을 뜻하지만 오름과 같은 형태나 특징이 없고, 일반적으로 모든 산을 명칭한다. 그러므로 제주의 ‘오름’은 몽골어와는 관련이 없으며, 한국어 (땅이 솟아) ‘오르다’와 관련된 이름이다. 산·악·봉과 이름을 구분한 것은 한국의 일반적인 산과는 다른 분화구와 화산쇄설물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불리워진 명칭이라 볼 수 있다.

II. 오름의 이름

오름은 오름의 형태(풍수지리학)나 역사적,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항쟁과 생활의 터전이었고, 지금 현재에도 세계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며 많은 발걸음들이 제주를

16) 『비교언어학적 어원 사전』 강길운, 한국문화사, 2010. p935.

17) 『우리말 어원사전』 백문식, 도서출판 박이정, 2014. p394(‘龍+오르(다)+口’으로 분석된다. 어원적 의미는 ‘용이 하늘로 오르는 것(회전하면서 이루는 거대한 물기둥)’이다.

18) 『국어어원사전』(한국어원학회연구총서1) 서정범, 도서출판 보고사, 2000. p447(만주어 arin(山), ara(낮은 山), 몽골어 alua(山), 나나이어 urkan(山), 오로촌어 ura(山), 어근 ar, ul, 등과 국어 ‘올’과 동원어라 하겠다).

19) 『제주의 오름』 제주도, 제주도 인쇄공업협동조합, 1997. p19.

찾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세몽골어와 관련된 이름명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2. 1 가시낭봉오름(gasi nan bun)

석주명(1947)은 몽골식지명으로 '가시낭봉오지'를 표기하였다. 김기선(1993: 215)은 '가시낭봉'과 몽골어 'гашуун бун уул'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gasi nan'은 몽골어 '쓰다'의 한국식발음으로 보았다. 몽골 지명에 '쓴 호수, 쓴 사막'이 있는데, 이것은 '쓰다, 짜다'를 뜻한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본말은 'гашуун бун уул', '쓴봉산'이라는 데서 시작되었다²⁰⁾고 했다. 오창명(1996)에서는 동일리 '세미'마을과 '흥물'마을 사이에 있는 '가시오름'은 옛날에 '날외오름', '가시오름', '밤남오름'이라고도 했으나, 최근에는 '가시오름'으로 많이 알려졌다. ...加是岳[가시오름]>加時岳은 '가시오름'의 표기이다. 加是와 加時는 '가시'의 음가자 표기이고, 岳은 훈독자 표기이다. '가시나무가 많은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졌다. 이때의 가시나무는 '물참나무'를 말한다²¹⁾고 하였다.

제주어사전에서는 '가시낭봉'이라는 이름이 없고, '가시오름'이 서귀포시 세 곳에 있는데, 그 중 대정읍에 있는 '가시오름'은 가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위의 오창명의 '가시오름'의 설명처럼 여기서도 '가시낭봉'은 '가시가 난 봉우리, 가시나무가 많은 오름'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 민요²²⁾에서 '낭'은 제주방언으로 '나무'를 뜻하기 때문에 '가시낭'은 '가시나무'이며 '峰'은 '봉우리'를 의미한다. 草木名과 관련하여 심여택(1975)²³⁾도 '나무'를 제주방언으로 '낭'으로 표기하고 있다. 제주어의 많은 지명에는 지역의 특징을 따라 붙여진 이름이 많은데, 예를 들면 가시낭-밭('가시낭' 곧 가시나무가 많다는 데서 연유), 갯쟁이-밭(갯장이의 소유였던 밭), 큰-드레(큰 들판, 넓은 들), 족은-드레(작은 들판, 좁은 들) 등 생활언어에서 발음 나는 대로 지명의 이름들을 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시낭봉'은 몽골어 'гашуун(yasiyun)'과 관련이 없는 것이며, 제주방언으로 '가시가 난 봉우리, 가시나무가 많은 오름' 즉 '가시나무 오름'을 뜻하는 것이다.

2. 2 당오름(dan)

김기선(1993: 204)은 'dan'이 '크다'라는 의미를 가진 현대몽골어 'том'으로 중세몽골어(тому)에서는 '다'라는 의미라 하였다. 그러므로 몽골어 'daruhan'은 '큰 사람, 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Нанай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М-1980)는 'да.

20)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ы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гуулин улсын түүхийн холбогдол」 김기선, 몽골국립대 박사논문, 1993. p217.

21) 「濟州道 마을[洞里]과 山岳 이름의 종합적 연구」『탐라문화 제18호』 오창명,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p88.

22) 『돌할오방 어디 감수광』 김광협, 태광문화사, 1984. p41.(감낭=감나무 p103)

23) 「濟州道 地名의 構成:中文面의 地名을 中心으로」(국내학술기사) 심여택, 제주대국어국문학회, 1975. p60-61.

to' 형태는 '크다'라는 의미라 하였다. 제주도에서도 당오름은 '큰산, 大山'의 의미를 가진 지역이름이다²⁴⁾라며 몽골어 'TOM(TOMY)'과 관련짓고 있다. 문덕찬(2005)에서도 한자 표기로는 모두 집을 의미하는 '堂'으로 표기하는데, '당'은 '신을 모셔놓고 위하는 장소'의 뜻을 지닌 말로 대부분 마을마다 당이 있었다²⁵⁾고 한다. 오창명(1996)에서는 堂岳[당오름]>당오름은 송당리에 있는 '당오름'으로 『탐라순력도』 등에 堂岳, 『증보 탐라지』에 '堂岳, 당오름'으로 표기하였다. 堂은 '당'의 음독자 표기로, 神堂의 뜻이다.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堂岳은 '당오름'의 표기이다. 옛날부터 '당'이 있었던 데서 붙여진 것이다. 지금도 오름 서쪽에 松堂 本郷堂이 있다²⁶⁾고 하였다.

'堂'은 마을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호해 주는 神이 항상 거처하는 장소나 그 神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말한다. 현재 제주도에 '당오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송당리에 있는 '당오름' 외에 제주어사전(2009; 231)에서는 네 곳으로 제주시 한경면, 제주시 구좌읍, 제주시 조천읍, 서귀포시 안덕면 등에 있다. 현대몽골어에서 'darhan'은 '장인, 대장장이, 천연보호'등²⁷⁾의 의미가 있고, 중세몽골어도 'darhan'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da'는 '크다' 또는 '귀하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며, 몽골어 차용에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한경면의 '당오름'은 바닷가까지 걸쳐져 있으며 조선시대에 봉수대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조천읍의 '당오름'은 특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 많이 찾은 곳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 3 더데오름(dode)

서귀포시 더데오름동네(加加岳洞)에 있는 작은 오름이다. 김기선(1993; 206)은 현대 몽골어 'доод'라는 말과 더데오름을 연관 짓고 있다. 몽골어에 '아래호수, 더-우데'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더데오름'은 '작은 산, 아래 산'의 뜻이라고 하였다²⁸⁾. '더데오름'을 오창명(1996)은 加加岳[더데오름], 加岱岳[더데오름]으로 상예동 '가가악동'에 있는 '더데오름>더데오름'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加加岳, 『원대정군지』 등에 加加岳, 加岱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현지인들은 '더데오름·더디오름·더더오름'이라고 한다. 加는 '더(加 더할가<유합-송광사본>)'의 훈가자 표기 또는 '데'의 불완전한 훈가자 표기, 岱는 '대/데'의 음가자 표기이다. 岳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加加岳은 '더데오름·더데오름'의 표기, 加岱岳은 '더데오름·더디오름'의 표기이다. '더더' 또는

24)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ы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гуулин улсын түүхийн холбогдол」 ким ки сонъ, 몽골국립대 박사논문, 1993. p204.

25) 「제주 지명어의 형태·음운론적 연구」(박사논문) 문덕찬, 제주대학교, 2005. p27.

26) 「濟州道 마을[洞里]과 山岳 이름의 종합적 연구」(탐라문화 제18호) 오창명,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p33-34.

27) 『몽한사전』 UBU 한국학연구소 사전편찬위원회, UBU대학교, 2010. p257.

28)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ы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гуулин улсын түүхийн холбогдол」 ким ки сонъ, 몽골국립대 박사논문, 1993. p206.

‘더데’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오름 주변에 여러 언덕들이 겹겹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하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²⁹⁾고 하였다. 그러나 해진 옷이나 천 위에 형겅을 덧대어 다시 사용할 때를 이르는 ‘덧대다’는 포개거나 겹치는 것을 의미한다. 몽골어 ‘доод(dooradu)’와는 형태적으로나 음운적으로 차이가 있고, 더데오름 주변에 언덕이 겹겹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덧-대다³⁰⁾’와 음운상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제주어사전(2009; 239)에서도 더데오름 주변에 언덕이 겹겹이 이어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름 주변에 작은 언덕이 겹겹이 있는 형상으로 보아 몽골어 ‘доод(dooradu)’와는 관련이 없고, 한국어 ‘덧-대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4 망오름(man)

제주어사전에 기록된 ‘망오름’은 한라산 국립공원 웃세오름의 ‘눈오름’을 달리 부르는 이름과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어 외적의 침략에 대한 망을 보고 통신망 구실을 하던 스물 다섯³¹⁾ 군대의 오름을 모두 본명 외에 ‘망오름’이라고 명칭하였고, 한자이름에 망(望)자 또는 봉(峰)자를 달아 표시하였다고 한다. 방목하는 마소의 망을 보거나, 외적의 침략에 대한 대비의 차원으로 ‘망오름’이라 했다면 ‘망을 보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김기선(1993; 213)은 몽골옛글에 ‘mana’, ‘mandakh’는 ‘높아지다’라는 뜻이며, 투르크어 ‘mandara, mander, mandra’와³²⁾, 카렐어 ‘mandere’, 토와어 ‘manag’는 ‘지키다, 지킴, 크다’의 뜻이 있다³³⁾고 하며 제주도의 ‘망오름’은 ‘멀리 보다, 높은 산, 지키는 산’이란 뜻을 가진 말이라 하여 몽골어와의 연관성을 두었다. 몽골어 **манаа(manay-a)**는 ‘경비, 감시’를 의미하지만 중세몽골어와는 음운적으로 맞지 않다. 한자표기에도 ‘望’은 ‘바라다, 멀리 보다, 지켜보다’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망보다’는 ‘멀리서 지켜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몽골어와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중국한자와의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2. 5 바라오름(bara)

김기선(1993; 215)은 몽골 옛문헌에 ‘bara’나 ‘sur bara’(큰 물건, 장엄한 물건)의 뜻은 ‘크다, 상태가 많다’라는 의미이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피너어 ‘para(s)’, 모로브어 ‘parā’, 마리어 ‘poro’, 오드모르트어 ‘bur’, 커미어 ‘bur’, 중세몽골어 ‘bar-a’, 퉁구스어 ‘bara(n)’, 만주어 ‘baran’, 오로크어 ‘bara’는³⁴⁾ 위엄이 있고

29) 『濟州道 마을(洞里)과 山岳 이름의 종합적 연구』『탐라문화 제18호』 오창명,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p30.

30) 『옛센스 국어사전』제5판 민중서림 편집국, 민중서림, 2003. p596.(덴 위에 다시 겹치 대다.)

31) 25개의 이름은 사라오름, 도들오름, 물매, 고내오름, 도노미, 느지리오름, 당오름, 모슬개오름, 절울이, 드레오름, 개오름, 삼매봉, 예촌망, 조배오름, 토산봉, 달산, 남산, 독자봉, 성산, 큰물매, 땅곳, 왕가봉, 샷갓오름, 서모, 원당오름.

32) 재인용. Э.М.Мурзаев. Словарь народных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терминов М-1984.

33) 재인용. О.Т.Молчанова. Топоним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горного алтая, горно-Алтайск-1979.

장엄한 큰 물건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오름'은 중세몽골어와 관계있다고 보았다³⁵⁾. 한국어에 동사형으로 '바라보다'가 있지만 지명이름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석주명(1947)의 제주도방언집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의 제주도 사전(2009: 417)에는 '바리메, 바리오름'이 있다. 박용후(1988: 212)에는 애월읍에 '바라메(發伊岳), 바라오름, 바리오름'이라는 지명³⁶⁾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지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중세와 현대몽골어에 'bara'라는 어휘는 계속해서 그 뜻을 유지하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오름'의 '바라'는 몽골어의 음운과 형태가 일치하므로 중세몽골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바라오름'은 크기가 크거나 높아서 멀리까지 시야에 들어왔다면 '멀리 바라보다'의 의미로 현대몽골어 'алсын бараа'가 있으며, 'бараа'도 물건이 크거나 양이 많음의 뜻을 내포하므로 몽골어 차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바리메' 나 '바리오름'의 명칭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발산(鉢山)으로 '바리'는 첫째 묶음이나 단을 나타내는 수량 단위, 둘째 마소의 수효를 세는 단위, 셋째 낫쇠로 만든 여자의 밥그릇이다. '바리메'는 바리, 즉 낫쇠그릇을 얹어 놓은 형태이므로 여기서의 '바리'는 몽골어 'бараа'와는 관련이 없다. 바라오름과 바리오름이 같은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오름을 두가지로 명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한 명칭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방언의 특징 중 하나는 중세국어의 단모음 형태인 '·'이다. 박용후(1992: 246)는 훈민정음의 홀소리에서 첫째소리이며 홀소리의 근본이 되는 소리라고 풀이하였다. ...표준말에서는 'ㅡ, ㅏ, ㅣ' 밖에 'ㅑ, ㅓ, ㅕ, ㅗ, ㅛ, ㅜ' 등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³⁷⁾고 하였다. 그렇다면 위의 두 명칭 중 '바리메' 또는 '바리오름'이 더 분명해 보이며, 몽골어와 관련이 없고 제주방언의 지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6 사라오름(sara)

사라오름은 제주시 건입동 동쪽 바닷가에 있는 산으로 서쪽으로 제주항을 내려다보고 동쪽은 알오름에서 베리오름으로 산줄기가 이어져 있다. 제주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김기선(2008: 102)은 정상에서 보면 섬을 드나드는 모든 배들의 동태를 관측할 수 있어서 몽골군이 중요한 요새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군의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밤의 동태를 살피기에 지리적 위치가 하늘, 땅, 바다에서의 움직임까지 밝은 달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관망하는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 몽골 지명적 요소를 가미하여 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름으로 보았다³⁸⁾. 그러나

34) 재인용. Сравнительный словарь тунгусо-маньчжурских языков боть-2 11-1977.

35) 『Солонгосын чэжу арлы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гуулин улсын түүхийн холбогдол』 ким ки сонъ, 몽골국립대 박사논문, 1993. p215.

36) 『濟州方言研究(資料篇)』 박용후, 高大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88. p212.

37) 『제주도사연구(제2집)』 『제주도 고대사와 언어』 박용후, 제주도사연구회, 1992. p246.

38) 『한·몽 문화교류사』 김기선, 민속원, 2008. p102.

오창명(1996)은 한자표기 沙羅와 紗羅를 풀이하면, '사라'의 음가자 표기로 해질녘의 햇빛에 비친 산등성이가 마치 황색 비단을 덮은 듯하다는 데서 붙인 것이라고 하나, 이것은 '얇고 깐깐한 여름 옷감으로 비단'의 뜻을 가진 한자 紗羅에 견인된 민간어원설이 있다고 하며, 이은상의 '제주기행문'에서 '동쪽, 동쪽땅'이라는 설, 神域의 뜻으로 쓰이는 '술'에서 기원한다는 설과 몽골어 '달'의 뜻이라는 설 등이 있다고 하면서 몽골어의 '달'을 뜻하는 말이 'sara/saran'(사라/사란)인데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³⁹⁾고 하였다. sara(중세몽골어)는 sar(현대몽골어)로 접미사 '-a'의 탈락이외에 별 다른 변화 없이 사용되고 있는 어휘이다. 제주의 여러 민간어원설이 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여러 어원설을 들어 오창명(1996: 13)은 '사라'는 '신성한 곳·신성한 지역'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남제주군 남원읍에도 한자표기와 한글표기가 동일한 '사라오름'이 있고, 제주 여러 지역이름에 '사라'라는 명칭이 많이 있다. 수미야바타르(1975)⁴⁰⁾는 몽골어 saran(cap)과 한국어 tal(달)은 어원이 같다. ...주로 'c' 'т', 'л' 'p'은 교체가 가능한 음운들이며 ...한국어 '달'과 의미가 같고, 어간은 투르크만주어와는 언어의 의미가 멀고, 몽골어와 가깝다고 하였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의 인류는 예부터 해와 달을 숭배해 왔다. 특히 달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인간에게는 커다란 정신적 위로의 존재로 여겨 숭배하며 섬겨왔기 때문에 몽골어 차용에 좀 더 무게가 있다고 본다. 중세몽골어 cap(ан)(saran, sar-a)는 cap(현대몽골어)로 접미사 '-a'의 탈락이외에 별 다른 변화 없이 사용되고 있는 어휘이다. 한국어 'ㄷ'과 몽골어 'S'의 연관성을 송익문(2001: 67)은 예⁴¹⁾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달'과 '사라, 사르'의 관계를 통해 '사라'의 어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라'는 한자음과 뜻으로 오름명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중세몽골어 'sara'의 차용으로 볼 수 있다.

2. 7 소모오름(sumu)

'소모'에 대해 김기선(2008: 103)은 예로부터 몽골민족에 있어서의 화살은 상징적인 의미로 경계를 표시하였는데, 세운 화살을 기준으로 그곳을 경계삼아 지역을 나누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1273년 여·몽 연합군이 전함을 이끌고 가장 먼저 제주도로 들어간 곳이 함덕포구이다. 그 당시 가장 큰 항구로 함덕포구 바로 옆에 위치한 산인 소모오름을 기준으로 한라산까지 획을 그어 좌·우로 나누었고 좌편의 애월읍으로 진군해 들어갔다고 기록하였다.

개정증보된 제주어사전(2009)이나 다른 오름명 표기에는 '소모오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제주의 옛 지명에 대한 자료(오창명: 1998)에 '서모' 또는 '서모오름'은

39) 「濟州道 마을[洞里]과 山岳 이름의 종합적 연구」『탐라문화 제18호』오창명,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6. p13.

40)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туургатны угсаа гарал, хэлний холбооны асуудал』Б.Сумъяабаатар, БН МАУ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УБ, 1975. p184.

41)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өвөг хэлний тогтолцоот харилцааны судалгаа」Sc.D.요약본(몽골과학아카데미 어문학회 박사학위논문), Song Eui-min, 2001. p67. (달(дал)(cap)→cap(sar)(달), 도끼(доги)(сүх)→сүх(süge)(도끼), 틈(тым)(зау завсар)→сүв(sübe)(틈, 땅굴, 구멍).

함덕리 동쪽 바닷가에 있는 표고 111미터의 오름이다. 이 지명을 『세종실록』과 『탐라지』 등에 '西山/서모', 『신증동국여지승람』에 '西山岳/서모오름', 『탐라순력도』에 '西山望/서모망',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西山峰/서모봉', 『제주지도』와 『제주군읍지』 등에 '犀牛峯/서우오름', 『증보탐라지』에 '犀牛岳/서모오름'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서모, 서모봉, 서우봉, 망오름'이라고 한다⁴²⁾고 하였다. 위치를 보았을 때 위의 '소모오름'과 같은 지명임을 알 수 있다. 故 하칸츨로 교수가 언급한 제주방언 속의 몽골어를 소개한 박원길(2008: 68) 또한 몽골어 sumu(сум)의 차용으로 보았다.

위의 오창명의 한자표기는 '西, 犀'로 이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서'와 '무소나 무소뿔'을 가리키는 '서'이다. 그러므로 서쪽에 있는 오름이나 무소의 뿔처럼 생긴 오름이라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면 몽골어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본다. 지명의 유래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 없고 한자표기 음운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표기에 대한 설명은 '소모'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김기선과 故 하칸츨로 교수가 언급한(박원길: 2008)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sumu(중세몽골어)는 현대몽골어에서는 '-y'가 탈락하여 'сум(sumu)'으로 사용되는데, 형태적으로나 음운적으로 정확히 중세몽골어와 일치하므로 몽골어 차용이라 볼 수 있다.

2. 8 아진오름(ajin)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동북쪽에 있는 오름으로 '안진오름, 안친오름, 坐置岳'이라고도 한다. 김기선(1993: 204)은 몽골의 지명 중 'Аж богд'라는 산이 있으며, 알타이어 '-ajo', 토와어 '-ajig', 카작어 'ajo', 키르키즈어 '-assoo'(1979, 60~61)⁴³⁾의 뜻은 '산을 건너다, 산을 넘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중세몽골어 'aji'와 제주지명 'ajin'과는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⁴⁴⁾. 여기서 'ajin'은 'аж'의 어간에 조사 '-ин'을 붙인 것으로 'аж'는 중세나 현대몽골어에서 모두 같은 의미로 '삶, 생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넘다, 건너다'의 의미보다는 제주민의 삶과 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몽골어 'аж(aju)'의 의미가 아닌가 짐작되어진다. 하지만 'Аж богд'⁴⁵⁾는 티벳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로 첫째 아내(아주머니), 귀한, 존귀한. 둘째 알타이 산맥의 큰 줄기. 셋째 250km 이어진 산의 뜻이 있다. 제주방언에서 '아진'은 '앉은(坐)'의 뜻이다. '안진, 안친'은 '앉아 있는'과 뜻이 같으며, '坐置'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민요시집⁴⁶⁾에도 '곶양 아진'은 '숨어서 앉아 있는'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진오름의

42)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제주연구총서 3) 오창명,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p120.

43) 재인용 О.Т.Молчанова. Топоним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горного-алтая Борно-Алтайск 1979.

44)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ы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гуулин улсын түүхийн холбогдол』 ким ки сонъ, 몽골국립대 박사논문, 1993. p204.

45)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арь үгийн толь』 (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хэл зохиолын хурээлэн-Монгол хэл соёл 15) Осорнамжимын Сүхбаатар, "МОНСУДАР"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2014, p31.

46) 『돌알오방 어디 감수람』 김광협, 태림문화사, 1984. p63.

‘아진’은 ‘얕은, 얇아 있는’의 제주방언이므로 몽골어와는 관련이 없다.

2. 9 알오름(al)

‘알오름’이라는 지명은 제주도내에 7개가 있다⁴⁷⁾. 대부분 지대가 높지 않고 큰 오름들 사이에 끼어 있거나 크기가 작은 오름들이다. 튀르크어와 관련 지은 람스테트(1985: 239)⁴⁸⁾는 튀르크어 후치사 altynda ‘그의 아래에’, ‘그의 아래로’, altymda ‘나의 아래에’, altyn’a ‘어떤 것의 아래로’ 중의 al (cf. 한국어 arā(al)의 처소격입, SKE, 6면) ‘아래에’, ‘아래로’, čib-al ‘집의 기초’)라 하였다. 김기선(1993: 204, 205)은 튀르크어의 ‘al’은 ‘높다’라는 뜻⁴⁹⁾이지만, 중세 몽골어에 ‘al’은 빨간색을 뜻하는 낱말이었고 ‘al uraan’이라는 어휘도 있다. 제주의 ‘알오름’은 옛말의 ‘aṣa’, ‘al’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높은 산, 붉은 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⁵⁰⁾.

그러나 제주어사전에서는 ‘알’처럼 자그마하다는 뜻(1996: 67), 알(卵)과 같이 둥글다는 뜻(1996: 333), 새알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1996: 335)⁵¹⁾으로 모두 ‘작거나 둥글다’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중세몽골어와 관련하여 ‘al’이 ‘붉은(улаа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제주도내에 있는 7개의 ‘알오름’이 붉은 색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숲으로 우거진 푸른 산이 아닌 이상 얕은 오름이 붉은 흙색과 어우러져 붉게 보인다면 몽골어와 관련지어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작거나 둥글다’의 의미가 있는 ‘알(卵)’과의 관계가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제주방언에서 ‘알’은 ‘아래, 낮은(위치)’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알칭(아래층), 알툽(아래턱), 알동네(아래쪽에 있는 동네) 등이 있다. 현평효·강영봉(2014)⁵²⁾에서도 ‘아래’는 ‘아래, 알’로 ‘아랫길’은 ‘알길’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알오름’의 ‘알’은 ‘붉다’를 의미하는 몽골어와는 관련이 없고 작은 오름, 아래쪽에 있는 오름, 저지대에 있는 오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10 어승생오름(usun sain, 어승생악(御乘生岳))

제주시에 위치한 어승생(어스싱이)⁵³⁾오름은 『조선지지자료』⁵⁴⁾에 ‘御乘生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석주명(1947: 170)은 御乘生岳 ‘어스승오름’이라 하고 ‘御乘山, 御乘馬山, 御乘馬生岳, 을오름’ 등의 別稱이 있고, 漢拏山 西北에 位置되어 漢拏山에서 떨어져 第一 크게 보이는 山이다⁵⁵⁾고 하여 몽골식지명이라 표기하고

47) 『개정증보 제주어 사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 2009. p592.

48) 『알타이어형태론개설』 G.J 람스테트, 민음사, 1985. p239.

49) 개인용 В.В.Радлов Огыл Словарь торговых паечанов 1988.г.

50)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ы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тай үгс ба юань улс, гуулин улсын түүхийн холбогдол』 ким ки сонъ, 몽골국립대 박사논문, 1993. p204-205.

51) 『濟州市 옛地名』 제주문화원, 제주시, 1996. p67; 333; 335.

52)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 현평효·강영봉 편지, 도서출판 각, 2014. p232.

53) 어스름-오름, 어스승-오름, 어승생-악, 어승생-이, 이시싱-오름, 열시싱-오름(제주어사전 (2009: 617))

54) 『조선지지자료』 조선총독부, 대화상회인쇄소, 1919. p146.

있다. 제주문화원(1996)에서 발간한 내용으로 『탐라지』(1652)에는 御乘生岳으로, 『탐라순력도』(1702)에는 御乘生으로, 『제주지도』에는 御乘峯으로 표기하고 있다. 御乘生은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임금이 타는 말이 낫다'(박용후, 1992: 42)라고 하는데 정조 21년(1797) 오름 밑에서 용마가 태어나 이를 조정에 바치고 어승마로서 '노정'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하여 음독자로 '어승생'이라 표기 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기생화산 중 가장 큰 산으로 정상에 둘레 약 150미터의 화구호가 있으나, 늘 물이 괴지는 않는다. 북쪽 기슭에 한밭저수지가 있는데, '어승생저수지'로 불리기도 한다⁵⁶⁾.

김기선(2008)은 어승생(吾生水)은 arigun usun로 '물이 좋은 곳'. 제주의 어승생과 음성적으로 가까운 몽골과 한국의 강의 옛 이름에 많이 나온다. 몽골 지명의 'ariun us'는 '신성한 물' 또는 '깨끗한 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강의 옛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렸음을 알 수 있는데 대략 아리수, 무수막개, 드물개, 서강, 한강의 다섯 가지고, 아리수는 이촌동부터 성수대교까지의 강줄기를 일컬었던 고지명이다. 제주도의 위 지명을 한강의 옛 이름과 연관시켜 재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rigun usun* > ari'un usun > ariun usun > ariun us > ari su(한강)

모음조화를 공유하고 있는 알타이어족의 공통적 특징으로 볼 때, 제주의 어승생은 비교적 몽골어적 지명 요소에 가까운 음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⁷⁾고 하였다. 탐라지에서 표기하는 한자표기가 아닌 吾生水로 표기하여 '물이 좋은 곳'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몽골어 차용으로 보았다. '어승생'을 최기호(1995)는 us sain(현대몽골어 yc сайн)과 형태와 음운적으로 일치하므로 중세몽골어 차용어로 설명⁵⁸⁾하였다. 박원길(2008)은 故 하칸츨로(Hakanchulu) 교수의 제주방언 속의 몽골어에서, 물이 좋다는 뜻의 몽골어 usun sain의 음변이다⁵⁹⁾라고 하였다. 몽골어 usun sain은 현대몽골어로 yc сайн(usu sayin)이며, 형태적으로나 음운적으로 일치하므로 중세몽골어 차용어로 여겨진다. 『탐라지』나 『탐라순력도』에서의 한자표기가 그 이후의 제주와 관련된 지명기록에 직접적으로 관련지어져 있기는 하지만, '깨끗한 물'이나 '물이 좋은 곳'의 의미에 더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어승생'은 중세몽골어의 'usun sain'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 하겠다.

III. 맺음말

지금까지 오름과 관계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제주오름에 대한 학계의 많은 관심과 연구는 계속되어지리라 생각된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이동 경로를 통해 언어와 문화는 전달되고 변화되어 왔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55) 『제주도방언집』 석주명, 서울신문사출판부, 1947. p170.

56) 『濟州市 옛 地名』 제주문화원, 제주시, 1996. p392~393.

57) 『한·몽 문화교류사』 김기선, 민속원, 2008. p103-104.

58) 「알타이어족설의 문제점」 『한글학회지 227』 최기호, 1995. p94. Hakanchulu H.(1993) 참조.

59) 『배반의 땅. 서약의 호수-21세기 한국에 몽골은 무엇인가』 박원길, 민속원, 2008. p68.

제주와 원과의 오랜 기간의 동거는 오름의 어원이 그 시대 중세몽골어 'yul'과 개연성이 있다고 하지만, 제주의 오름은 한국내의 산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으며, 제주전역에 걸쳐 있거나 산이나 동산과 구별되어 있다. 몽골어 'yul(ayula)'은 산을 뜻하지만 오름과 같은 형태나 특징이 없고, 일반적으로 모든 산을 명칭한다. 그러므로 제주의 '오름'은 몽골어와는 관련이 없으며, 한국어 (땅이 솟아) '오르다'와 관련된 이름이다. 몽골어 'yul(ayula)'과 관련지어보면 (산을) '오르다'와 의미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본론에서 오름의 이름들을 살펴본 결과 '사라오름, 어승생오름' 등은 많은 언어학자들이 몽골어와 관련하여 언급했던 지명으로 차용관계가 좀 더 명확해졌다. 여기서 김기선(1993)의 논문에 새롭게 게재된 지명에 '당오름, 소모오름'은 중세몽골어 'дархан, суму'와의 연관성이 매우 깊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바라오름(바리오름)'은 '바리메, 바리오름'으로 표기하는데, 제주방언의 특징과 관련하여 '·'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제주만의 지명으로 볼 수 있다. '알오름'은 '불다'는 의미를 찾기가 어렵고 제주방언에서 '알'은 '아래, 낮은(위치)'의 뜻을 내포하기도 하므로, '알오름'의 '알'은 몽골어와는 관련이 없고 작은오름, 아래쪽에 있는 오름, 저지대에 있는 오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진오름, 가시낭봉오름'은 제주방언 '아진=얕은, 낭=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지명으로 몽골어와는 관계가 없다. '더데오름, 망오름'은 음운적으로 '덧대다, 뿔(멀리 지켜보다, 망보다)'과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여러 지명에는 현지 사용언어의 발음에 가장 가깝게 발음되어지는 대로 이름들을 정하여 불렀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제주방언과 몽골어와의 개연성 연구는 새로운 과제로 점차 발견되며 발전될 것이라 여겨진다. 그동안의 몽골어 차용어와 관계하여 시도한 여러 연구로 인하여 몽골과 한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연결 지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재조명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진다면 더 새롭고, 흥미로운 많은 자료들이 풍성해지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한국어>

1. 조선총독부, 1919, 『조선지리지자료』, 대화상회인쇄소.
2. 석주명, 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3. , 1984, 『제주민요시집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태광문화사.
4. G.J 램스테트, 1985, 『알타이어형태론개설』, 민음사.
5. 박용후, 1988, 『濟州方言研究(資料篇)』, 高大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6. 박상규, 1989, 「제주도 지명에 나타난 어학적 양태 고찰」 『제주도연구 제6집』, 제주도.
7. 박용후, 1992, 「제주도 고대사와 언어」, 『제주도사연구(제2집)』, 제주도사연구회.
8. 최기호, 1995, 「알타이어족설의 문제점」 『한글학회지 227』, 한글학회.

9. 오창명, 1996, 『濟州道 마을[洞里]과 山岳 이름의 종합적 연구』 『탐라문화 제1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0. 제주문화원, 1996, 『濟州市 옛 地名』, 제주시.
11. 한영우, 1997,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12. 제주도, 1997, 『제주의 오름』, 제주도 인쇄공업협동조합.
13. 김기선, 1998, 『중세몽골어와 제주방언의 차용·기원 관계』 『탐라와 몽골 교류의 역사와 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4. 오창명, 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15. 서정범, 2000, 『국어어원사전』 (한국어원학회연구총서1), 도서출판 보고서.
16. 민중서림 편집국, 2003, 『옛센스 국어사전』 제5판, 민중서림.
1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제주 문화 속의 오름』 『탐라문화 제2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8. 문덕찬, 2005, 『제주 지명어의 형태·음운론적 연구』, 제주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 오창명, 2006, 『제5절 지명』 『濟州道誌』 (제7권), 제주도.
20. 김기선, 2008, 『한·몽 문화교류사』, 민속원.
21. 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개정증보 제주어 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2. 강길운, 2010, 『비교언어학적 어원 사전』, 한국문화사.
23.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사전편찬위원회, 2010, 『몽한사전』, 울란바타르대학교.
24.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 2010, 『한몽사전』, 몽골국립대학교.
25. 오영주, 2013, 『한국·몽골 관계 심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방향 모색』 제33차 국제학술대회, 한국몽골학회.
26. 백문식, 2014, 『우리말 어원사전』, 도서출판 박이정.
27. 현평효·강영봉 편저, 2014,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 도서출판 각.

<몽골어>

1. Б.Сумъяабаатар, 1975,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туургатны угсаа гарал, хэлний холбооны асуудалд』, БНМАУ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2. Ким ки сонъ, 1993, 『Солонгосын чэжү арлынхны хэлэнд орсон монгол гаралтай үгс баяань улс, гуулин улсын түүхийн холбогдол』, 몽골국립대학교박사학위논문.
3. Song Eui-min, 2001,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өвөг хэлний тогтолцоот харилцааны судалгаа』, Sc.d.학위논문요약본.
4. Я.Цэвэл, 2013,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лбар толь』, Мөнхийн үсэг ххк.
5. Осорнамжимын Сүхбаатар, 2014,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арь үгийн толь』 (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н-Монгол хэл соёл 15), “МОНСУДАР”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6. Ж.Бат-Ирээдүй, Д.Баасанбат, -, 『Монгол бичгийн товч толь』

“Жэжү нутгийн аялгууны “урым” газар усны нэрийн ажиглалт”

-Дундад зууны монгол хэлтэй холбогдох магадлалыг голлох-

Им дохьй

[Хураангуй]

“Урым” гэдэг газар усны нэр нь Солонгосын Жэжү аралд л зөвхөн хэрэглэгдэж буй үг юм. Ихэнх тосгон нь уулын бэлээр суурьшсан байдаг, намхан гүвээ толгой ихтэй байдаг, эрт дээр үеэс Жэжү арлын хүмүүс адуу, үхэр зэргийг маллаж ирсэнтэй холбоотойгоос үзэхэд түүхийн бодит үнэнийг таамаглахын аргагүй билээ. Жэжү арлын “урым” гэдэг үг нь түүх болон нийгмийн үнэ цэнээс гадна үгийн гарал үүслийн хувьд олон асуултын дунд байдаг.

“Урым”-ын хэлбэр болон онцлогийг харвал Монгол хэлтэй холбоогүй ба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газраас дээш “өгсөх” хэмээх үгтэй холбоотой нэр юм. Тэгэхдээ Монгол хэлний “уул(ayula)”-тай холбож үзвэл уул руу “авирах” гэсэн утгаар холбогдож байна. Эндээс “урым”-тай холбоотой зүйлийг голчлон авч үзэхэд “сараурым, сумуурым, усынсэнурым” зэргийг олон хэл судлаачид монгол хэлтэй холбон үзсэн нь дурдагдсан байдаг. Ким Ги Сон(1993)-ы дипломын ажлын шинэчилсэн хэвлэлд дурдагдсан “данурым, бараурым” нь дундад зууны монгол хэлтэй нягт уялдаа холбоотой гэж үзэж байна.

“Данурым” нь Жэжү аралд “бүх гэр” гэсэн эрт дээр үеэс бамбар асаах үр удмаа үлдээх ариун газар гэсэн утгатай үг юм. “Дархан” гэдгээс зээлмэл үг үүсгэн “дархан, эрхэм, том” гэсэн утгыг агуулдаг “дан”-гаар нэрлэсэн хэмээн таамаг тавьж байна. Гэвч бараурым(бариурым) нь Монгол хэлний “бар-а”- гаас илүү Жэжү нутгийн аялгууны онцлогтой холбоотой. Энэ хэлбэрийг задлан үзвэл Жэжүд орших газрын нэр гэж үзэж болно. Жэжү аялгуунд “бари” гэдэг нь гуулин сав хэмээх утгатай. “Алурым” нь Жэжү аралд 7 янз байдаг бөгөөд том урымнуудын дунд хавчуулагдсан хэмжээгээрээ жижиг, “улаан” гэх утгыг бараг илэрхийлээгүй, шувууны өндөг шиг жижигхэн бөөрөнхий гэсэн утгыг илэрхийлсэн гэж үзэж байна. Мөн “ажинурым, гашинанурым, додэурым, манурым” зэрэг нь “ажин, гашинан, додэн, ман”-ы дуудлагыг тэр чигээр нь хэрэглэж дуудсан гэж үзэж байна. Яагаад гэвэл Жэжү арлын олон газар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дуудлагатай нилээд төстэй дуудагддаг нэрсийг зүйчлэн дуудаж бичиж иржээ.

Цаашдаа монгол хэлний зээлмэл үгтэй холбоотой судалгааг улам өргөжүүлэн илүү шинэлэг сонирхолтой судалгаа бүтээлүүд нэмэгдэнэ гэдэгт найдаж байна.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안 제안¹

게.바야르마²

목차

I. 서론

1.1. 한국어 문법 교육 현황 및 방법

1.2. 한국어 문법 교육의 내용

II. '-에', '-에서'의 문법 교육 실제

2.1. 학습자들의 부사격조사 '-에', '-에서'의 사용에 관한 고찰

2.2. 본교 학생들이 쓰는 교재에 제시된 '-에', '-에서'에 대한 관찰

2.3. 오류 현상 및 분석

III. 결론

참고 문헌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몽골에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을 간략하게 울란바타르대학교 사례로 그 현황 및 방법과 내용 등을 소개하고 초급 학습자들에게 혼선이 높은 '-에', '-에서'를 예로 들어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교재를 통한 학습 과정으로 살펴 보았다. 초급 학습자들에게 혼선의 우려가 높은 문법을 초급 단계에서 해결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의 내용을 검토하고, 격조사 배열을 살펴봄, 오류를 범하는 예시를 보임으로써 그 원인을 밝혀 보고, 혼선을 피하는 '-에', '-에서'의 배열을 제안하였다. 아주 미진한 수준밖에 살펴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과제로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표준화된 한국어 문법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 유형에 맞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법 교수, 학습 방안이 필요하다.

¹ 본고는 2013년도 제 23 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에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²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과 전임강사

셋째, 평가 항목 부분에 본 교재 문법 항목에 제시되지 못한 접속사를 보완하고, 1 권에 제시된 높임법의 기본 표현을 2 권에서 제시하면 좋다. 이외의 차이를 보이는 문법 항목에 대해 빈도, 분포, 난이도, 필요도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자들의 부사격조사 '-에', '-에서'의 오류 현상에서 관찰된 것과 같이 유사한 문법 형태들이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것을 단계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즉 '-이/가, -을/를, -에(장소), -에(시간), -에서(처소)'의 배열로 문법 항목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본 교재의 문제와 다른 예시문, 문법 항목 제시 형태 등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일곱째, '-에 있습니다'처럼 '조사 + 동사' 제시형태 즉 '-에서 일하다/ 먹다/ 공부하다' 등과 같이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뒤에 오는 동사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문법 교육에 효과적이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한국어 문법 교육, 학습자, 교재, 문법 항목, 부사격조사, 오류 분석

I. 서론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91 년 몽골국립대학교에 한국학과가 개설된 이래로 1992 년 몽골국립외국어대학교, 1993 년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 학과가 처음 개설되어 지금까지 양적 팽창은 물론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등 여러 면에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한국어 교육은 크게 전공자, 비전공자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를 대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 동안 한국어 교육 현황 및 과제, 한국어 교육의 하위 분야인 문학, 문화, 문법, 한국어와 몽골어 비교 문법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어 왔다.³ 기존에 발표되었던 것처럼 한국어와 몽골어가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같은 계통의 언어라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본고는 울란바타르대학교의 사례로,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한국어 문법 교육에 대해서 소개하고 교실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법

³ 이안나,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과제」 4차 한국어교육자 워크샵,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5. 상비락,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 제 22 회 한말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 2005. 송명희·토티바야르「몽골 대학의 한국문학교육 연구」, 한어문교육, 제 23 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0. 베.히식자르갈「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문화교육 연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앵트줄,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부사격조사 교수 학습 방안 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등등.

교육의 한계를 밝히고, 그 사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격조사 중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부사격조사 '에'·'에서'의 사용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1.1. 한국어 문법 교육 현황 및 방법⁴

울란바타르대학교에서 '한국어 문법' 교육은 학습자들이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함께 실시되어 왔다. 그 동안 한국어 문법은 초기에 '한국어 독해', '한국어 회화', 중반기에 '한국어 쓰기', '한국어 말하기' 과목으로 통합적인 교육을 했다. 이렇게 과목명칭이 바뀌어가는 데에는 커리큘럼과 교재 변경이 큰 이유였다. 2010년부터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따라 처음으로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가 한국과 몽골 교수들의 공동 작업으로 집필되어 교재가 바뀜으로 한국어 '읽기·쓰기', '말하기·듣기' 과목으로 바뀌었다. 현재 울란바타르대학교에서는 한국어학과, 한국학과, 몽골어·한국어 교과 학과에서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문법 수업은 주로 언어의 4 가지 영역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부가적으로 초급 단계에서는 '한국어 발음법', 중급단계까지 '사이버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문법 항목이 문형 연습처럼 독립적으로 학습되기보다는 언어의 4 가지 영역인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의 교수와 통합되어 학습되고 있는 것이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 한국어 초급, 2학년 중급, 3학년 고급 수준의 한국어 문법을 배운다.

다음 <표 1>은 한국어학과의 커리큘럼 중 한국어 문법을 습득하는 과목을 반영한 것이다.

학년	구분	1 학기	학점	시간	2 학기	학점	시간
1	전공 필수	한국어 읽기·쓰기 1	3	6	한국어 읽기·쓰기 2	3	6
		한국어 말하기·듣기 1	3	6	한국어 말하기·듣기 2	3	6
		한국어 발음	1	2		-	-
		사이버수업 1	2	4	사이버수업 2	2	4
2	전공 필수	한국어 읽기·쓰기 3	3	6	한국어 읽기·쓰기 4	3	6
		한국어 말하기·듣기 3	3	6	한국어 말하기·듣기 4	3	6

⁴ 여기서 문법이라는 개념은 외국어로서의 문법 구체적으로 초급의 문법을 다룰 것이다. 문법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도 때 필요시 직접 한국어 수업을 집전한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사이버수업 3	2	4	사이버수업 3	2	4
3	전공 필수	한국어 말하기·듣기 5	2	4	한국어 말하기·듣기 6	2	4
총			19	38		18	36

<표 1>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학과 학부생들은 초, 중, 고급의 한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초, 중급의 사이버 수업, 초급의 한국어 발음 교육을 통해 문법을 배운다. 총 37 학점의 74 시간의 과목을 이수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통번역 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본 수업을 통해 훌륭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어 과목은『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를 1~6 권까지 하나의 종합적인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비교적 문법을 연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어 발음 수업 시간에 별도의 '한국어 발음'(배. 볼로르마 외, 2012) 교재를 사용하며, 사이버수업(1~4)은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한국어 시청각자료(2005)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문법 교육의 연계성면에서 내용의 통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초급의 전체 강의 시간은 읽기·쓰기가 3 학점으로 한 학기 강의는 96 시간, 말하기·듣기는 3 학점으로 96 시간이며 (총 192 시간) 몽골인 교사가 읽기·쓰기를 교육하고, 한국인 교사가 말하기·듣기를 교육한다. 한 과목의 문법을 주당 6 회의 강의를 통해 습득한다. 읽기·쓰기는 주당 6 시간으로 나누어서 교수요목을 어휘, 문법, 읽기, 쓰기별로 편성하여 교육한다. 한국인 교사가 말하기·듣기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모든 시간에는 문법을 통합한 학습을 하고 있다. '한국어 발음'수업은 주당 2 시간으로 한 학기에 총 32 시간을 통해 유창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확한 발음 교육을 목표로 몽골인 교사가 교육한다.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사이버수업은 1 단계에서 4 단계까지 한국 문화, 읽기, 쓰기, 영역의 내용으로 짜여 있다. 몽골인 교사가 지도하며 한 단계에 20 개의 과가 있고, 주당 4 시간, 한 학기에 64 시간이나 2005 년도 자료이므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모국어 문법 지식에 비추어 목표어를 배우는 몽골학습자들에게 연역적 방법⁵으로 한국어 문법을 교육하고 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성인 학습자이며, 그들의 학력이 최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연역적 방법이 성인의 궁금증을 즉시 풀어줄 수 있다. 몽골인 학습자에게 이 방법이 안전하고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이 사용되어 왔다. 연역적 방법의 하나인 번역식 교수법으로 즉 몽골어 문법과 비교하여, 몽골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연령, 교육 배경, 숙달도, 성향 또한 학습 방식에 영향을 준다. 몽골과 한국 두 나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습자들의 교육 배경과 연령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학습자들을 크게 4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몽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어 습득 경험이 없는 학습자
- (2) 몽골의 중고등학교에서 제 2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해 배운 학습자나 정규과정에서 한국어를 습득한 학습자
- (3)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습자
- (4) 한국에서 이주노동으로 일하다 귀국한 학습자

위와 같은 4 가지 유형에서 초급학습자로서 적극적인 유형은 (1), (4) 번이다. 나머지 (2), (3)번은 초급 대상이 아닌데도 '한국어 읽기·쓰기' 강의를 수강하도록 신청한다. 부모를 따라 한국에서 살며, 고등학교까지 한국 학교에서 수학한 학생들이 다시 몽골에 돌아와 한국어 학과에 입학하고 또 다시 한국 유학 준비를 한다. 물론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합격자도 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학점 인정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어 말하기·듣기는 초급, 중급 시험을 치뤄 그 점수를 인정하는 제도이다.⁶ 하지만 한국어 읽기·쓰기는 초급부터 수강 신청한다. 그 이유는 한국어 통번역 전공과 교내 학점 제도와 관련이 있다. 문법을 번역식 교수법으로 겸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⁵ 규칙을 먼저 제시하면서 언어 자료를 설명한 후 이를 예에 적용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명시적으로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학습자의 노력을 절약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과거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 선호해온 방법이다. 하지만 문법을 주입식으로 먼저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법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습자에게는 학습의 흥미가 감소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박지영 외(2009:114)

⁶ 울란바타르대학교, 『학생규칙』, 2013, 69 쪽.

모국어와(몽골어) 목표어를(한국어) 상호 번역하면서 습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서 일하다 온 입학생의 경우 기존 학사학위가 있을 시 야간반⁷에서 수강하고, 학사 학위가 없을 시 주간반에서 수강한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몇 년 간 일하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문법 지식이 없어서 초급 학습자 대상이 된다. 이런 학습자들의 경우 특히나 문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화석화되기 때문에 문법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여 열정적으로 배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의사소통 목표를 위해 문법을 몽골어와 비교해서 가르치고,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영역을 통해 학습한다. 이럴 때 모국어와 항상 비교하며 모국어의 간섭과 전이를 유의시켜 준다. 교재의 문법 항목은 '한국어 읽기·쓰기'수업에서 학습하므로 본 수업을 중심으로 강의의 예를 소개하겠다.

문법 항목의 예시를 읽고 몽골어로 번역한 것과 비교한다. 그리고 문법 항목마다 학생들이 직접 예문을 만들어서 읽거나, 쓰게 하며, 과제물로 문장을 만들게 함으로 학습하게 한다. 수업 활동으로는 주교재 읽기와 쓰기 연습을 풀어 보고, 해당 과목의 워크북에 있는 과제를 자습한다. 학습 평가를 할 때 주로 과제물 20%, 출석 10%, 중간시험 20%, 보고서 20%, 기말시험 30% 등으로 평가한다. 과제, 보고서, 중간·기말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과제물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이 연습 문제를 풀게 하고, 일기를 쓰게 한다.
- (2) 보고서의 내용은 배운 문법 항목들을 몽골어와 비교해서 5 개~10 개의 문장을 만들기 등이다.
- (3) 중간·기말시험은 학기 중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1.2. 한국어 문법 교육의 내용

⁷ 야간 2년제 한국어 통번역 전공으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다녀 온 학생들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해 표준화된 문법의 분류 체계나 문법 범주 목록, 혹은 등급별 내용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⁸ 현 교재에서는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준을 정리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본고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기준⁹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문법 교육의 내용을 대신한 것을 인용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를 2010년까지 사용하다가『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교재(2009)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가르치는 교사들로부터 문법 출제 항목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이전 교재는 1급만 해도 98개의 문법 항목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현 교재와 2 배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전 교재가 기준이 아니므로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항목과 비교해 내용을 평가하겠다.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항목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평가 항목	
1 급	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서로 된 기본적인 문장 구조	1 권	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서로 된 기본적인 문장 구조
	나. 서술문, 의문문, 청유문 ¹⁰ , 명령문 등 문장의 종류		나. 서술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등 종류
	다. 누가, 언제, 어디, 무엇, 왜 등으로 구성된 의문문		다. 누가, 언제, 어디, 무엇, 왜 등으로 구성된 의문문
	라. '그리고', '그러나' 등과 같은 자주 쓰이는 접속사		라. X
	마. '이/가', '은/는', '을/를', '에' 등 기본적인 조사		마. '이/가, 은/는, 을/를, 와/과, 에' 등 기본적인 조사
	바. '-고', '-어서', '-지만' 등 기본적인 연결어미;		바. '-고, -어서, -지만' 등 기본적인 연결어미
	사. 기본적인 시제 표현		사. 기본적인 시제 표현
	아. '안'과 '지 않다'로 이어지는 부정문		아. '안'과 '못'-'지 않다'로 이어지는 부정문
	자. '으', 'ㅂ', 'ㄹ' 불규칙/탈락		자. '으', 'ㄹ', 'ㅂ' 'ㄷ' 불규칙/탈락
	X		차. '고 싶다', '겠' 희망, 의지 표현

⁸ 객지영 외(2007:110)

⁹ 문법 평가 내용은 객지영 외(2007:110)에서 재인용. 출제항목의 (가)는 6~9 회까지에 출제된 항목 중에 2 회 이상의 빈도로 총 34 종류이며, (나)는 총 64 종류이며, 한국어능력시험 제 27~29 회까지에 출제된 항목 중에 2 회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것이다.

¹⁰ 청유문의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만 출제 항목에서는 청유문 종류의 문법 형태가 없다.

X	카. '깨서', '(으)시' 높임
X	타. '부터~까지'
X	마. '기, -는 것' 명사형
X	하. (으)르래요, (으)르거예요, (으)려고 하다, (으)러 가다, (으)르까요, (으)르 수 있다/없다 종결형
X	가. '한자어 숫자, 고유어 숫자'
2 급	2 권
가. '보다', '이나', '밖에' 등 비교적 자주 쓰이는 조사	가. '의, 만, 보다, 마다, (이)나, 에게서, 한테서' 등 비교적 자주 쓰이는 조사
나. '-을까요?', '-을 거예요' 등 자주 쓰이는 종결형	나. '-지요, (으)르게요, -네요 등 자주 쓰이는 종결형
다. '-고 있다', '-어 있다' '-어 주다', '-어 보다' 등 기본적인 보조 용언	다. '아/어 주다, 아/어도 되다, 아/어야 하다, -지 못하다, 아/어 보다, 고 있다, (으)르 것 같다, 지 않다' 등 기본적인 보조 용언
라. '-으면', '-는데', '-으면서' 등 자주 쓰이는 연결어미	라. '-(으)르 때, (으)니까, (으)면, 아/어서, (으)려고, (으)면, 아/어서 (으)려고, (으)면서' 등 자주 쓰이는 연결어미
마. '르, 스, 히, ㅁ' 불규칙 동사	마. '스, 르, 히' 불규칙
바. 관형형	바. 관형형
사. 용언의 부사형, <u>높임법의 기본적인 형태</u>	사. '기 전에, (으)른 후에 기 위해서, 기 때문에' 등 접속형
X	아. 서수사

초 (가)-게, -고, -고 싶다, -고 있다, 관형사형 종합, -기로 하다, 높임법(통사, 어휘), 마다,
급 불규칙/탈락(ㄷ, ㅂ, ㄹ-), -어서[계기], -어서[이유], 아니다[부정], 안[부정], -었어요, 얼마나(걸리다), 얼마나
출 -는지(알다), 예[장소], 이나[많음], -으니까, -은 적이 있다, -을 거예요[예정], -을 것 같다, -을 때, -을 수
개 있다, -을까요, -으러, -으려고, -으면, -으면 안 되다, -으면서, -으세요[명령], -지 않다, -지만
행 (나) -(으)십시오, -(으)세요, -(으)십시오, -(으)른 것 같다, -(으)르까요, -(이)네요, -(으)려고, -(으)려면, -
목 (으)면 좋겠다, 'ㄷ, ㅂ' 불규칙, -거나, -게, -게 되다, -겠습니다, -겠어요, -고, -고 싶다, -기 때문에, -기로
하다, -까지, 높임어휘, -(으)니까, -시(높임), -도, -르[관형사형], -로, -마다, -만, -밖에, -보다, -씩, -아/어
보다, -아/어 있다, -아/어 주다, -아/어도 되다, -(으)러 가다, -아서/어서[이유], -아/어야, -아/어요, -안/못, -
있/었습니다, -았/있어야 하다, -았/있어요, -에[장소], -에[도착점], -에게/께, -에게서/한테서, -에서[처소], -
에서, 와/과, -은/는, -은/는 것 같다, -은/는 적이 있다, -은데/는데, -을/를, -(으)니까/습니까, -와, -이/가, -

	이나, -입니다, -지만, -지요, 쯤, -한테, 권, 그것, 그분, 이것, 이곳, 거기, 저것, 저기, 저쪽, 여기, -누구, 명, 무슨, 무엇, 번, 잔, 어느, 어디, 어떤, 어떻게, 얼마
초 급	제 1 권 : 입니다, 입니까, 은/는, 여기·거기·저기·이것·그것·저것, 이/가, 에 있습니다, 이/가 아닙니다, 버/습니다, -버/습니까, 을/를, 에서[장소, 처소], 한자어 수사, 와/과, 에[시간], 고유어 수사, 수관형사(1), 아/어요, 에 가다, 안, -있/었-, 하고, -(으)십시오, '一'탈락, 은/는[대조], -고 싶다, -겠-[희망], -지 않다, (으)세요, (으)로[방향], -(으)려면, 도, 수관형사(2), 께서, -(으)시-, ㄹ 탈락, -고, 부터~까지, -(으)려
출 제	거예요, ㄴ 불규칙, 에게·한테·께, -지만, -(으)려고 하다, -아/어서, -(으)ㄹ 까요, 못, -(으)ㄹ 수 있다/없다, 기/-는 것, ㄷ 불규칙, 에서~까지, (으)로, -(으)러 가다
항 목 11	제 2 권: 의, -(으)ㄹ 때, -아/어 주다, 만, -(으)니까, -지 말다, -아/어도 되다, 보다, -(으)ㄴ[관형사형], 마다, 아/어야 하다, -지 못하다, -(으)면, -(으)ㄴ[관형사형], -아/어서, -지요?, 서수사, -(으)려고, -기 전에, (으)ㄹ게요, -겠-, -네요, -아/어 보다, (이)나[선택], -(으)면 좋겠다, -기 위해서, -아/어지다, -기 때문에, 불규칙, -거나, -고 있다, -(으)ㄴ 적이 있다, -(으)면서, 요, -(으)면 안 되다, (이)나[특수조사], -(으)ㄹ 것 같다, ㅅ 불규칙, -(으)ㄴ 지, -(으)ㄴ 후에, -기로 하다, 에게서, 한테서, -(으)ㄴ/는데, ㄹ 불규칙

<표 2>

평가항목을 비교해 보면 1 권에서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의 경우 ‘차~가’의 밑줄 친 부분이 한국어능력시험 1 급 평가 항목에 없는 부분이고 2 급에서 제시된다. ‘가~자’ 부분은 대부분 같고 부정의 ‘못’만이 본 교재에서 제시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따라서 출제 항목의 종류별로 차이도 생긴다.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항목에 있는 ‘라’번의 접속부사는 본 교재 1 권에는 없는데, 2 권 출제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었다. 2 권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제시되지 않은 ‘사~아’번의 접속형태와 서수사 외에는 차이가 없다. 2 급에서 제시된 ‘사’번의 높임법의 기본적인 형태가 본 교재 1 권에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교재에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그리고’, ‘그러나’ 등의 자주 쓰이는 접속사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교재 1 권에서 높임법의 기본적인 형태를 제시하였는데 한국어능력시험과 같이 2 급에서 제시해도 좋을 듯하다. 그 이유는 몽골어의 높임법은 한국어와 달리 높임 표현이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항목이어서 학습의 용이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¹¹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기준과 대조하기 위해서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2 권의 출제 항목을 보았다. 총 96 종류이다. 출제 항목의 배열 순서는 교재의 배열 순서 대로 적었다. 문법 항목들의 표시 방식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표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다음으로 초급 출제 항목을 보면 회차순으로 초급 기준 출제 항목의 종류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6 회에서 9 회까지에 출제된 항목 종류가 34 여개이며, 제 27 회, 제 29 회의 경우 64 여개의 종류인데 비해『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에는 96 여개의 종류가 된다. 이렇게 보면 한국어능력시험과 비교했을 때 본 교재의 문법 출제 항목이 상당수의 차이를 보인다. 이전에 사용했었던 서울대학교 교재의 문법 항목이 1 권만 해도 98 여개의 종류가 되는데, 이에 비하면 현재 교재는 적은 종류이지만 평가 항목 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 앞으로 문법 내용의 남은 과제로는 문법 항목의 선정에 고려되어야 할 항목은 빈도, 분포, 학습의 용이성, 학습자의 필요도 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II. '-에', '-에서'의 문법 교육 실제

2.1. 학습자들의 부사격조사 '-에', '-에서'의 사용에 관한 고찰

여기에서는 초급에서 오류가 많은 부사격조사 '-에', '-에서'의 사용에 관하여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밝혀 보려 한다. 한국어의 부사격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으로 하여금 부사어 기능을 하게 하는 조사이다. 그 중 소재지, 존재 위치를 표시하는 '-에', 처소를 표시하는 '-에서'는 몽골어의 대여격조사 '-d, -t'에 해당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 몽골인 학습자들은 위와 같은 두 가지 형태가 하나의 격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많이 혼동한다. 특히 한국어의 '-에', '-에서'가 용법상의 미세한 차이를 보이므로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 왔다.¹² 기존의 발표에서는 대조언어학을 통한 교수, 학습 방안 연구인데 본고는 문법 항목 배열과 문법 제시형태 등 교재 내용 분석면에서 오류 현상을 설명한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한국어 작문의 오류를 분석·관찰해 본 결과, '-에', '-에서'의 오류 사용 빈도수가 높아 보였다. 오류 원인이 모국어 전이도 있겠지만, 초급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교재의 오타나, 미비점, 교재에서의 조사 배열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었다.

¹² 양호준(2006), 강남욱(2010)

2.2. 본교 학생들이 쓰는 교재에 제시된 '-에', '-에서'에 대한 관찰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초급 1 권~2 권의 문법 출제 항목 중에서 격조사 배열을 김제열(2001)과 비교해 본다.

격조사 배열 (김제열, 2001)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2011)
-이/가	이/가
-을/를	에 (장소)
-에(장소)	이/가 (보격)
-에서(출발점)	을/를
-에(도착점)	에서(처소)
-에서(처소)	와/과
-에(시간)	에(시간)
-에(단위)	에(방향)
-으로(수단)	하고
-으로(방향)	께서
-에게/한테	에게,한테, 께
-의	(으)로
	에게서
	한테서

<표 3>

격조사의 배열에서는 우선 고려할 것이 한국어 문장 구조를 단계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연스러운 배열 순서는 주격, 목적격, 부사격, 속격의 순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조사마다 잘 호응하는 동사들이 다르므로 동사 제시의 우선 순위를 따를 수 밖에 없는데

동사 선정은 주제의 선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모든 격조사에 대해 쓰지 않고 '-에', '-에서'에 대해서 쓰지만 주변 몇 격조사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으므로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겠다.

위에서 보듯이 먼저 주격 조사 '이/가'가 제시된다. 다음 순서로 김제열(2001)은 목적격 조사 '을/를'을 제시하였는데,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2011)은 '을/를'이 '에'(장소), '이/가'(보격)의 다음에 제시되는 것은 교재의 집필 의도에 따라 타동사보다는 '있다'를 더 기초적인 동사로 보아 장소의 '-에'가 먼저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문장의 기본 구조 설명에서 단계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에'는 '앞', '옆', '뒤'등과 같은 위치 명사를 동반하게 되므로 초기부터 지나치게 복잡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고 '-에'는 동사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학습자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많다. 그래서 '-이/가', '을/를'을 중심으로 구조가 이해된 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장소의 '-에'에 이어 출발점의 '-에서'를 제시하고, 다음에 도착점의 '-에'와 처소의 '-에서'를 제시한다면 '-에 갑니다', '-에서 무엇을 합니다'와 같은 보고 형식의 문장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에' 및 '-에서'가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 한국어의 문법 형태들이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¹³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2011)에서는 주격조사 '이/가'다음에 '에'(장소)를 제시하였는데 교재 제 1 권의 제 2 과 '-에 있습니다'의 구문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는 동사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있다'를 넣어서 통제하고 있다. 처소 위치라는 것을 몽골어로 설명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교재 쓰기 연습에 'N에 N이가 있습니다' 형식의 연습 문제가 제시된다.

'-에' 제시 후 바로 다음 과에 '-에서'가 제시된다. 즉 교재 제 1 권 제 3 과에 '-에서'가 제시된다. 제 2 과에서 '-에 있습니다'와 같이 '-에서 + 동사' 구문으로 제시하면 학습자들에게

¹³ 김제열(2001:115-116)

2. Дараах үгсийг тохируулан холбож өгүүлбэр зохионо уу.

- <그림 1>

14

A	B
(1) 집	• ㉞ 일하다
(2) 학교	• ㉞ 한국어를 배우다
(3) 공원	• ㉞ 옷을 사다
(4) 식당	• ㉞ 쉬다
(5) 카페	• ㉞ 운동하다
(6) 도서관	• ㉞ 비빔밥을 먹다
(7) 백화점	• ㉞ 신책하다
(8) 레스토랑	• ㉞ 차를 마시다

<그림 2>

¹⁴ 도서관에서 책이 많습니다. (x) 도서관에 책이 많습니다. (O) 본 교재 85 쪽.

에서'가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 한국어 문법 형태들이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모국어의 전이 때문에 후행하는 서술어와 상관 없이 '-에', '-에서'를 대치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그러므로 배열 순서에서 '-에', '-에서'를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가', '을/를', '에'(장소), '에'(시간), '에서'(처소) 순서로 하면 좋을 듯하다.

2.3. 오류 현상 및 분석

몽골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뿐만 아니라 중급 학습자들의 글에서도 '-에', '-에서'의 혼선이 많다. 중급 학습자들의 글짓기 자료에서 '-에', '-에서'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관찰 결과를 보면 '-에서'의 자리에 '-에'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그러므로 중급 학습자들이 초급에서 '-에', '-에서'의 사용 구분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중급 단계에서 오류 사용률이 반복되고 있다. 수집된 글짓기 자료는 2010 년, 2012 년 글짓기 대회 자료이며 총 60 편이었다. 조사 대치 현상은 대개 조사의 의미나 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글짓기 자료에서 관찰된 몇 가지 오류를 살펴 보자.

- 1) 사람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늘 만나지 말고...
- 2) 근대 몇 년간 급증한 국제결혼도 그렇거니와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몽골인들이 세계화에 발맞추어 글로벌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계화는 커녕 오히려 점점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3) 이것도 우리 나라에 세계화가 있는지를 좀 보여 주고 있다.
- 4) 왜냐하면 날씨 때문에 몽골만 아니고 세계에서 사막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5) 저는 몽골에서 태어났고 몽골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자랑했습니다.
- 6) ...전화기로도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 ㄱ.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다.

나...전화기로도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바란다.

9) 한국에서는 아이 돌진치를 재미있게 지냈다.

10) 우리 삶*에서 가정 문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하겠지요.

11) 세계에 제일 유명한 나라에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생각합니다.

12) 그래서 그때는 우리 나라는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1)~3)에서와 같이 '-에'는 그 후행하는 서술어가 '있다/없다'의 경우 체언에 '-에'를 결합시켜 용법상 비교적 오류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교재에서 '-에 있습니다' 결합 형식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오류 없이 습득한 것 같다.

4)~6)에서와 같이 '대상의 존재 위치 및 동작이나 행위가 미치는 지점'을 나타내는 '-에'와 '동작이나 행위의 발생 장소'를 가리키는 '-에서'를 혼동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교재에서 '-에서'와 호응할 수 있는 동사를 구체적인 동사와 추상적인 동사를 결합시켜 가르쳐야 한다. '-에서 + 쉬다', '-에서 + 일하다' 등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에', '-에서'가 너무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에'는 '있습니다'와 호응된다고 가르치고 나서 '-에서'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호응 동사 없이 제시되어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행하는 서술어가 '살고 있다'의 경우 7)과 같이 '-에 살고 있다/-에서 살고 있다'의 두 가지 용법이 나타났다. 이때 물론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성격에 따라 2가지를 취하는 것 같다. 이런 점도 습득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

8)에서는 구체적인 장소 표시 및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에서'를 잘 결합시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에서 + 벌어지다/ 생기다/ 일하다/ 되고 있다/ 살고 있다' 등의 후행하는 서술어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비문법적인 사용으로는 '-에서 + 인기가 많다/ 어렵다/ 있지만/ 지냈다/ 배우기' 9)의 사례 등과 어울려 쓴 것이다.

다음은 한국어를 두 학기 동안 공부한 초급 학생들의 시험지 자료에서 가져온 '-에', '-에서'의 오류 사용 현상이다. 총 25 장의 시험지에서 2 개의 문장을 통해 '-에', '-에서'의 사용 현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요즘에 몽골에서 외국 사람이 많아졌어요.
- 2) 요즘은 몽골에 외국 사람이 많이 되었어요.
- 3) 요즘 몽골 외국 사람 많아져 있습니다.
- 4) 요즘에 몽골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 5) 여기에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 6)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 7) 여기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두 학기 동안 초급 교재를 학습한 25 명의 학습자들의 '-에', '-에서' 사용에 아직도 오류가 많아 보인다. 6 명이 '몽골에서 Mongold'로, 8 명이 '여기에 end'로 잘못 사용하는데 총 25 명 중에서 반 이상이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1 명이 '몽골에'로 맞게 사용했는데 이 중에서 4 명이 한국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이다. '여기에서'를 4 명, '여기서'를 8 명이 사용했다. 6)의 '여기서'를 많이 사용한 것을 보면 '-에' 없이 쓰면 '-에', '-에서' 구분이 뚜렷하게 보이고 편리했을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현상이 관찰된다. 2), 3)번이 뒤에 오는 동사와 호응되지 않은 어색한 문장이다. 3), 7)번 처럼 조사 없이 쓴 경우도 있었다. 두 가지 문장만 해도 오류 현상이 빈번한 것을 보면 뒤에 오는 '동사'를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즉 '-에 있습니다'와 같이 '-에서 피우다...' 등이다. 1), 4)에서의 '요즘에'(요즘)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를 몽골어로 suuliin ued라 하며 '-d' 조사를 취하기 때문이다.

Ⅲ. 결론

본고에서는 몽골에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을 간략하게 울란바타르대학교 사례로 그 현황 및 방법과 내용 등을 소개하고 초급 학습자들에게 혼선이 높은 '-에', '-에서'를 예로 들어『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교재를 통한 학습 과정으로 살펴 보았다. 초급 학습자들에게 혼선의 우려가 높은 문법을 초급 단계에서 해결하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의 내용을 검토하고, 격조사 배열을 살펴, 오류를 범하는 예시를 보임으로써 그 원인을 밝혀 보고, 혼선을 피하는 '-에', '-에서'의 배열을 제안하였다. 아주 미진한 수준밖에 살펴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표준화된 한국어 문법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 (2) 본 교재에는 '주제 텍스트'가 없다. 과마다 해당 문법을 포함한 좋은 '주제 텍스트'를 실으면 학생들이 외워서 문형 틀 안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 (3) 본 교재에 맞는 시청각자료를 개발하여 사이버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한국어 발음 수업 교재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4) 학습자 유형에 맞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법 교수, 학습 방안이 필요하다.
- (5) 평가 항목 부분에 본 교재 문법 항목에 제시되지 못한 접속사를 보완하고, 1 권에 제시된 높임법의 기본 표현을 2 권에서 제시하면 좋다. 이외의 차이를 보이는 문법 항목에 대해 빈도, 분포, 난이도, 필요도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6) 학습자들의 부사격조사 '-에', '-에서'의 오류 현상에서 관찰된 것과 같이 유사한 문법 형태들이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것을 단계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즉 '-이/가, -을/를, -에(장소), -에(시간), -에서(처소)의 배열로 문법 항목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7) 본 교재의 문제와 다른 예시문, 문법 항목 제시 형태 등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 (8) '-에 있습니다'처럼 '조사 + 동사' 제시형태 즉 '-에서 일하다/ 먹다/ 공부하다' 등과 같이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뒤에 오는 동사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문법 교육에 효과적이다.

참고 문헌

1. 고경태, 「한국어 교육에서 패턴으로서의 '격조사+동사' 교육의 필요성」, 『문법 교육』 제 6 집, 한국문법교육학회, 2007.
2. 박지영 외,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2009.
3. 국립국어연구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4.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자료 제 27 회, 제 29 회.
5. 김제열, 「한국어 교육에서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교육』 제 12 권 1 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1.
6. 나랑게렐, 「몽골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U.B 한국학연구 제 3 집, 2011.
7.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2002.
8. 방성원 외,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 2011.
9. 방성원 외, 『몽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2』, 2011.
10. 영흐졸,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부사격조사 교수·방안 연구, 한국어 몽골어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 130 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11. 이남순, 『격과 격표식』 월인, 1998.
12. Bolovsroliin Ih Syrgyyli, 『Orchin tsagiin mongol hel』, Ulaanbaatar, 2004.
13. Ulaanbaatar Deed Syrgyyli, 『Solongos helnii orchyylagch mergejliin hicheeliin hotolbor』, Ulaanbaatar, 2009.
14. Ulaanbaatar Deed Syrgyyli, 『Solongos helnii orchyylagch mergejliin hicheeliin standart』, Ulaanbaatar, 2009.

Солонгос хэл суралцагчдад зориул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хэлзүйн заах аргазүйн зарим санал

Г. Баярмаа¹⁵

[Хураангуй]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хэлзүйн сургалтыг УБИС-ын жишээгээр сург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арга зам, агуулгыг товч танилцуулж, анхан шатны суралцагчдын дунд түгээмэл алдаанд тооцогддог '-에', '-에서' нөхцөлийг "Монгол хүнд зориул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цогц сурах бичиг" номоор дамжуулан сургалтын үйл явцыг ажиглалаа. Анхан шатны суралцагчдын хувьд андуурах тохиолдол өндөртэй хэлзүйн дүрмийг тухайн түвшинд нь шийдэхэд анхаарах хэрэгтэй. Тиймээс "Монгол хүнд зориул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цогц сурах бичиг"-ийн агуулга, тийн ялгалын нөхцөлийн дэс дарааллыг нягтлан харж, суралцагчдын алдаа гаргадаг жишээг задлан үзэж, тэрхүү учир шалтгааныг тодорхойлж, '-에', '-에서' нөхцөлийн дэс дарааллыг гаргасан. Сайн болсон гэж хэлэхгүй ч цаашид үргэлжлүүлэн судлах чиглэлийг дараах дөрвөн байдлаар санал болгож байна.

Нэгдүгээрт, монгол суралцагчдад зориул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дүрмийн стандартыг гаргах хэрэгтэй.

Хоёрдугаарт, суралцагчдад тохирсон сонирхлыг нь төрүүлэхүйц хэлзүйн заах арга, сургалтын заах аргазүйг боловсруулах хэрэгтэй.

Гуравдугаарт, дүгнэх хэсэгт үндсэн сурах бичгийн хэлзүйн хэсэгт ороогүй холбоо нөхцөлийг нөхөн оруулж, 1-р номд гарсан хүндэтгэлийн хэлбэрийн үндсэн илэрхийллийг 2-р номд оруулах хэрэгтэй. Үүнээс гадна ялгаатай байгаа хэлзүйн нөхцөлүүдийг давтамж хүртээл, хэцүү хялбар, хэрэглээ талаас нь нягтлах хэрэгтэй.

Дөрөвдүгээрт, суралцагчдын түгээмэл гаргадаг '-에', '-에서' нөхцөлийн алдаанаас ажигласантай адил төстэй хэлзүйн хэлбэрүүд ижил төстэй утгатай байдгийг ойлгуулах тухайлбал '-이/가', '-을/를', '-에(장소)', '-에(시간)', '-에서(처소)' гэх дарааллаар хэлзүйн дүрмийг төрөл хоорондын зохицлыг бодолцож заах хэрэгтэй.

Тавдугаарт, үндсэн сурах бичгийн асуулт ба бусад жишээ, хэлзүйн нэр төрөл зэргийн сул талыг сайжруулах хэрэгтэй.

Долдугаарт, '-에 있습니다'-тай адил '조사 + 동사' хэлбэр тухайлбал '-에서 알하다/공부하다' зэрэг нэгдмэл байдлаар илэрхийлж, ард нь илрэх үйл үгийг гол болгож зөв нь хэлзүйн заах аргад үр дүнтэй.

Голлох үг: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хэлзүйн сургалт, суралцагч, сурагч, бичиг, хэлзүйн нэр төрөл, дайвар тийн ялгалын нөхцөл, алдаанд анализ хийх

¹⁵ Олон Улсын Улаанбаатарын Их Сургуул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энхимийн ахлах багш

동요를 활용한 초급한국어 수업모형 제시

장 영 아¹

목차

1. 서론
 2. 외국어 교육에서의 노래 활용의 효과성
 3. 동요를 활용한 초급한국어 수업모형 연구
 4. 결론
- 참고문헌

[국문 초록]

음악적 요소(멜로디)와 언어적 요소(가사)를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노래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듣기 기능 훈련뿐 아니라 발음, 읽기, 쓰기, 문화 영역까지 확대한 수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노래는 반복적 형태로 반복 암기를 유도하며 노래의 멜로디는 기억의 부담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한국어 교육에 활용되는 노래는 사전에 활용할 수 있고 가사와 리듬이 평이하며 학생들에게 흥미로우면서도 학습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심상을 담고 학습자 수준에 맞아야 한다. 이런 노래 중 초급한국어 수준에 맞는 동요를 활용한 수업모형을 연구하였고 그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초급한국어, 동요, 노래, 수업모형, 발음, 듣기 기능 훈련

1. 서론

한국어 학습의 늘어난 수요에 따라 짧은 시간 더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재미있게 가르칠

¹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박사과정수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언어를 학습할 때 학습의욕을 유발하는 소재를 선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좀 더 쉽게 초급한국어 어휘를 이해하고,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유발하며, 문법 학습에 효과적 방법 중 한 부분을 동요를 활용한 한국어 지도라고 가정하고 초급 한국어 수업에서 동요를 활용한 학습 이론과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 동요를 활용한 초급 한국어 수업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노래를 활용한 수업을 시도한 연구의 선두인 이종혁(1990)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실제 언어를 발화하기 전에 일종의 '침묵의 기간'²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규 학습 전에 일정기간의 침묵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인 듣기 연습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노래 형태의 자극을 받은 학습자 집단의 청취능력과 학업 성취도 향상이 통상적인 언어형태(speech type)의 자극을 받은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 뒤를 잇는 연구로는 류재권(1994), 김달수(1998), 강미혜(1999)등이 대개 노래 활용 수업과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 향상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그 외, 영어 노래의 활용이 학습자들의 발음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낸 정성미(2002)의 연구와, 노래·챗·게임을 $2 \times 2 \times 2$ 의 단계로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학업성취도·학습동기·산만 함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김영희(1997)의 연구가 있다.³

정경량(2000)에서는 『노래로 배우는 독일어』라는 교재를 실제 어떻게 수업에 활용하는 지에 대한 적용 사례를, 교과서에 제시된 중국어 노래 분석 및 활용방안에 대한

² Asher(1977)는 어린이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말하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침묵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리나 어른들의 발화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보낸 다음 뒤에 익숙하고 이해가 된 단어부터 서서히 입밖에 소리로 내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는 제2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처음부터 발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침묵의 기간'을 가지고 학습자들이 자신감을 가진 다음 발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³ 김영희(1997)는 실험 결과 각각의 수업 방법은 종래의 수업 방법에 비해 효과가 높으나, 주어진 시간에 너무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김은주, 2002)등도 있다. 노래가 듣기 기능 훈련뿐 아니라 발음, 읽기, 쓰기, 문화 영역까지 확대한 수업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위의 연구들은 비록 목표 언어를 달리하고 있지만,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노래 수업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대개의 실험 연구가 영어를 배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상황이 언어발달에 효과가 높은 단계이므로 가설에 대해 높은 긍정적 결과가 나오리라는 연구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실험 대부분 정규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한국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이런 연구들의 결과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영어와 대비되는 한국어의 특징이다.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음절 박자 언어(syllable-timed language)이다. 자연히 강세 박자 언어(stress-timed language)에서와는 다른 음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운 축약이나 약모음화(schwa) 연습에 효과적인 영어 노래의 연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한국어의 특징상 대개 한 음표 당 한 음을 배치하여⁴ 음운 축약의 경우는 드물 것이며, 음운 축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음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구어의 특징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한국어 교육 영역에 적용할 때는 먼저 한국어 구어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한국어 학습자들에 관한 부분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부분이 성인이므로, 어린 학습자들에 비해 수업 활동에 대한 호 불호가 분명하다. 교사가 제시하는 방법을 무조건 따라 하거나 동조하기 보다는 비판적 또는 비협조적이기 쉽다.⁵

아울러 노래를 이용하여 듣기는 물론 읽기나 쓰기의 다른 기능들을 익히는 활동으로

⁴ Jolly(1975)는 일본 노래의 이런 특징 때문에 노래를 부르기 쉽다고 이야기했는데, 같은 음절 박자언어인 한국어 노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⁵ 초·중등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비해, 교사가 수업을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노래를 제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와의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인지시키고, 또 노래를 통한 학습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단순히 자투리 시간 보내기 용 자료가 아님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어 노래 자체의 특징 부분이다.⁶ 최상진 외(2001)에 의하면 1996년까지의 한국 대중가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랑과 이별, 삶의 애환, 세태풍자, 고향 및 타향살이, 자연이나 인물에찬의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소재나 주제가 제한 적이며 그 가사에서 이용될 수 있는 어휘나 문형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⁷

반면 외국어 교육에 비해 한국어 교육에 있어 노래를 활용한 수업에 관한 연구는 너무나 미미했다. 곽셀(1999)의 연구를 필두로 김경지(2001), 문복희(2004), 양윤희(2005), 변혜원(2007) 등이 그 맥을 잇고 있다.

한국어 학회에서 발표된 곽셀⁸ 외에도 김경지(2001),⁹ 문복희(2004),¹⁰ 양윤희(2005)¹¹ 등 외에도 변혜원(2007)은 한국어 교사들의 정보와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 향상과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래를 활용한 수업모형을 제시하였고 또한 그 수업 모형을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한 후 효과를 검증하여 노래를 이용한 수업에 관심이 있는 현장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였다.

⁶ 졸리(Jolly, 1975)나 멀피(Murphey, 1992)는 팝송의 가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소재나 문법 표현을 가르치기에 충분히 다양하므로 노래를 언어학습에 이용하고자 하는 교사의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유용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런 내용이 한국 대중가요에서도 유효할 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⁷ 그러나 최근 들어 노래의 소재와 주제가 급속도로 다변화되며, 과거 수동적·소극적인 자책과 체념 등의 정서에서 점차 능동적·적극적 노래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 좀 더 다양한 주제나 소재의 노래를 접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의 노래 관련 사이트 등에서 가사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뮤직 비디오 등의 시각적 자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들이 노래라는 매체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⁸ 곽셀의 연구는 터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 고급에서 다룰만한 노래를 각각 선정하여, 각 급에서 다루어야 할 목표 문법, 어휘, 발음 등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노래의 성격에 따른 위계화를 시도하여 초급에는 동요, 중급에서는 서정적 대중가요, 고급에서는 가곡을 선택하여 수업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개론적인 성격의 연구이다.

⁹ 김경지는 학습자 대상 설문문을 통해 영화와 노래라는 매체를 이용한 수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각에 대한 수업 모형 및 자료를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다.

¹⁰ 문복희는 한국음악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한국음악들을 제공하였다.

¹¹ 양윤희는 교사와 학습자 협동 중심의 효율적인 한국어 교수법의 한 시도로 게임과 노래를 활용하는 수업을 소개하고 있다.

본고 역시 동요를 활용한 수업이 학습자들의 인지적·정의적 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덧붙여 본 연구자는 초급한국어 수업 시간에 활용 가능한 동요들을 찾아내어 제시하고자 했다.

2. 노래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

노래라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매체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 지에 대해 좌·우뇌 통합적 언어 학습 이론과 기억의 단계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뇌의 좌반구는 수학, 언어, 과학, 분석적 사고 등의 논리적인 영역을 통제하고 우반구는 음악, 그림 이해, 무용, 조각, 지각, 환상 등의 감성적인 영역을 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김운아, 2001) 언어 학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¹² 언어 학습을 주로 관장하는 것이 좌반구라 하더라도,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좌반구와 우반구가 협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노래 활용 수업에 울동을 더한다거나, 뮤직비디오 및 사진 자료 등의 시각적 자극을 더한다면 이것이 좌·우뇌 통합적 학습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¹³

둘째로, 기억의 단계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인지심리학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틀로써 정보처리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 접근 방식은 인간의 정신과정을 컴퓨터의 정보처리과정과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써 우리가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 저장, 인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인지활동도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기억 속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인출되는 일련의 정신조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¹² 따라서 제 2 언어를 학습하는 성인들에게 어린이가 모국어를 습득해 가듯이 좌·우뇌를 동시에 사용하도록 하는 자극을 제시한다면 언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언어적 정보와 함께 시각적, 청각적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거나, 그 외 감각적 반응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면, 통합적 언어 학습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외국어 학습에 노래를 활용하는 것은 좌·우뇌를 동시에 활성화 시키는 전형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줄리, 1975) 노래를 들으면 좌뇌가 언어적 입력(가사)을 처리하고 우뇌가 음악적 입력(멜로디)을 처리하면서 협응하게 되는 것이다.

¹³ 변혜원(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학년도 석사논문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모형 연구] 15쪽

셋째로, 단기 기억¹⁴과 장기 기억¹⁵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기 기억의 용량은 비교적 개인차가 크다. 예를 들어 1,4,4,3,1,5,9,2 라는 여덟 개의 숫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숫자를 하나씩 외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앞의 네 숫자를 한글창제 연도, 뒤의 네 숫자를 임진왜란 발생 연도로 외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의 경우는 주어진 자극을 유사한 인접항목끼리 유의미하게 묶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묶는 과정을 청킹(chunking)이라고 하고, 이렇게 묶인 단위를 청크(chunk)라 한다.¹⁶

노래가 주어진 정보를 지루하지 않게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결국 그 학습된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다시 인출해 내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¹⁷

노래가 가진 기억 보조자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일본어 회화 초·중급 과정에서 일본어

¹⁴ short-term memory

¹⁵ long-term memory

¹⁶ 여러 학자들은 일반 성인의 단기 기억 용량이 7±2 이 숫자를 George Miller(1956)는 '마법의 수'라고 명명하였으며,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다. 청크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각각의 숫자를 하나의 청크로 삼고 있는 사람과 네 개의 숫자를 하나의 청크로 유의미하게 연결한 사람은 정보 저장 용량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결국 개인이 주어진 자극이나 정보를 어떻게 유의미하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장기 기억은 정보를 무한히 유지하는 비교적 영구적인 기억 구조이다. 단기 기억의 정보 중 충분한 시연을 받는 정보들이 장기 기억으로 전이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망각된다.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들은 인출단서에 의해 검색되며 다시 인출 가능하다.

이는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인출하는 것과 유사하다. 정보의 인출이 얼마나 용이하나 하는 것은 그 정보를 얼마나 체계화하여 장기 기억 속에 입력시켰느냐에 달려있다.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인출하는 작업은 저장하는 과정과 동이란 과정을 통해 인출되기 때문에 구조화되지 않고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는 비록 존재하더라도 그 경로를 찾지 못해 인출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¹⁷ Wallance(1994)는 학습자들에게 멜로디와 함께 제공된 텍스트(melodic text), 운율과 함께 제공되는 텍스트(rhyming text), 그냥 읽어 준 텍스트(spoken text)에 대한 장기 기억력을 비교한 실험에서 멜로디와 함께 제공된 텍스트에 대한 기억력이 가장 월등하다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그의 실험에 따르면 간단한 멜로디가 평범한 텍스트를 잘 저장하여, 필요할 때 회상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다. McElhinney & Annet(1996)는 심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텍스트 회상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실험자들에게 멜로디가 있는 텍스트와 그냥 교사가 읽은 텍스트가 녹음된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게 하였는데, 3회에 걸친 처치 중 첫 번째 처치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피실험자들은 멜로디가 있는 텍스트의 내용을 더 많이 회상해내는 양상을 보였다(Salcedo, 2002).

노래를 보충자료로 사용하였던 졸리(1975)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⁸

노래가 가진 반복의 효과에 대한 언급은 리차드(1985)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는 '학습이란 훌륭한 제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 항목들에 대한 유의적인 반복 활동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하였다. 다만, 반복활동이 기계적일 경우 오히려 학습자들이 싫증을 느끼게 되므로 유의적이고 흥미로운 활동이 필요한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노래의 사용이라고 주장하였다.

노래 가사에서 제시되는 반복적 문형은 목표 어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케이에프엘(KFL)상황의 언어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다. 학습자들은 노래 가사를 반복적으로 들으며 문장구조와 그 형성 규칙을 이해하여 문장 구성 능력을 습득하게 되고, 학습자들은 그 용례를 청크(chunk) 단위로 익힐 수 있다.

끝으로, 아브레이트(Abrate, 1983)는 노래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고, 언어의 원어적·구어적 사용을 소개할 수 있으며, 문화적 현상과 관점을 소개할 수 있고, 리듬을 통해 학습에 이로운 내용 제시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므로 교재를 활용한 수업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단기 기억 속에 정보를 고정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정보의 반복을 시연(rehearsal)이라고 한다. 시연은 소리나 동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¹⁹ 변혜원(2007)은 멀페이(Murphey, 1990)가 이런 현상이 노래와 직결이 된다고 믿는

¹⁸ 그는 노래와 언어 둘 다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이며, 리듬과 멜로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언어적 측면에서 대화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런 공통점을 근거로 회화수업에 노래를 적용한 후 그 유용성을 조사한 결과 학습자들에게서 높은 수치의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즉 노래를 이용하는 수업이 청각구두식 언어 교수법(Audio-Lingual Method)을 사용할 때의 단조로움과 싫증을 어느 정도 제거해 주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재미있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복습하여 오래 기억한다는 것이었다. 학습된 내용을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구문이나 어휘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노래는 이런 반복을 쉽게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¹⁹ 이 가운데 어떤 소리나 동작이 표출되지 않은 채, 정보의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 정보를 단기 기억 속에 머물도록 하는 것을 무의식적인 정신적 시연(involuntary mental rehearsal-본인 이 의도하지는 않지만 배우거나 들은 적이 있는 어휘나 노래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이라 한다. 이 개념을 외국어 습득 장면에 적용시킨 용어가 바로 din이다. Krashen(1983)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되뇌는 단어나 음, 구절을 '머리 속에서의 울림 현상(din)이라고 정의를 내리며, 이는 우리 내

학자라 했다. 그는 외국어 노래를 들은 후 그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현상을 밝혀내고 이를 에스에스아이엠에이치(SSIMH)²⁰ 현상 (the song stuck in my head phenomenon)이라고 명명했다²¹

변혜원(2007)에 의하면 살세도(Salcedo)는 초급 스페인어 회화 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익힌 텍스트(melodic text)와 그냥 읽어준 텍스트(spoken text)의 내용에 대한 회상과 SSIMH²²의 발생 율을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SSIMH의 발생에 대한 질문에서는 노래 집단이 텍스트를 들려준 집단에 비해 두 배나 높은 빈도를 보고하였다.

멀페이(Murphey)의 주장처럼 딘(Din)이나 SSIMH현상이 첨스키(Chomsky)의 엘에이디(LAD)에 대한 증거이며, 언어를 배울 때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입력된 정보를 장기기억에 전이시키기 위해 부단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면, 결국 노래를 배우는 것은 그 당시 뿐 아니라 더 이상의 청각적 입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머리 속에서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장기기억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극대화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에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였다. 그는 학습자들에게 이해 가능한 수준의 입력(comprehensible input)이 한 두시간 정도 제공되면, 이것이 LAD(Language Acquisition Device)를 자극하여 딘은 대개 일정기간 외국어를 접한 후, 특히 듣기 활동 후에 생기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²⁰ 이하 SSIMH라 명하겠다.

²¹ 딘과 SSIMH은 모두 학습자에게 LAD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받아들여지지만, 그 둘의 차이를 간략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DIN	SSIMH
이해 가능한 입력에 의해 발생한다.	반복적 텍스트, 쉬운 가사에 의해 발생한다.
집중훈련(immersion)과 함께 증가한다.	노래와 함께 증가한다.
i+1 형태의 입력에 의해 발생한다.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도 가능하다.
고급 학습자에게는 드문 현상이다.	초급학습자에서 고급학습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현상이다.
최소 한 두 시간의 입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입력이 제공된 직후부터 하루 종일 발생하기도 한다.
며칠 후 소멸되는 현상이다.	오랜 기간 경과 후 발생 가능하다.

²² Salcedo(2002)는 이를 '음악적 딘(melodic din)으로 명명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들을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²³

또한 음악과 언어는 소리를 통한 의사소통, 청각 및 음성학적, 인지론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소리가 아무렇게나 조합된 소리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의해 통제되고 구상되는 소리의 조직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상을 띠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음악과 언어는 모두 조직된 소리로 간주될 수 있다. 자의적이고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소리들이 문화에 따라 조절된 체계인 것이다.

음악을 듣는 방법과 말을 이해하는 방법은 모두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소리가 발음이나 음향적 대상이라는 부호(encoding)체계라면 그것의 의미를 찾는 것은 곧 어떤 문화체계를 해독(decoding)하는 것이다.²⁴

이현주²⁵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그리페(Griffie)는 노래가 영어학습에 미치는 장점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설명하였다. 리듬과 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리듬에 민감함은 언어학습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한 첫 번째 단계이다. 음악은 그것이 생성되는 시대와 장소를 반영하는 산물이다. 노래 속에는 많은 의미 있는 어휘나 대화내용, 특정 문법 양상을 익히거나 리듬, 강세, 음조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국어 수업에 노래를 활용할 때 기대되는 효과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²⁶

첫째, 실제적(authentic)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다. 노래는 교실 수업만을 위해 고안된 자료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교실 밖에서 들을 기회가 많은 자료이며 특히 대화형(혹은 문답형) 노래 가사는 실생활 담화를 가르칠 수 있는 유용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학습자가 그날 배운 표현을 바로 듣게 되거나 말하게 될 상황을 접한다면, 이는 곧 학습 내용이나 교재 및 수업에 대한 신뢰나 높은 흥미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목표 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실생활 언어교재는 언어형태와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재보다

²³ 변혜원(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학년도 석사논문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모형 연구」 16쪽

²⁴ 변학수. "음악으로 배우는 독일어:한국과 독일 민요의 비교문화학적 고찰." 『중등교원연구』 (2001). 제 46집. 89-91쪽.

²⁵ 이현주 영어 노래가 학습자의 흥미와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7-10쪽 재인용

²⁶ 변혜원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모형 연구' 석사논문. 33쪽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학습자들은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며 노래 속에 스며 있는 생활 그 자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 노래는 입말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 학습자들은 주로 교실이나 교재를 통해 글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입말이 '교실용 한국어'와 다름에 당황하게 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노래에 등장하는 구어(colloquial language) 표현들은 글말 중심의 교재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수업자료가 될 수 있다.

넷째,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합하는 수업이 가능하다. 노래를 이용한 수업은 흔히 듣기영역에만 국한되는 활동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노래를 이용한 수업은 기본적으로 듣기 활동을 주로 하는 수업이 되겠지만, 수업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어휘 확장, 문법 형태 연습, 읽기 및 쓰기 활동 등으로 확장하여 네 가지 언어 기능의 다양한 과제활동(task)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될 수 있다. 노래를 이용한 교수-학습은 학습자 흥미를 고려하고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수업자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어떤 학습활동보다 학습자 참여도가 높은 수업이 가능하다. 노래를 이용한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목표어 발음을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따라 하며 몇 번이고 반복하게 된다. 노래를 이용한 수업이야말로 그 어떤 수업형태에서 보다 학습자들의 발화가 많은 수업일 것이다.

끝으로, 노래는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에 필요한 언어의 자동화(automaticity)를 조장할 수 있다.

3. 동요를 활용한 초급한국어 수업모형 연구

3.1. 한글 자모를 활용한 수업모형

학습자들은 처음으로 접한 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낯설고 쉽지 않다. 그리고 발음 또한 쉽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모음과 자음을 조합하여 읽는 것 역시 어렵다.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노래를 제일 먼저 배웠던 것 같이 한글을 배울 때 'ㄱㄴㄷ' 한글 노래를 이용하면 학습자들은 쉽게 익힐 수 있다. 특히 'ㄱㄴㄷ' 한글노래는 자음 이름을 기억하는 데 수월하다.

모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아에이오우' 노래를 불러 기본 모음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가나다' 노래의 경우는 자음 더하기 모음 가르치기에 유용하다. '더불어' '가나다' 노래를 활용하면 학습자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ㄱㄴㄷ' 한글 노래는 다음과 같다.

기억 니은 디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랄랄라
이응 지읒 치읓 키읓 티글 피읓 히읓 야

기본 모음 노래

아에이오우아에 이오우 아에이오우

'가나다' 노래는 표를 짚어가며 그 글에 해당하는 한글에 맞춰 노래를 하면 된다. 표는 아래와 같이 만들 수 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ㅏ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ㅑ	야	냐	댜	랴	먜	뵤	샤	야	쟈	챤	카	타	파
ㅓ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쳐	커	터	퍼
ㅕ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ㅗ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ㅛ	규	뉴	듀	류	뮤	뷰	슈	유	쥬	쥬	큐	튜	퓨
ㅜ	그	니	드	리	미	비	스	이	즈	치	크	티	피
ㅠ	기	니	디	리	미	비	시	이	지	치	키	티	피

ㅎ	하	하	히	히	호	효	후	휴	흐	히
---	---	---	---	---	---	---	---	---	---	---

위의 표를 만들어 수업 시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표를 읽으면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글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처음 접한 한글을 빨리 눈에 익히고 입에 붙게 하는 효과가 있다.

수업시간 초반에 학습자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수업시간 후반에 또한 이 노래를 부르게 한다면 더 효과적이다. 동요의 경우 사용 되는 어휘가 어렵거나 한자어가 많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런 이유로 동요를 활용한 초급 한국어 학습은 많은 어휘들을 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3.2. 신체 이름을 활용한 수업모형

신체 이름에 관련된 동요는 '머리, 어깨, 무릎, 발'이 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입

이 외에도 '눈은 어디 있나'를 활용할 수 있다.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나 여기 귀는 어디 있을까~ 요기

위의 동요의 경우는 신체 어휘를 가르쳐 준 후에 다른 신체 어휘들을 불러가며 익힐 수 있어 더 활용도가 높다.

수업 모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수업 모형 제시1

제목: 머리·어깨·무릎·발²⁷

활동목표: 노래를 통해서 신체 부위를 익힌다.

형식: 전체활동

준비물: 신체 부위 그림, '머리·어깨·무릎·발' 악보

● 방법

²⁷ 허용·오문경『즐거운 한국어 수업을 위한 교실 활동100』46-47쪽

- 1) 교사가 학생들에게 신체 부위 그림을 주고 함께 익힌다.
- 2) 교사가 '코'를 여러 번 말하고 다른 부위를 말하면 학생들은 그 부위를 가리킨다.
- 3) 어느 정도 신체 부위를 익히면 노래 '머리·어깨·무릎·발'의 악보를 주고 같이 부른다.
- 4) 모두 일어나서 해당 부위를 가리키면서 노래를 부르면 더 재미있다.

● 응용

유명 배우나 가수의 사진을 가져와 신체 부위들에 '포스트 입'을 붙인다. 학생들이 신체 부위를 말하면 하나씩 떼면서 누구인지 알아 맞추기를 한다.

● 가사

<머리·어깨·무릎·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귀

3.3. 시간과 숫자를 활용한 수업모형

'숫자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은 알랄라 하나이구요 2는 알랄라 둘이구요 3은 알랄라 셋이구요
4은 알랄라 넷이구요 5는 알랄라 다섯이고요 6은 알랄라 여섯이고요
7은 일곱 8은 여덟 9은 아홉 10은 열 1, 2, 3, 4,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와 더불어 '곰 세마리'와 '꼬마 인디언'을 활용할 수 있다.

'곰 세마리'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똥똥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꼬마 인디언'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인디언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인디언 열 꼬마 인디언

3.4. 동물 이름과 상징어(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한 수업모형

동물 이름에 관련된 동요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와 '오리는 껍썩', '동물농장', '산토끼', '개굴개굴 개구리' 등이 있다. 특히 동물 이름과는 관련된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 활용도가 높다.

'오리는 껍썩'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오리는 껍썩 오리는 껍썩 염소 음매 염소 음매
돼지는 꿀꿀 돼지는 꿀꿀 소는 음~머 소는 음~머

'동물 농장'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 농장 속에는 암탉이 (꼬꼬댁) 문간 옆에는 거위가 (껍썩)
배나무 밑엔 염소가 (음매) 외양간에는 송아지 (음매)
닭장 속에는 암탉들이 문간 옆에는 거위들이
배나무 밑엔 염소들이 외양간에는 송아지
오 히 야하 오 오오 오 히 야하 오 오
2. 깊은 산 속엔 빠꾸기 (빠꼭) 높은 하늘엔 종달새 (호르르)
부뚜막 위엔 고양이 (야옹) 마루 밑에는 강아지 (멍멍)
깊은 산 속엔 빠꾸기가 높은 하늘엔 종달새가
부뚜막 위엔 고양이가 마루 밑에는 강아지
오 히 야하 오 오오 오 히 야하 오 오

수업 모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수업 모형 제시2

제목: 동물 농장

활동 목표: 노래를 이용하여 위치 표현과 위치 표현 뒤에 조사'에'가 오는 것을 익힌다.

형식: 전체 활동

준비물: '동물농장' 악보, 노래 테이프 또는 CD, 위치 표현에 공란이 있는 노래 가사

● 방법

- 1) '위-아래(밑)-앞-뒤-옆', 안(속)-밖(겉)' 등 위치 표현을 확인한다.
- 2)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란이 있는 '동물농장' 노래 가사를 준다.
- 3) 노래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공란을 채운다.
- 4) 어느 정도 학생들이 공란을 채우면 한 소절 씩 들으면서 답을 확인한다.

5) 모르는 단어는 같이 확인한다.

6) 노래 악보를 주고 같이 노래를 부른다.

7) 위치 표현과 조사 '에'를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한다.

● 응용

1. 동물들의 이름들과 동물 울음 소리를 연관 지어 익힐 수 있다.

2.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에서 동물의 이름을 말하면 다른 팀에서는 해당 동물 울음소리를 내서 동물과 관련된 의성어를 익히게 한다.

동물농장 수업 후 활동은 다음을 활용할 수 있다.

동물농장

전석환 작사/ 로드바기스 작곡

1절

닭장 _____ 암탉이 (꼬꼬댁)

문간 _____ 거위가 (꽹가)

배나무 _____ 염소가 (음메)

외양간에는 송아지 (음매)

닭장 _____ 암탉들이

문간 _____ 거위들이

배나무 _____ 염소들이

외양간에는 송아지

오 히 야하 오 오오 오 히 야하 오 오

2절

깊은 산 _____ 뽕꾸기 (뽕꾹)

높은 하늘엔 종달새 (호르르)

부뚜막 _____ 고양이 (야옹)

마루 _____ 강아지 (멍멍)

깊은 산 _____ 뽕꾸기가

높은 하늘엔 종달새가

부뚜막 _____ 고양이가

마루 _____ 강아지

오 히 야하 오 오오 오 히 야하 오 오

3.5. 문법을 활용한 수업모형

문법 학습은 외국어학습에 있어서 가장 백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외국어를 구사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므로 교사들이나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문법 교육에 있어서도 동요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의 예들은 초급단계 문법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동요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어떻게, 어느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배아프고, 열이 나면 어떡할까요?
어느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요~?

뭐하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 잔다 잠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멋쟁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반찬? 개구리반찬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4. 결론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은 첫째, 교사가 노래를 통하여 어휘, 발음, 문법, 문화 중 적어도 한 가지는 가르칠 수 있는 곡을 선정해야 한다. 둘째, 곡조는 간단하고 배우기 쉬운 것이 좋다. 셋째, 가사는 반복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쉽게 배울 수 있는 후렴 같은 것이 있는 노래가 좋다. 넷째, 가사는 가능한 표준 외국어로 구어체여야 한다. 다섯째, 가사 내용을 굳이 교육적 내용에 맞추어 바꾸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껍셀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²⁸ 첫째, 사전을 활용할 수 있는 노래이어야 한다. 둘째, 가사와 리듬이 평이한 노래가 좋다. 셋째, 학생들에게 흥미로우면서도 학습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노래가 좋다. 넷째,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심상을 담은 노래가 좋다. 다섯째, 학습자 수준에 맞아야 한다.

참고문헌

곽지영 외, 2007,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김성균, 1994,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I. 노래를 통한 유아교육』, 국민서관.

허용·오문경, 2005, 『즐거운 한국어 수업을 위한 활동 100』, 박이정.

Michael H. Thaut, 2011, 『리듬, 음악 그리고 뇌-과학적 근거와 임상 적용』, 학지사

²⁸ 껍셀(1999).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국어교육연구 157-171쪽.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연구소

- 강승혜, 1999, 「외국어 교수법 이론의 비판적 검토: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 적용을 위하여」, 『연세교육연구』, 연세대학교교육연구소, 131~153
- 김갑녕, 2006, 「대화분석 이론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 학습가능성」, 『텍스트언어학』,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제19집, 247~270
- 김경지, 2002, 「미디어 매체를 통한 한국어 교육-영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 427~438
- 신현숙·김영란, 2004,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색채어 어휘 정보」, 『이중언어학』 제24호, 이중언어학회, 151~175
- 김경지, 2001,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영화와 노래를 중심으로 한 수업 활동」,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엽, 2005, 「동영상 광고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1997, 「노래, 챗트, 게임이 초등영어 학습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영희, 2006, 「한국어 교육에서 영화 활용 수업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김윤아, 2001, 「노래와 챗트를 활용한 듣기·말하기 지도: 초등영어 수업 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숙, 2008,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시간 표현 교수·학습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원, 2001, 「국어교육과 대중가요-대중가요 국어교육론의 필요성과 가능성」,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04호, 1-22
- 김희진, 2009,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지도법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문복희, 2004, 「한국음악을 활용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인애, 2008, 「한국어 학습자간 피드백 활용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경, 2007, 「매체교육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신문과 웹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혜원, 2007,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모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손 건, 2008, 「한국어 교육을 위한 드라마의 장면 활용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연주, 200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학습에 있어서 신체언어 활용방안」,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주, 2001, 「영어 노래가 학습자의 흥미와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Michael J. Wallace, 2001, 『Action Research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Young-mee Cho 외 4명, 『Integrated Korean, Beginning 1』, University of Hawaii Press,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анхан шатны сургалтанд хүүхдийн дууг ашиглах арга зүйн судалгаа

Жан Ён А

[Хураангуй]

Хөгжмийн хүчин зүйл(ая), хэлний хүчин зүйл(үг) аль аль нь бий учир баруун зүүн тархийг зэрэг идэвхжүүлж сурах үйл явцыг маш үр өгөөжтэй болгодог дууг гадаад хэл суралцагчдын сонсох чадварыг сайжруулахад төдийгүй зөв дуудаж, уншиж, бичиж сургах, мөн соёлын мэдлэгийг нь тэлэх зорилгоор ашиглах боломжтой. Дуу нь давтагдах хэлбэртэй тул цээжлэх чадварт нөлөөлж, дууны ая хялбар тогтооход тусалж, эцсийн дүнд гүн бат тогтоох чадвартай болгодог. Солонгос хэл сурч байгаа хүнд дуу заахад толь бичиг ашиглаж болохоос гадна үг хэмнэл тэгш хялбар учир дур сонирхол төрүүлж, сурах үйл явцыг нь удирдах боломжтой тул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г тусгаж, солонгос хүний бодол санааг илтгэсэн, суралцагчийн түвшинд таарсан дууг сонгох хэрэгтэй. Тус өгүүлэлд анхан шатны суралцагчдад зориулж хүүхдийн дууг хэрхэн ашиглах болохыг үзүүлэхийг хичээлээ.

Түлхүүр үг: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анхан шат, хүүхдийн дуу, дуу хөгжим, хичээлийн загвар, дуудлага, сонсох чадварыг сайжруулах

몽골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발음 지도 방안 연구 -몇 자음과 모음을 중심으로-

배.몽흐치매)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어의 발음 지도 방안
 1. 자음의 발음 지도
 - 가. /ㄹ/ 발음 지도
 - 나. /ㅇ/ 발음 지도
 - 다. /ㄷ/ 발음 지도
 2. 모음의 발음 지도 방안
 - 가. /ㅡ/ 발음 지도
 - 나. w계 이중모음 지도
 - 다. /ㅣ/ 발음 지도
- III. 맺는 말
- 참고문헌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어를 배우는 몽골인 학습자들이 몽골어와 한국어의 음운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초급 단계에서부터 학습하기 어려워하는 한국어 발음을 찾아, 이를 쉽고 바르게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발음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몽골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특정 음운이나 음 연쇄를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두 언어의 조음점이나 조음 방식의 차이와 음 연쇄 구조의 차이 때문인데, 본고에서는 몽골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에 대하여, 어려워하는 이유와 그 발음의 조음 규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익히게 한 다음에 다시 그 발음의 앞이나 뒤에 오는 음소와의 연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발음 지도 방법을 삼았다.

한국어와 몽골어 자음,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비교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몽골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어와 몽골어에 있는 자음이지만 모국어 영향으로 잘 발음하지 않은 자음 중에서 /ㄹ/과 /ㅇ/을 선택하고, 한국어에는 있지만 몽골어에는 없는 받침소리 가운데 몽골인들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ㄷ/ 받침소리를 골라, 이들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음 중에서 몽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ㅡ/를 바르게 발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요, 이'를 혼동하여 인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바르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국어에는 있지만 몽골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w계 이중모음과 'ㅣ' 발음을 골라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과 전임강사

본고에서는 제시한 발음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발음의 방법에 대한 설명과 양 언어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고, 준비 연습과 단어 연습, 문장 연습으로 나누어 연습을 반복하는 방식을 따랐다. 반복적인 연습이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지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이 여러 번 반복하고 교사의 발음을 주의 깊게 따라하면 올바른 발음을 잘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본고가 몽골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몽골인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한국어, 발음, 발음지도, 몽골인 학습자

1. 들어가는 말

최근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몽골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교, 중학교, 유치원, 학원, 중소기업 등이 많아지고 있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이 보고에서는 몽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발음 지도 방안을 연구하고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움을 겪는 발음을 찾아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몽골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정확하지 발음 할 수 없는 음소를 예상하고 앞으로 몽골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초급단계부터 효과적으로 교수하고 한국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한국어의 발음 지도 방안

1. 자음의 발음 지도

가. /ㄹ/ 발음

한국어의 /ㄹ/ 발음을 발음할 때 먼저 한국어의 /ㄹ/의 대한 규칙을 설명하고 이 발음에 대한 차이와 공통점을 가르쳐야 한다. 몽골 학습자는 한국어 /ㄹ/ 발음을 몽골어 연음부호가 없는 л /l/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몽골인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받침으로 오는 경우와 /ㄹ/다음에 자음이 올 때 /ㄹ/의 경우 발음이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그래서 교육 할 때에는 몽골어 л /l/ 발음 뒤에 연음부호가 들어간 лб /l'/음소처럼 발음하게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발음하면 한국어 /ㄹ/으로 가까운 발음을 하게 된다. 둘째는, /ㄹ/이 종성과 초성에 연이어서 나올 때 /ㄹ/ 발음을 부드럽게 읽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빨리'라는 말을 몽골인 학습자는 [balri]라고 읽는 경우가 있다. 첫음절 /ㄹ/ 발음을 л - /l/로 다음 음절을 /r/로 읽는 편이다. 그래서 발음 준비연습과

발음 따라 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발음을 반복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몽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ㄹ/ 발음을 학습할 때에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짝은, 교사의 발음하는 발음을 듣기 활동을 통해 소리를 인식시키는 작업을 무엇보다 선행되도록 학습시킨다. 비슷한 소리를 구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교사가 두 소리가 다른 소리라는 것을 말해 주고 몇 번이고 한국어와 몽골어 /ㄹ/ 발음이 들어간 말을 구별하여 발음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두 소리가 차이가 남은 인식하게 해야 한다. 즉, 발음하기에 앞서 듣기를 통해 소리의 차이를 인식키는 것이다.

또 연습을 할 때는 준비연습과 단어연습, 문장연습 게임 등으로 통해 가르치면 좋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발음 지도 방안을 각각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음 사이에 있는 /ㄹ/ 발음을 위한 준비 연습이다. 1단계 준비연습을 통하여 낱말에 관련 조음기관의 긴장을 풀고 발음을 잘 하도록 위해 마련된 연습이다.

• 준비연습

1) 이리 이리 에레 에레
아라 아라 어러 어러
오로 오로 우루 우루

2) 이리 에레 아라 어러 오로 우루
우루 오로 어러 아라 에레 이리

다음은 모음 사이에 /ㄹ/가 들어 있는 단어연습이다. 2단계 단어연습으로 목표 발음을 연습한다. 교사가 항목에 대해 먼저 발음을 한 후 학생들에게 듣고 따라하라고 지도한다.

• 단어연습 1

1. 우리 오리 유리 거리 파리 요리 카레 미래
2. 사랑 여름 그림 바람
3. 가로수 마루 가로 도로 하루

다음은 받침 'ㄹ'이 모음 사이에 들어 있는 단어 연습이다. 이 연습은 받침으로 온 'ㄹ'에 대한 지식을 높여 주고 교수자를 따라 발음할 때 필요한 것으로 준비된 단어 연습이다.

• 단어연습 2

1. 물이 출입 며칠이에요 몽골에 서울에
2. 할아버지 들어가요 물어보다 발음 얼음
3. 동물원 혈압

다음은 단어들의 끝말잇기로 하는 연습이다. 재미있고 또 게임으로 통하여 /ㄹ/ 발음이 들어온 음절을 찾고 다음에는 입을 때 올바른 발음이 나올 수 있는지 교사가 확인 할 때 필요한 것으로 한다.

• 게임

보기의 단어를 사용해서 끝말잇기를 해 보세요.

드라마 → 미술 → → → → → →

-보기-

잔말	전철	말일	발전	일단	일일	일주일
월세	도로	세일	단발	철도	술잔	

다음은 모음 사이에 /ㄹ/가 들어 있는 문장 연습이다. 3단계에 문장연습을 통하여 단어연습에 제시되었던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 속에서 목표 발음을 연습하기 위한 문장연습이다. 단어와 문장에서 차이는 무엇인지 어떻게 발음 하는지를 살펴보고 따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문장연습 1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1.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르세요.
2.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3.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으신다.
4. 하루 종일 교실에서 공부를 해라.

나. /ㅛ/ 발음

한국어 /ㄴ/과 /ㅇ/처럼 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몽골어 h/n 은 다음에 모음이 오면 즉, r/g 와 x/h 자음이 오면 /ㅛ/으로 발음하는 것이고 이것은 몽골어의 경우 후설 h/n 이다. 몽골어 후설 h/n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없지만 한국어 /ㅛ/다음에 여러 가지 모음과 자음이 오는 경우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한국어 /ㅛ/ 이 받침으로 오는 것이 몽골어에는 없다. 그래서 몽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ㅛ/발음을 /ㄴ/으로 혼동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보여주고 /ㅛ/음소 특징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 또 발음을 따라 하기, 받아쓰기 등의 연습이 필요하다. 한국어 받침소리 /ㅛ/ 뒤에 여러 자음이 올 수 있지만 몽골어 경우 후설 h/n 다음에 항상 r/g 와 x/h 자음만 온다. 그래서 몽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ㅛ/ 다음에 /ㄱ/와 /ㅎ/자음밖에 다른 여러 가지 자음이 오는 경우에 /ㅛ/을 /ㄴ/으로 혼동하는 것이 많다. 몽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ㅛ/ 다음에 /ㄱ, ㅎ/ 자음이 오는 경우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발음한다. 이런 차이를 지도한 다음에 두 언어의 /ㄴ/과 /ㅛ/자음 차이를 잘 설명해 주고 연습시키고 발음을 반복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학습자들이 발음을 잘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ㅛ/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경우, 두 번째 /ㅛ/다음에 /ㄱ/과 /ㅎ/발음 밖에 다른 자음이 오는 경우이다. 그래서 지도방안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 연습을 제시하면 효과가 있는 학습이 된다.

다음은 받침소리 [ㅇ]발음을 위한 준비 연습이다. 몽골어에는 받침이 없어서 한국어의 받침으로 온 /ㅇ/발음을 잘 못한다. 그래서 먼저 준비연습으로 인하여 학습하면 좋을 것이다.

• 준비연습

1. 앙가	앙	웅가	웅	웅가	웅	잉가	잉	영거	영
2. 앙바	앙	웅바	웅	웅바	웅	잉바	잉	영바	영
3. 앙다	앙	웅다	웅	웅다	웅	잉다	잉	영다	영

다음은 받침소리 /ㄴ/과 /ㅇ/을 구별하기 위한 연습이다. /ㄴ/과 /ㅇ/의 소리 내는 자리를 혼동해서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 받아쓰기 연습

1. 항상, 동물, 친구, 생각, 인기
2. 동생, 냉장고, 종합, 동안, 싱싱한
3. 기온도, 학생, 선생님, 먼저

다음 단어들을 따라 해 보고 쓰는 것도 잘 보고 말의 뜻이 다른지를 설명해 주고 발음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을 파악할 때 필요하다.

• 단어 구별연습 3

- | | |
|-------|----|
| 1. 돈 | 동 |
| 2. 환금 | 황금 |
| 3. 산 | 상 |
| 4. 한반 | 한방 |
| 5. 장난 | 장남 |
| 6. 감전 | 감정 |

다음은 받침소리 /ㅇ/들어 있는 단어 연습이다.

• 단어연습

- | | | | | | |
|--------|----|----|----|-----|----|
| 1. 사랑과 | 공과 | 동물 | 항상 | 설렁탕 | 영화 |
| 2. 정성 | 전통 | 구경 | 고생 | 생일 | 양동 |
| 3. 통닭 | 간장 | 냉면 | 땅콩 | 구경 | 시장 |
| 4. 상품 | 선품 | 창피 | 상자 | 등산 | |

다음은 받침소리 /ㄴ/과 /ㅇ/이 들어 있는 문장연습이다. 받침으로 온 /ㄴ/과 /ㅇ/을 구별해서 발음하기 위한 학습이다.

• 문장연습

1. 긴장이 짜요, 된장이 짜요?
2. 동생이 똥똥해서 정말 귀여워요.
3. 지난번에 만난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4. 배낭과 우산을 가지고 여행을 하자.
5. 시간 나면 형과 같이 양동시장 구경할까요?

• 재미있는 발음 이야기

긴장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다. /ㄷ/ 발음

몽골인 학습자 한국어 /ㄷ/받침을 잘못 발음한다. 몽골어에는 받침소리가 없어 철자대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받침소리의 발음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제9항2)을 따라 이 규칙을 외우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규칙을 설명 한 후에 낱말을 제시하고 발음을 따라 해 보면 좋다. 또 여러 가지 연습 활동으로 익히는 것도 효과가 있는 활동이다. 구개음화 설명도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받침소리의 발음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제9항을 따라 이 규칙을 외우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학습자는 이 규칙으로 발음 할 수 있는 규칙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규칙을 설명 한 후에 낱말을 제시하고 발음을 따라 해 보면 좋다. 또 여러 가지 연습 활동으로 익히기는 것도 효과가 있는 활동이다.

다음은 받침소리 /ㄷ/이 들어 있는 단어 연습이다. 받침으로 온 /ㅅ, ㅆ, ㅈ, ㅊ, ㅌ, ㅎ/이 모두 /ㄷ/으로 발음된다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 단어연습 1

- | | | | | | |
|-------|----|---|------|------|----|
| 1. 빗 | 빗 | 빗 | 빗과 | 빗도 | 빗과 |
| 2. 낮 | 낮 | 낮 | 낮도 | 낮도 | |
| 3. 못 | 못 | 맛 | 못과 | 멋진 | |
| 4. 다섯 | 여섯 | | 다섯 시 | 여섯 시 | |
| 5. 끝 | 밑 | 솔 | | | |

다음은 받침소리 /ㄷ/이 들어 있는 문장 연습이다. 문장에서 /ㄷ/으로 발음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준비된 문장연습이다.

2)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비]으로 발음한다.

뒹다 [닥따]	키웁 [키웁]	키웁과 [키웁과]	웃 [웁]	웃다 [웁따]
있다 [읷따]	젓 [절]	빚다 [빔따]	꽃 [꼇]	꽃다 [꼇따]

• 문장연습

1. 이것이 낫지 않아요?
2. 꽃다발이 옷장 위에 있다.
3. 받침은 무슨 뜻을 해요?
4. 젓가락과 숟가락은 밥솥에 넣으세요.
5. 늦게 일어나는 버릇이다.

다음 읽기 연습은 /ㄷ/ 발음을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연습이다.

• 읽기연습

멋쟁이 솔뚜껑 옷장 뜻 뜻대로 꽃다발 받침
인터넷 햇빛 옷거리 어젯밤 있다 입맛

• 추가연습

1. 단어를 읽어 보고 발음을 써 보세요.
편지 () 국밥 () 접시 () 국수 ()
2. '꽃집'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① 꽃집 ② 꼰집 ③ 꼰집 ④ 꼭집
3. 밑줄 친 낱말의 발음을 써 보세요.
- 1) 말사위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
→
- 2)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빛자루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
- 3) 옷거리 밑에 신발장이 있어요.
→

2. 모임의 발음 지도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모음으로 /一, ㅛ, ㅟ,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를 들 수 있다. 먼저, 단모음과 자음의 학습이 끝난 다음에 이중모음을 지도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모음을 지도할 때는 한재영외(2005), 한국어 교수법에서 제시하는³⁾ 것으로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가. /-/ 발음

한국어의 /-/모음은 몽골어에는 없는 음소이다. 따라서 /-/를 발음해야 하는 경우엔

3) 한재영 외(2005:276) 모음을 지도할 때는 교사의 발음에만 의지해서 하는 것보다 각각의 모음을 발음할 때 입속에서 움직이는 혀의 모양이 어떤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림과,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와 높낮이와 입의 모양이나 벌리거나 다물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 수 있는 모음 사각도를 가지고 교육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발음 지도가 될 것이다. 또한 교사가 모음을 가지고 보고 따라하게 하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어야 한다.

/i/로 대체하여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의 경우 [기래서]로 발음한다. 몽골인 학습자들이 발음 할 때 제일 어려운 발음이다. 따라서 /ㅡ/ 발음을 지도 할 때 먼저 /ㅡ/모음은 /ɪ/소리를 낼 때와 아래턱이 거의 더 올라간 상태로 발음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 상태에서 아랫니가 조금 보일 정도로 입을 벌린다. 이 소리가 /ɪ/와 다른 점은 입술이 평평하다는 것이다. 즉, /ɪ/상태에서 입술을 옆으로 퍼서 발음하면 한국어의 /ㅡ/소리가 난다는 점을 지도한다. 그리고 혀의 뒤쪽에서 발음해야 한다는 것 또한 지도한다. 다음의 입모양 그림을 가지고 한국어 /으/ 음소를 발음하는 방법을 지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몽골어에 있는 /e[i]/발음으로 한국어의 /ㅡ/발음을 하면 비슷한 소리로 하게 되고 발음이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몽골어의 /e[i]/발음은 한국어에는 없는 음소이지만 한국어의 'ɪ'와 'i'의 중간 발음이다. 이 발음은 한국어 /ɪ/보다 입술을 작고 둥글게 말고 혀끝을 입 중앙에 위치해 발음한다. 그래서 한국어 /ㅡ/ 발음을 할 때 몽골인 학습자들이 몽골어 e[i]발음으로 하면 잘 따라 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로, /ㅡ, ɪ, i'는 모두 조음부의 위치가 혀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ㅡ/가 가장 뒤쪽에 위치하고 /ɪ/는 /ㅡ/보다 약간 앞쪽에서, /i/는 /ɪ/보다 약간 앞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구별해서 발음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발음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교수 방법이다. 여러 가지 연습으로 인하여 /으/는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발음해야하고 다른 모음들 차이는 무엇인지 구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정확히 발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

다음 연습은 입술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의해 변별되는 모음의 발음을 연습한다. 혀의 높낮이와 조음부의 위치에 의해서는 변별되지 않으나 입술의 모양이 달라짐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된다.

• 준비연습

- | | | | | | | | | | |
|------|---|---|---|---|------|---|---|---|---|
| 1. 으 | 어 | 아 | 스 | 시 | 2. 으 | 우 | 어 | 그 | 구 |
| 3. 으 | 오 | 이 | 그 | 고 | 4. 으 | 아 | 우 | 즈 | 지 |
| 5. 으 | 어 | 이 | 을 | 를 | | | | | |

다음은 /으/와 /이/를 구별하기 위한 연습이다. 대립되는 모음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읽으면서 발음의 차이를 구별한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입을 벌리는 정도를 구별해서 보여 주고 비교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몽골인 학습자는 한국어의 /으/를 혀의 앞쪽에서 소리 나는 /이/로 발음함으로써 어려움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연습으로 통하여 /ㅡ/와 /ɪ/음소를 구별할 때 도움이 된다.

• 단어 연습 1

- | | | |
|-------|----|----|
| 1. 사슴 | 사실 | |
| 3. 어른 | 어린 | 얼음 |
| 5. 다음 | 타일 | |
| 7. 다른 | 달인 | |

- | | | |
|-------|----|----|
| 2. 그림 | 기린 | 구름 |
| 4. 흙 | 힘 | |
| 6. 큰 | 김 | 금 |
| 8. 이름 | 이리 | |

다음은 /으/와 /이/가 들어 있는 문장 연습이다. 대립되는 모음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읽으면서 발음의 차이를 문장에서도 발음의 차이를 구별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한다.

• 문장연습

1. 지금부터 언제든지 음식을 잘 드세요.
2. 일층으로 내려가세요.
3.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요.
4.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이름을 써 보세요.
5. 잘 듣고 다음에는 쓰고 읽으세요.

나. w계 이중모음 발음

몽골어에는 한국어의 '가, 거, 게, 나, 너, 해, 나'와 유사한 발음이 존재하지 않고 특히 낱말의 첫음절에 '가, 거, 게, 나'로 시작하는 음소가 없어서 발음 할 때에는 글자의 모양을 보고 연이여 발음하기도 한다. 그래서 w계이중모음이 있는 말, 그중에 특히 w계 이중모음을 시작하는 말을 발음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w계 이중모음을 몽골인 학습자들에게 지도 할 때는 먼저 /가/ 를 발음 할 때 /ㄱ/+/ㄱ/로 발음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거/를 발음 할 때 /ㄱ/+/ㄱ/로 발음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게/를 발음 할 때 /ㄱ/+/ㄱ/로 발음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고, /나/를 발음 할 때 /ㄱ/+/ㄱ/로 발음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 밖에도 /너/를 발음 할 때 /ㄱ/+/ㄱ/로 발음하지 않도록, /해/를 발음 할 때 /ㄱ/+/ㄱ/로 발음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섞여 있는 실제 어휘를 이용하여 모음 익히기 연습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왜, 웨, 와, 워, 외, 위' 발음을 위한 준비 연습이다.

• 준비연습

- | | | | |
|---------|---------|---------|-------|
| 와 와 왜 | 워 워 워 | 외 외 왜 | 웨 웨 워 |
| 와 워 웨 워 | 워 웨 워 왜 | 웨 외 워 와 | |

다음은 소리가 비슷한 단어를 구별하는 연습이다.

• 단어연습

오염	위험	지식	좌석	왕	광	와요	와인
왼쪽	위쪽	법원	병원	생활	생과일	여관	여권
귀	뒤	위	취	원	권		

다음은 '와, 왜, 외'가 들어있는 단어 연습이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 단어연습

사과	과자	광고	관심	만화	영화
인쇄	열쇄	돼지	괜찮아	왜	
쇠	뇌	회	퇴근	회식	회색
					기획

다음은 '왜, 왜, 와, 워, 외, 위'가 들어 있는 문장 연습이다.

• 문장연습

1. 워층으로 뛰어서 가면 안 돼요.
2. 사과가 무거워서 들을 수 없어요.
3. 피 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봐야지요.
4. 여자 친구를 사귀면 괜찮아요.
5. 영화를 촬영한 후에 광고 내면 돼요?

이 밖에도 인터넷⁵⁾을 사용하고 이중모음의 발음을 들을 수 있고 따라 하는 연습도 있다.

다. /니/ 발음

한국어의 /니/모음은 몽골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할 때도 어려움을 겪는다. /니/음소는 발음 환경에 따라 [의], [이], [에]로 다르게 발음한다. 그래서 먼저 글자 /니/의 표준 발음 규칙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의]발음을 위한 준비 연습이다.

• 준비연습

- | | |
|--------------|--------------|
| 1. 으 이 으 이 의 | 2. 으 이 으 이 의 |
| 3. 의 의 의 의 | 4. 의 의 의 의 |

다음은 '의'가 첫 음절과 둘째 음절 이하에 들어 있는 단어 연습이다.

• 단어연습

- | | | | |
|-------|-----|-------|----|
| 1. 의자 | 편의점 | 2. 의견 | 주의 |
| 3. 의미 | 회의 | 4. 의심 | 동의 |

5) <http://www.zkorean.com/hangul/appearance>

다음은 조사로 사용되는 '의'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이다.

- 단어연습
- 1. 저의 집
- 2. 아버지의 고향
- 3. 우리의 선생님
- 4. 부모님의 덕분에

다음은 '의'를 [의], [이], [에]로 발음하는 문장 연습이고 발음 학습 전 교사는 '의' 발음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의, 이, 에]가 어떻게 소리가 나는 지 선행 학습 시켜준다.

- 문장연습
- 1. 의사선생님께 의료보험을 보여 주십시오.
- 2. 김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 보십시오.
- 3. 얼룩말 줄무늬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 4. 이 그림의 액자를 의자에 놓으세요.

또 위에 있는 연습을 다른 식으로 이용해 '의' 소리가 [의, 이, 에] 중 어떤 발음으로 나는 지에 대해 옆 여백에 써 보라고 한다. 또는 선생님이 선택지 번호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1.[의] 2.[이] 3.[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제시하면, 학생은 번호에 선택하겠다. 본인이 선택한 발음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하면 발음이 좋아진다. 아니면 다음과 같이 학습하면 좋은 지도가 된다.

Ⅲ. 맺는 말

본고는 몽골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한국어의 발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몽골인을 위한 효과적인 발음 교육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발음 오류는 모국어 간섭 등 여러 영향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한국어와 몽골어 음운 체계에서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두 언어 간의 서로 같은 소리, 비슷한 소리, 없는 소리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몽골어에는 한국어에 있는 모든 자음이 있지만 그 중에서 /ㄷ/-/ㄴ/, /ㅇ/-/ㄱ/, /ㄷ/-/ㄹ/ 발음을 몽골인 학습자들은 잘 따라 할 수 없어 잘 발음할 수도 없다. 나머지는 자음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자음들을 교수·학습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발음 지도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한국어 /ㅡ/모음을 /ㅣ/로 인식하고 바꿔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몽골어에는 한국어의 '가, 개, 기, 거, 게, 기, 해, 기'와 유사한 발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몽골어는 받침, 한자, 된소리, 음운 변화규칙 'ㄷ, 르, ㅅ, 으, ㄹ, 비'등 불규칙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발음 지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연구는 한국어 몽골인 초급 학습자들의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 도움이 되고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몽골인에게 한국어 발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발음 지도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앞으로 몽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발음 교육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더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된 연구로 이어진다면 더 나은 발음 교육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교육 방법이 실현을 통해 본 연구를 더욱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정기간행물

- 김정효(2008). 「몽골인 한국어 학습의 음소 인지 오류에 대한 고찰」. 몽골국립대학교 『한중인문학연구회』. Vol.24.
- 전나영(2008).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문제와 교수 방법」. 『한국문법교육회』. Vol.8.
- 성비락(2002). 「몽골어와 한국어의 단모음 비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Vol.13. No2.
- 성비락(2005).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학회발표집 『한말연구학회』. Vol.22.
- 성희제(2003). 「한국어 초기 학습자를 위한 음운 교육」. 한국어문학. 『한국어문학회』. Vol.50.
- 최기호(2007).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문법교육. 『한국문법교육학회』. Vol.6.

단행본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혁민(2010). 『아름다운 한국어 1-1 교재』. 한국어교육개발연구원.
- 김기성(2002). 『현대 몽골/한국어 회화. 연락』.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이현복(1998).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5). 『한국어 발음』. 연세대학교.
- 유원수(2006). 『몽골어 첫걸음』. 삼지.
- 최기호(2006). 『몽골어 문법과 회화』. 동광출판사.
- 최은규(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1,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한재영 외(2003). 『한국어 발음교육』. 한림.
- 허용-오문경(2005). 『즐거운 한국어 수업을 위한 교실 활동 100』. 박이정.
- 허용-김선정(2006). 『외국어로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학위논문

김은경(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음운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
Dashdorj, Sainbiligt(2005).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연구」.

누리집

몽골스쿨닷컴 <http://www.mongolschool.com>.
zkoreancom <http://www.zkorean.com/hangul/appearance>

자료

단국대학교(1996). 『현대 몽골어·한국어 사전』. 출판부.
몽골국립대학교(2005). 『한·몽 사전』. 서울사무소.

외국 자료

Baysgalan.R·Tumen.B(1997). 『English-Mongolian, Mongolian-English Economics Dictionary』. Ulaanbaatar.
И Гэ Шим(1998).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авиа зүй』. УБ.
Ж. Цолоо(1976).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авиа зүй』. УБ.
Ж. Надмид(1993).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авиа зүй』. УБ.
Ж. Санжаа, Ж. Надмид(2003). 『Монгол хэлний авиа зүй ба авиалбар зүй』. УБ.
Ц. Баярмаа(1999) 『Монгол хэл』. УБ.
С. Шагдарсүрэн(1981). 『Монгол үсэг зүй』. УБ.
С. Мөөмөө, Ю. Мөнх-амгалан(1984). 『Орчин үеийн Монгол хэл аялгуу』. УБ.
ШУ-ны академи 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н(1966).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зүй』. УБ.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анхлан суралцагч монгол хүнд зориулсан
зөв дуудах зүйн заах аргын судалгаа
-зарим нэг гийгүүлэгч, эгшгийг онцлон**

[Хураангуй]

Б.Мөнхчимэг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гаараа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анхан шатны мэдлэг эзэмшиж байгаа монгол хүнд зөв дуудлага зүйн тал дээр бэрхшээлтэй тулгардаг асуудлыг олж илрүүлэх, монгол ба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зөв дуудах зүйн зарим нэгэн ялгааг онцлон авч үзсэнээр цаашид зөв хялбар аргаар сурах аргачлалыг олохыг зорьсон болно.

Монгол хү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онцлог тал болох авиалбар, авиаг зөв дуудахад тулгардаг бэрхшээл юу болохыг тус хоёр хэлний авиа зүйн бүтэц, хэлэгдэх байршил, бүтцийн ялгаа, зүй тогтлын ялгаатай талыг харуулсан ба монгол хүн уг авиалбарыг дуудахад тулгардаг бэрхшээлүүдийг илрүүлж, монгол хүн ойлгоход хялбар аргаар тайлбарлаж, зөв дуудлагатай болохын тулд ашиглагдах дасгал ажлуудыг орууллаа.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гийгүүлэгч үсэг, дан ба нийлмэл эгшгүүдийг харьцуулан судалснаар тухайн хоёр хэлний ижил төстэй ба ялгаатай талыг харуулж монгол хүн уг авиалбарыг дуудахад тулгарч байгаа бэрхшээлтэй талыг илрүүлж цаашид ямар аргаар энэхүү бэрхшээлийг даван туулах арга замыг харуулсан болно. Ингэхдээ нэгдүгээрт солонгос ба монгол хэлэнд хоёуланд нь байдаг гийгүүлэгч боловч эх хэлний нөлөөнөөс болоод сайн зөв цэвэр дуудаж чаддаггүй /р, л- ㄹ/, /нь-ㅇ/ гийгүүлэгчийг сонгож, дэвсгэр үсэг /д-ㄷ/ хэлэгддэг авиаг онцлон авсан. Мө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ый-ㅣ/ авиаг сайн дуудаж чаддаггүй төдийгүй /йо-ㅛ/, /йү-ㅠ/ авиаг хольж андуурч дууддаг асуудлыг хөндөж эдгээрийг заах аргыг харуулж, нийлмэл эгшгүүдийг онцлон авч үзсэн.

Заах аргачлалыг дараах байдлаар харуулсан болно. Үүнд эхлээд тухайн авианы талаарх тайлбарыг хоёр хэлний ялгаатай ба төстэй байдлаар харуулж, бэлдэх дасгал, үгийн дасгал, өгүүлбэрийн дасгалуудыг ажилласнаар үр өгөөжөө өгсөн заах арга зүйд тустай сургалт болно хэмээн үзсэн. Суралцагчид багштайгаа хамт олон дахин дуудлагаа давтан сайжруулснаар зөв дуудаж сурна.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ны ажлыг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эхлэн сурч байгаа монгол хүнд зориулсан зөв дуудах зүйн сургалтын үндсэн гарын авлага болгон ашиглах боломжтой бөгөөд солонгос хэл сурч байгаа монгол хүн бүрт хэрэгтэй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 болж ашиглагдана гэдэгт найдаж байна.

Түлхүүр үг: Солонгос хэл, дуудлага, зөв дуудах зүйн заах арга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어휘 교육의 중요성

- '남(男)/여(女)' 형태소에 의한 신조어 형성을 중심으로 -

별리러!!

목차

1. 서론
2. '남(男)/여(女)' 형태소에 의한 신조어 형성법
3.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한 어휘 교육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 신조어 어휘 교육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시작으로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男)/여(女)'를 지칭하는 신조어²⁾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어휘들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단어형성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물론 문화현상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본고는 한국어 신조어의 일부인 남성 및 여성을 지칭하는 어휘와 관련된 한국 문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습자들의 학습 목표 및 필요에 따른 신조어 선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주제어: 한국어 문화 교육, 단어형성법, 신조어, 신조어 교육, 한국어 교육

1. 서론

어휘는 그 나라의 문화적 요소와 사회적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훌륭한 매개체이다. 한 집단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을 통해 그 집단 구성원들의 사고방식, 세계관, 그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 어휘들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풍부한 언어활동을 하고, 언어의 경제성도 높일 수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

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2) 표준국어대사전(1999): 신어 및 신조어는 새로 생겨난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를 가리킨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신어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신어 중 일부는 표준어로 인정되어 사전에 등재되기는 하지만 유행이 지나면 사용되지 않아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어휘들은 이와 같이 훌륭한 문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크지만 한정된 집단 내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세대 간의 차이를 확대시키거나 혹은 충분한 의사전달에 장애를 초래하는 단점도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 신조어 어휘 교육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시작으로 본고는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男)/여(女)'를 지칭하는 신조어³⁾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 이들 어휘(女)를 지칭하는 어휘들을 선정한 까닭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들 어휘들을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어휘들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지니고 있는 의미 또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단어형성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물론 문화현상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성구별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소인 '남(男)/여(女)'에 의해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어휘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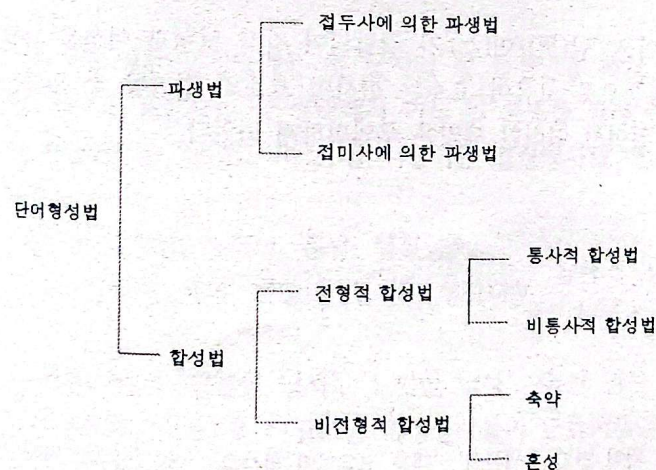
둘째, 이들 어휘들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남(男)/여(女)'를 지칭하는 어휘들의 형성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해서 어휘교육이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2. '남(男)/여(女)' 형태소에 의한 신조어 형성법

본고는 한국어 문법론에서 다루는 단어형성법을 바탕으로 '남(男)/여(女)' 형태소에 의한 신조어 형성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1> 한국어 단어형성법(고영근·구본관, 2008)



3) 표준국어대사전(1999): 신어 및 신조어는 새로 생겨난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를 가리킨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신어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신어 중 일부는 표준어로 인정되어 사전에 등재되기는 하지만 유행이 지나면 사용되지 않아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본고는 신조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 구별 요소 '남(男)/여(女)'를 벨리리(2009)의 한자어 접사 판별기준에 따라 각각 접사가 아닌 접사성이 강한 접두어근 및 접미어근⁴⁾로 처리하였으며, '남(男)/여(女)' 형태소에 의한 합성법을 전형적인 합성법과 비전형적인 합성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2.1. '남(男)/여(女)' 형태소에 의한 전형적인 합성법

'남(男)/여(女)+1음절 및 2음절 한자어'

- 1) ㄱ. 여간수, 여경찰, 여교사, 여교수, 여기자, 여군
 ㄴ. *남간수, *남경찰, *남교사, *남교수, *남기자, *남군

예문(1)은 한자어 접두어근 '여(女)'에 1음절 및 2음절 한자어가 붙어 여성을 지칭하는 합성명사를 이룬 예이다. 이들 합성명사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을 가리키는 어휘들로 남성을 지칭할 때 무표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여성을 지칭할 때 접두어근 '여(女)'의 수식을 받아 유표적으로 나타난다. 남성을 지칭하는 어휘들이 이와 같이 무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남(男)'이라고 따로 수식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남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개념이 대중들 사이에 이미 고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승무원, 남선생' 등의 어휘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어휘들이 평등하게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유어+남(男)/여(女)'

- 2) ㄱ. 몸짱남, 닭살남, 털남
 ㄴ. 몸짱녀, 된장녀, 닭살녀, 김치녀, 간장녀

예문(2)은 고유어 어간에 한자어 접미어근 '남(男)/여(女)'가 결합되어 각각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어휘들이 만들어진 경우이다. 전통적으로 고유어 요소는 한자어 요소와 결합할 수 없다는 형태론적 제약이 있지만 신조어 형성에 있어서 이러한 제약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외래어+남(男)/여(女)'

- 3) ㄱ. 매너남, 버터남, 싱글남, 헌팅남, 스폰남
 ㄴ. 매너녀, 버터녀, 싱글녀, 헌팅녀, 스폰녀

4) 벨리리(2009)는 접두 한자어의 판별 기준에 '의미 변화', '생산성', '대응 고유어의 접사성', '어기 범주의 변화', '고유어 결합 가능성'이 있으며, 접미 한자어의 판별 기준에는 '의미 변화', '생산성', '어기에 대한 의존성', '어기 범주의 변화', '조사 결합과의 제약', '단어의 첫음절에 출현 불가', '단어 이상의 어기에 결합 가능', '비자립성', '명사 수식 가능', '결합 순위' 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남(男)/여(女)'는 생산성이 인정이 되나 그 외의 한자어 접사의 판별 기준들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남(男)/여(女)'를 접두어근 및 접미어근으로 처리하였다.

예문(3)에서는 외래어 어간에 한자어 요소 '남(男)/여(女)'가 결합되어 각각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어휘들이 형성되었다. 한국어 전통문법에서는 한자어 요소들만의 결합이 허용되었지만 신조어 사용이 늘면서 한자어와 고유어는 물론 한자어와 외래어 요소의 결합도 가능하게 되었다.

2.2. '남(男)/여(女)' 형태소에 의한 비전형적인 합성법

2.1.1. 혼성에 의한 합성법

혼성(blending)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 적합한 말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의미 성분에 해당하는 각 어휘의 일부를 섞는 단어 형성 방식이다. 혼성 방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어휘들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4) ㄱ. 돌싱남(돌아온+single+남), 썸남(something+남)
 ㄴ. 돌싱녀(돌아온+single+女), 베이글녀(baby face+glamour+女),
 썸녀(something+女).

예문(4)는 혼성에 의해 만들어진 '남(男)/여(女)'를 지칭하는 합성명사들이며, 이때 합성어를 이루는 어휘소의 앞뒤가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결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썸남/썸녀'는 (something+남(男)/여(女))로 사귀기 전에 약간의 좋은 관계에 있는 남녀를 이르는 말로, '썸을 타다', '썸남 심리 알아내기', '썸남 고백', '썸남 카톡' 등의 관련된 어휘들이 수 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썸마렐라(아줌마+Cinderella)'와 '머스(man+nurse)' 등의 어휘들이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머스(man+nurse)'는 원어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고, '썸마렐라(아줌마+Cinderella)'는 적극적인 성향에 경제적인 능력까지 갖춘 아줌마이지만 신데렐라처럼 아름답고 진취적인 기혼여성을 일컫는 말이다⁵⁾.

2.1.2. 축약에 의한 합성법

축약에 의한 합성법에는 첫 글자의 첫 음절만을 따서 부호처럼 간단히 만들어 쓰는 '머리음절형' 방식과 결합하는 각 형태에서 어느 한 요소를 잘라 만드는 '자름형' 방식이 있다⁶⁾. 축약에 의해 만들어지는 '남(男)/여(女)'를 지칭하는 합성명사의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ㄱ. 짤끔남, 느끼남, 혼남, 찜칠남⁷⁾
 ㄴ. 짤끔녀, 혼녀, 빵빵녀, 찜녀⁸⁾, 생강녀⁹⁾

예문(5)에서 '짤끔한 남자', '느끼한 남자', '혼한 여자', '찜한 여자' 등과 같이 구나 절이 축약되어 '남(男)/여(女)'를 지칭하는 합성명사들이 만들어졌다. 문법 규칙 및 체계적인 학습에 익숙한

5) 매일경제(2008년 1월 11일): '골드 미스 다이어리' 기사.

6) 임지룡(1997)

7) 신어(2008): 지하철 파위에서 신문을 펼쳐고 읽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남자를 이르는 말.

8) 신어(2008): 남자에게 자기 어지라고 선택당한 어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9) 신어(2013): 생활력이 강한 여자를 일컫는 말.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별한 규칙이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신조어 어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교육태도가 필요하다.

3.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한 어휘 교육

3.1. 어휘 교육의 중요성

언어는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그 시대의 문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나라의 문화배경 및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어휘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영영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목표어의 다양한 어휘를 통해 목표어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동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학습자들은 본고의 제2장과 같이 신조어의 형성법의 원리와 규칙을 알게 되면 수많은 새로운 어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며,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언어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목표어에 대한 문화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어의 문화적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학습자는 모국어의 사고방식에 의하여 그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는 의사소통 과정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하나의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현대사회의 모습과 문화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어휘들을 통해 한국 문화의 중요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으므로 외국인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해 어휘 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 생겨나는 말 즉 신조어는 한국어 어휘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회적 요소 및 문화현상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한국어 언어·문화교육을 위해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중요한 교육대상이다. 교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썸남/썸녀', '몸짱남/몸짱녀', '훈남/훈녀' 등의 신조어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여 단어형성의 기본적인 규칙은 물론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문화현상 등을 가볍고 재미있게 알려줌으로써 한국어 문화 및 어휘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도 한국 젊은이들이 널리 사용하는 다양한 어휘를 똑같이 접하게 되면서 한국 젊은 층의 문화 및 사고방식의 트렌드를 쉽게 파악하게 되며, 더 나아가 목표어 화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역사와 시대 흐름에 따라 해당 어휘의 상징적 의미가 확대되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는 이들 어휘들을 통해 한국의 특정 시대의 역사, 사회, 문화적 특성을 학습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줌마'는 과거에는 억척스럽고, 수다스럽고, 아름다움의 상실의 통용적인 이미지가 강하였는데 이는 가난함 속에서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해야 했던 한국 어머니들의 모성애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통용되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들인 '썸마렐라', '골드미스' 등을 이용하여 교사는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학습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3.2 문화 현상에 따른 어휘의 의미 변화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문화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휘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를 뒷받침하고자 '남(男)/여(女)'를 지칭하는 어휘를 통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한국 문화의 중요한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은 옛날부터 남성 중심의 사회적 제도가 깊이 자리를 잡은 나라로 남자에 대한 우월감과 여자와 소인은 가까이 하지 마라',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 패야 한다' 등의 속담에서 표현될 정도로 남녀차별이 매우 컸다. 이러한 남녀에 대한 차별인식은 한국어 단어형성 과정에서 예외가 아니었으며, 예문(1)과 같이 여성을 가리키는 합성어들이 '여교사', '여교수', '여군' 등으로 유표적으로 나타나고, 남성을 가리키는 합성어들은 무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ladies and gentleman'은 한국어에서는 '신사숙녀 여러분'으로 나타나며, 이와 비슷한 '신랑신부', '남녀평등', '남녀갈등', '남녀관계' 등의 남성을 지칭하는 형태소가 앞서는 수많은 어휘들이 존재한다. 즉, 한국어에서 '신부신랑', '여남평등', '여남관계', '여남귀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녀에 대한 이러한 차별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여성을 지칭하는 신조어 합성명사들은 아무런 제약 및 차별 없이 동등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자어 요소가 고유어 및 외래어 요소와 결합할 수 없다는 한국어 전통문법의 형태론적 제약마저도 '몸짱남', '된장녀', '매너남', '베이글녀'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져버렸다. 이와 같이 단어형성뿐만 아니라 어휘가 지니는 통용적인 의미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아줌마'는 억척스럽고, 수다스럽고, 무례하고, 질보다 양에 관심이 많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여성의 이미지가 강하였으나 '줌마렐라'와 같은 어휘가 등장하면서 이와 같은 '아줌마'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비슷한 예로 높은 학력과 경제적 능력을 갖춘 중년의 여성을 이르는 '골드미스(gold+miss)'를 들 수 있는데, 이 어휘가 등장하기 전에는 결혼 적령기를 지난 미혼 여성을 일컫는 말인 '올드미스(old+miss)'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변화에 따라 긍정적으로 의미가 바뀐 어휘들도 있지만 요즘 젊은 여성들의 의존적이고, 물질문명을 지향하는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생겨난 어휘들도 있다. 예문(2, 3)의 '김치녀', '된장녀', '스폰녀'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과거에는 가정을 이끌고, 힘과 권력을 가진 인물로 남자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변모시켜 줄 여자를 기다리는 심리적인 의존 상태를 지닌 남성을 일컫는 말인 '온달 콤플렉스'나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마마보이' 등의 어휘들이 수없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과거 한국 남성들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가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였다는 증거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단어형성에 관한 변화

과거	현재
무표적/ 교수	동등/ 남승무원, 남선생
유표적/ 여교수	

'한자어+한자어' 또는 '고유어+고유어' 형태만 가능/ 여교사/여교수	둘 다 가능/ 여교사/여교수
'고유어+한자어' 형태 불가능	'고유어+한자어' 형태 가능/ 털남, 몸짱녀
'고유어+외래어' 형태 불가능	'고유어+외래어' 형태 가능/ 싱글남/ 씬녀

[표2] 어휘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변화

아줌마 혹은 중년여성	과거	현재
① 사전적 의미 (또는 통용 의미)	'아주머니'를 친근하게, 또는 낮 추어 이르는 말	'골드미스' - 높은 학력과 경제적 능력 을 갖춘 중년의 여성. '쥬마렐라' - 적극적인 성향에 경제적인 능력까지 갖춘 아줌마이지만 신데렐라 처럼 아름답고 진취적인 기혼여성.
② 상징적 의미	- 강인함과 긴 생명력 - 교양 없고 억척스러움 - 자유분방한 행동과 수다스러움 - 아름다움의 상실	- 높은 학력 - 경제적 능력 - 신데렐라처럼 아름답고 자기 자신을 꾸밀 줄 앎. - 적극적인 성향
③ 도상		

4. 댕컴말

본고에서는 남성 및 여성을 지칭하는 '남(男)/여(女)' 형태소에 의해서 신조어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 보았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목표어 화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어를 구사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가려져 있는 한국문화의 배경 및 사회변화 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즉, 수많은 어휘들 중에서 남성 및 여성을 지칭하는 몇 개의 어휘만 살펴봐도 옛날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어휘 형성에 미친 영향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가부장적 제도가 약화된 것이 남성 및 여성을 지칭하는 어휘들이 동등하게 생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더 많은 신조어들이 형성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신조어의 일부인 남성 및 여성을 지칭하는 어휘와 관련된 한국 문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습자들의 학습 목표 및 필요에 따른 신조어 선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어 본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국립국어연구원, 『2005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2005.
- 국립국어연구원, 『2008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2008.
- 국립국어연구원, 『2013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2013.
- 구현정, 「남·여성형 어휘의 사회언어학적 의미」, 『어문학 연구 3집』, 상명여대, 1995.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201쪽.
- 김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2003: 21쪽.
- 김정은, 『현대 국어의 단어형성법 연구』, 박이정, 1994.
- 김창섭,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1996.
- 김다운, 『발칙한 신조어와 문화 현상』, 작가, 2008.
- 김지훈, 『골드미스 다이어리』, 매일 경제, 2008년 1월 11일.
- 민현식,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34』, 숙명여대, 1995:15~16쪽.
- 민현식, 「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5』, 1998.
- 별러러, 「남성명사와 여성명사의 단어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9~30쪽.
- 박현주, 「현대 한어 신조어를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 연구: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소라, 「한국어 남녀 언어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송덕수, 『현대사회와 여성』,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4.
- 유창돈, 「여성어의 역사적 고찰」, 『아세아여성연구 35』, 숙명여대, 1996.
- 유호, 「한·중 생활분야 신조어 비교 연구: 사회 문화적 양상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임지룡, 『인지의미론』, 새말의 창조, 1997.
- 이효정,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홍지용, 「신조어의 형성 양상과 교수 학습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The importance of lexical education for teaching Korean culture

- Based on word formation by gender morphemes

Ulziitogtokh Bolor-Erdene

<Abstract>

In this study, recent trends in Korean word formation based on formation of neologism by gender morphemes were analyzed, and the significance of teaching neologism for Korean cultural education was discussed.

To clarify the necessity of teaching neologism in Korean cultural education for foreigners, formation methods of new words related with gender among Korean young generations were studied.

As Newly coined words related with gender are clearly reflecting cultural phenomena, teaching the new words is meaningful to Korean language learners.

*Key words: Korean cultural education, word formation, neologism, teaching neologism, Korean language education

고려와 원나라의 문화교류

아마르타이방¹

목차

1. 머리말
2. 고려의 대외교류 및 원나라와의 교류
3. 원대 고려의 문화
4. 고려와 원나라의 문화교류
5. 맺음말

[국문초록]

고려시대의 대외교섭은 왕조가 지속한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은 주로 동아시아 대륙에 존재했던 여러 국가들 즉, 송 요 금 원 등이었다. 교섭의 방식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모두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려문화재 중에서 도자기, 불교문화재(불상, 불탑, 불화), 회화(그림), 공예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문화재는 뛰어난 아름다움과 독특한 특징 때문에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몽골은 우랄알타이어를 사용하고 인종적으로도 한국인과 유사점이 많다. 게다가, 몽골이 고려를 지배한 80여 년간 양국의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어 그 풍속에서도 비슷한 점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신발이나 버선 등에 코가 서 있고, 천의 구김살을 펴기 위해 인두를 사용하는 것이 괄목할 만하다.

결국 고려시대의 문화교류는 주변의 나라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되었다. 이를 확실하게 밝힐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하지 않지만 현존하는 문화재와 역사기록들을 통해서 고려시대의 대외교섭과 문화교류, 특히 원나라와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였고, 고려와 원나라가 상호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700백여 년간 거의 단절된 상태였다가 1990년에 수교를 맺음으로써

¹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과 전임강사

다시 회복된 한국과 몽골의 교류가 나날이 발전하고 활발해지는 가운데 양국의 문화교류를 더욱더 충실하게 이어 나가기 위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주제어 : 문화교류, 대외교류, 고려의 문화, 원나라의 문화, 원나라와의 교류

1. 머리말

고려시대의 대외교섭은 왕조가 지속한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은 주로 동아시아 대륙에 존재했던 여러 국가들 즉, 송 요 금 원 등이었다. 교섭의 방식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모두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고려문화재 중에서 도자기, 불교문화재(불상, 불탑, 불화), 회화(그림), 공예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문화재는 뛰어난 아름다움과 독특한 특징 때문에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이런 특징이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도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몽골은 우랄알타이어를 사용하고 인종적으로도 한국인과 유사점이 많다. 게다가, 몽골이 고려를 지배한 80여 년간 양국의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어 그 풍속에서도 비슷한 점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신발이나 버선 등에 코가 서 있고, 천의 구김살을 펴기 위해 인두를 사용하는 것이 괄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고려의 대외교류 및 원나라와의 교류, 그리고 원대 고려의 문화, 고려와 원나라의 문화교류 등을 살펴보고, 당대 사회와 풍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고려의 대외교류 및 원나라와의 교류

고려의 대외교섭은 중국대륙의 여러 국가들과 이루어졌으며 교섭은 약간의 기복과 단절이 있었지만 대체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대상은 한족(漢族)이 세운 송과 몽골족의 원이 두드러졌지만 거란족이 세운 요와의 교섭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 대륙과의 활발한 교섭에 비하면 일본이나 기타 국가와의 교섭은 거의 두드러진 것이 없었다.

11세기를 전후해서 활발히 이루어지던 대외교섭은 12세기 중반이 되면서 크게 침체되었다. 그 이유는 주로 칭기스칸에 의해 주도된 몽골족의 침략 때문이었다. 이때 고려는 무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무인정권은 1170년부터 거의 1백년간 고려를 지배했다. 이 기간 동안에 고려는 대외교섭을 억제하는 대신 민족주의적 자주성을 크게 강조했다.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는 30년에 걸친 항쟁을 하다가 1270년에 고려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다. 이때부터 약 80년간 고려는 원으로부터 직접적이고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간섭을 받게 되었다.

2.1. 고려의 대외 교류

고려 때는 국제 교역이 매우 활발하였고, 고려 전반기에 고려와 가장 빈번하게 교역한 나라는 송나라였다. 고려는 송에 주로 금은 세공품·모시·인삼·화문석·나전칠기·종이·붓·벼루 등을 수출하였다. 특히 송나라에 수출한 고려의 종이는 아름답고 질겨서 무역항 주변은 물론 중국 내륙 지방까지 유통되었다. 반면 송으로부터는 비단·옥·차·향료·약재·서적·악기·화폐·상아공작 등을 수입하였다. 거란과의 교역은 송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였고, 고려가 거란에 수출한 품목은 북방 유목민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금·은·동 등 귀금속과 면포·화문석 등의 공예품 문방용품 및 인삼 등이고, 거란에서 수입한 물품은 고려에서 나지 않는 말·양·비단 등이었다. 거란이 물러간 뒤 교역 대상은 금나라로 바뀌었고, 고려는 은화·면포·비단 등을 금에 수출한 반면 금·말·화살·철갑옷 같은 군수품과 담비가죽·족제비털 등 유목민 특산품을 수입하였다. 한편 아라비아 상인들이 방문한 사실이 『고려사』에 세 차례 기록되어 있고, 코레아(COREA)라는 나라 이름이 서방에 알려진 것도 바로 이때 고려를 왕래했던 이들 아라비아 상인들이 널리 전파한 결과였다. 일본과의 교역은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당시 국제 교역은 해로를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개경에 이르는 관문인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는 국제항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고려후기는 주로 원과 교역하였다. 고려는 원과 단일한 경제권에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을 통해 세계시장과 연결되었다. 원과의 무역은 국왕의 원 방문 또는 사신 교환, 상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고려는 금은 세공품과 자기·직물류·가죽·인삼을 수출한 반면 원으로부터 금·은·비단·목면 등을 들여왔다. 국제교역의 성행은 고려의 국내 경제를 활기치게 만들고, 고려의 국제적 위치를 높이

는 데 기여하였다. 고려도 정착문화로서의 장점을 발휘하고, 다양한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나
리였다.

2.2. 고려와 원나라의 교류

1270년, 강화에서 개경을 환도한 이후 고려는 원의 간섭 아래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70여 년
동안 원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두 나라 사이에 문화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원 간섭기에
고려가 입은 피해는 엄청났다. 원은 각종 명목을 붙여 엄청난 물품을 요구하였는데 금·은·모시·자기
에서 인삼과 잣·곰가죽·호랑이가죽·매에 이르기까지 온갖 귀한 물품을 거두어 갔다.

고려의 왕은 대개 즉위 전에 원의 수도 대도에서 지내면서 원의 공주와 결혼했고 왕이 된 후에
도 자주 원에 들어가곤 했다. 또 재위 중에도 종종 대도에 머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때에는 여러
명의 신하들이 대동하게 마련이었다. 일반관리들이나 승려들의 왕래도 다른 어느 시기보다 활발했
다.

몽골족이 지배한 원은 지배력이 미치는 곳에서 여러 지역 사람들을 수용했다. 그 결과 대도는 여
러 민족 문화가 혼재된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대도
에 체류한 고려의 왕이나 사신들 및 승려들이 귀국하면서 적지 않은 외국의 문화적 영향을 고려 사
회에 남겼음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원의 정치 간섭을 받던 80여 년은 고려가 가장 직접적으로 외
국의 영향을 받은 시기였다.

공민왕이 즉위하고 원의 세력이 사라지자 고려 사회에서 원의 영향은 급속도로 무너졌다. 이미
무인정권 때부터 싹텄던 원에 대한 적대감과 민족의 자주의식은 원의 멸망에 따라 더 확산되었다.

다음은 고려와 원나라의 교류의 대표적 예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2.2.1. 가축

고려에서는 가축이 널리 사육되었다. 소·말·돼지·개·닭 등을 주로 길렀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사
역하거나 식용을 위한 부업을 사육하였다. 정부의 관서에서 사육 관리하는 가축류는 주로 말이었다.
말은 사람이 타는 데 쓰였다. 고려에는 10여 개 가량의 목마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제주도의

목장은 규모가 컸다. 이곳은 원나라에 의하여 관리되어 많은 몽골말이 방목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 목장에 대한 원나라의 간섭과 형포는 심했지만, 그렇게 시달리면서 고려인들의 목마기술은 더 좋아지고, 품종의 개량도 있었을 것이다.

고려에서는 또 귀족들의 관상용 동물로 진귀한 외국산 동물들이 수입되어 사육되었다. 고려에 온 사신들이나 무역상들은 앵무새 공작 물소 등 동물을 왕실에 헌상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여러 번 나타난다.

목축과는 조금 다르지만 또 한 가지 사육된 동물이 있다. 사냥에 쓰이던 매를 기르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에서는 매를 잘 길렀다. 매사냥이 유행하고 있었기는 했지만 그보다도 원이 늘 요구했던 해동청 즉 매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해지기도 했다.

2.2.2. 의약품

원나라와의 의약의 교류는 충렬왕 때에 특히 활발했다. 『고려사』에 의하면 원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이름 있는 의사를 보내왔고, 또 고려에서는 충선왕 때 원나라의 초청으로 명의를 보내기도 했다. 약품의 교류는 더 활발했는데 충렬왕 때만 해도 20차례나 되는 교류가 기록에 나타난다. 고려에서는 그 전에 송나라에 보냈던 것처럼 인삼·송자·목과·향차 등을 보냈다. 그리고 원나라에서는 주로 향약과 포도주가 수입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교류는 주로 두 나라 왕실의 병을 고치기 위한 왕래로 이루어져, 전기에 송나라와 있었던 것같이 폭이 넓지는 못했다.

원나라에서 고려에 들어온 의약품 중에서 알콜류는 주목할 만하다. 알콜은 소주의 형태로 고려말에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소주를 아라기주라고 부르던 것은 알콜의 아랍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려사』에는 공민왕 때 경상도 원수가 부하 장병들과 소주를 즐겼다는 기사가 있다. 소주라는 말은 양조주와 다른 증류주를 불을 때서 증류하여 만드는 술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소주를 증류하여 만드는 기구인 소주고리는 아랍 사람들이 쓰던 알콜 증류기와 아주 비슷하다. 알콜은 그 증류법과 함께 원나라를 통해서 고려에 들어오고, 그것은 소주라는 새로운 술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고려의 의학기술은 자주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2.2.3. 불화, 불교조각

고려 후반기는 무신란 이후인 1170년경부터이지만, 원과의 교류는 이보다 1세기 후인 1270년 원과의 화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경승들이 경을 제작하고 변상도를 그린 예들이 여러 점 나타나고 있다. 호암미술관 사경, 호림미술관 사경, 일본 사경 등 여러 점이 원에 파견된 고려 사경승들의 작품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런데 충신왕 2년(1310)부터는 불화를 원에 보내고 있다. 충신왕 2년 12월에 불화를 원에 보낸 것을 시발로 충숙왕 후 원년(1332)과 충혜왕 2년(1341), 그리고 말년 등에 걸쳐 불화들이 원에 보내지고 있다. 또한 원은 불경종이나 불경들도 구해갔는데, 가령 충숙왕 후 7년(1338)에 불경종이를, 충혜왕 후 원년3월에는 불경을 구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거의 모든 고려불화는 13세기말부터 고려말까지 제작된 것으로 원과 화친을 맺은 이후의 작품들이다. 이들은 남송말 내지 원대 불화와 친연 관계가 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종 18년(1231)에 있었던 몽골의 제1차 침입 이후 고종 46년(1259)까지 거의 30여 년에 이르는 도록 6차례에 걸쳐 몽골의 침입이 계속되면서 장기적인 대몽 항쟁기에 들어갔던 고려는 결국 원종 11년(1270)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고 몽골의 간섭기가 시작되었다. 대몽 항쟁기 동안에는 왕실과 국가수뇌부가 옮겨간 강화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불사(佛事)가 소극적으로밖에 이뤄지기 힘든 시기였고, 새로운 불상이 들어온다거나 불상양식이 유입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을 것이며 자연히 몽골침입 이전의 불상양식이 커다란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가 원의 부마국이 되어 왕실귀족을 비롯한 관리, 승려들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원 지배하의 중국의 새로운 양식이 고려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관음사상을 비롯한 14세기 보살상들의 둥글고 다소 넓적한 얼굴의 형태와 둔중한 신체에서 보이는 괴량감은 금, 원대의 조각에서 나타나는 요소이다. 1240년 티베트가 몽골에 귀부하는 과정에서 승려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세조 쿠빌라이 칸은 파스파(1239~1290)를 국사로 삼았으며, 원의 다른 역대 황제들 또한 대대로 라마교를 신봉하는 등, 원 조정에서 우대하였던 티베트 승려들의 영향으로 티베트 라마불교 미술이 원대의 일부 불교조각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현존하는 원대의 불상 가운데 북경에 부조된 불좌상들을 비롯해서 함주 비래봉의 마애불상들과 북경 고궁박물관의 동조

문수보살좌상과 금동불좌상 등, 원의 중앙지배 지역과 정치적으로 중앙과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의 일부 작품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양식과는 다른 티베트불교 미술의 특징을 보인다. 이 상들은 일부 몽골지배층에서 선호했던 조각 경향을 알려줌과 동시에 티베트 출신 승려들이 원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려에도 14세기 중엽 무렵부터 일부 왕실 귀족층을 중심으로 티베트 불상양식을 부분적으로 보이는 상들이 조성되었다. 특히, 원의 황실과 부원귀족들의 금강산 숭배와 관련하여 금강산에서 출토한 14세기 불상들 가운데 이런 특징을 보이는 상들이 발견된다. 금강산출토의 금동불, 보살좌상들의 연화대좌의 표현 가운데 중대석이 없고 상대 양련좌와 하대 복련좌가 서로 붙어있다거나 대좌의 상하에 연주문이 돌려있는 표현 등에서 부분적으로 티베트불교미술의 영향이 느껴진다. 이와 같은 티베트 불상양식은 고려말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직 낯선 양식이었을 것이다.

2.2.4. 목조건축

고려의 건축은 더욱 막연한 상태이다. 목조건물로는 불과 10동이 안 되는 것이 남아있고, 일부는 북한에 있다. 문헌자료도 부족하다. 자연히 연구 성과도 한정된 몇 개 건물을 가지고 같은 문제를 안고 맴도는 실정이다.

목조건축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대외교섭의 수단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직접적인 방법이란 기술자의 왕래나 집을 지을 도면이나 모형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교환되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라면 사신이나 승려 또는 상인들의 왕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견문이나, 서적, 그림과 같은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과를 가리킨다. 건축기술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경우는 흔한 것은 아니며, 대개 두 나라의 기술수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전혀 이질적인 경우에만 이런 왕래가 가능하다. 직접 기술자가 움직이는 것보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건물의 축소모형이나 그림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축소한 모형은 예배대상으로도 이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훨씬 높았을 것이다. 건물에 대한 그림은 더 간단히 전달될 수 있으나 그림의 제작 목적이나 제작자의 수준, 그림의 내용에 따라서 건물을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한편 간접적인 경우, 성과는 더 작을 수밖에 없다. 이들에 의한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서서히 진행된다. 그 결과는 지속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영향을 받은 쪽의 건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준다.

원의 정치적 간섭을 받는 동안 목조건축의 교섭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원 장인이 직접 고려에 건너와 건물을 지은 점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충렬왕이 즉위하자 왕비인 제국 대장공주는 개경에 자신이 살 궁전을 짓기 위해 원의 장인들을 불러왔으며 이들은 3년 이상을 개경에 머물면서 궁전을 지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원의 건축물을 짓는 기술자들이 적지 않게 고려에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인의 왕래 외에도 제도를 모방한 건물이 종종 지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의 목조건축 세부에는 송이나 요, 원의 건축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된다. 특히 원대의 건물과 고려 다포식의 세부 기법상의 공통점은 현존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수덕사 대웅전에서 볼 수 있는 헛침차의 결구기법은 중국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존하는 고려 목조건물이 공통적으로 갖는 기본적인 전체 구조기법 즉, 기둥과 보를 짜고 지붕틀을 형성하는 방식은 중국의 건물과는 구분되는 차이를 갖고 있다. 고려의 목조건축은 안정된 크기의 화강석 기단, 강한 배흘림을 가진 둥근 기둥, 간결하면서 우아함을 간직한 공포, 처마의 완만한 곡선 등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루어내는 외관은 사람들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고려의 목조건축은 신라 이래로 형성된 구조방식을 이어나가면서 활발한 대외교섭을 기반으로 송이나 요, 원으로부터 세부적인 다양한 요소들을 적극 수용했다. 그 수용은 장기간에 걸쳐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다. 12세기말 이후 무신정권 기간 동안에 고려 건축의 독자성은 한층 심화되었으며 그것은 원의 간섭기에도 변질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었다. 고려 건축이 가지고 있던 이런 고유성은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 더 심화되어 조선 독특한 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3. 원대 고려의 문화

고려시대의 대표적 문화는 불교문화였다. 석탑의 경우, 주로 백제 탑의 양식을 계승했으나 새로 송나라 탑의 영향을 받아 육각 또는 팔각 다층탑도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탑이 높고 가파른

느낌을 주고 각 층의 받침부가 얇아지는 것이 특색이다. 보현사 8각 13층탑, 현화사 7m 석탑, 일정사 8각 9층탑, 경천사 10층 석탑 등이 대표적이다. 조각은 불상이 주류를 이루었고, 특히 석조가 가장 많고 동제·철제 및 소조도 있다.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관촉사 미륵석불(은진미륵)은 높이가 18미터에 달해 현존하는 불상 중 최대를 자랑한다. 철불상으로 충주 철불좌상이, 소조 불상으로는 부석사의 아미타여래좌상이 걸작품으로 꼽힌다. 이 시대의 불상은 다양한 양상을 보여 준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초조대장경이 1232년 몽골군의 침입으로 불타자 당시의 집권자인 최우 등을 중심으로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6년만에 완성한 것이다. 고려의 건축은 궁궐과 사원이 최고 수준을 보이며,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당, 수덕사의 대웅전, 봉정사의 극락전, 석왕사의 응진전 등이 있다.

금속활자와 청자는 세계 문화사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금속활자 인쇄물은 우왕 3년(1377) 7월에 찍은 것으로 알려진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이다. 이 책은 청주목 흥덕사에서 인쇄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다. 현재 프랑스 굴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청자는 고려초 이래 생산되었는데, 주류는 순청자와 상감청자였다. 순청자는 12세기 전반에 비색 청자로 완성되어 발전해 갔고, 상감청자는 12세기 후반에 제작되기 시작하여 13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은은하면서도 맑고 명랑한 비색, 유려한 선의 흐름과 탄력 있고 생동감을 자아내는 형태, 문양에서 보이는 힘찬 선, 기물과 일체가 된 회화적이고 시적 운치가 있는 상감 문양 등이 고려 청자의 특색이라고 하겠다. 고려 사상계의 주류는 불교와 유학이었지만 중국에서 들어온 신유학인 주자학이 지식인들로부터 점차 호응을 받았다.

원대 고려에는 천문관측기구와 제도, 관측활동과 그 기록들, 역법의 정비 등 천문학, 지도의 제작, 풍수지리학 등 지리학, 목판인쇄, 청동활자 인쇄술의 발명 등 인쇄술과 제지기술, 화약과 화포의 전래 화통도감과 화기의 제조, 배 등 무기제조와 조선, 도량형, 물레바퀴, 금속공예기술, 목면의 재배와 무명의 등장, 새로운 청자기술의 개발 등 그 외의 산업기술들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의학이 자주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였다.

3.1. 목판인쇄

고려초에 목판인쇄가 대규모로 전개되기 시작했고, 불교가 융성해지면서 사찰의 불경간행이 활발해진 것이다. 국력을 기울인 대규모의 목판제작으로 고려의 목판인쇄기술은 송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그 시대 최고의 기술수준이었다.

11세기에 만들어진 1만여 권에 달하는 대장경은 고종 19년(1232) 몽골군의 침략으로 모두 불타 버렸다. 고려사람들은 현종 때 대장경을 만들어 부처와 하늘에 호소했던 것 같이, 다시 대장경을 조판하기로 했다. 고종 23년에 시작된 이 거창한 사업은 전후 16년에 걸쳐 81,258판의 대장경을 만들어 냈다. 이것이 지금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이며, 재조대장경이라고도 한다. 목판의 자재는 주로 산벚나무를 썼고, 크기는 가로 72.6cm, 세로 26.4cm, 두께 2.8~3.7cm, 무게는 2.4~3.75kg이다.

판목은 양쪽에 편목을 끼워 붙이고 네 귀에는 구리판으로 된 직사각형의 띠를 둘러쳤다. 이것은 판목이 뒤틀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보존할 때 판목의 양쪽 면이 다른 판목의 표면과 밀착하지 않고 사이가 뜨도록 해서 통풍이 잘 되어 새긴 글자가 늘 깨끗이 되도록 한 것이다.

3.2. 고려 선박

고려의 선박에 대해서는 『원사』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것은 고려에서 만든 일본 원정선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에서는 원종 15년(1274)과 충렬왕 6년(1280)의 두 차례에 걸쳐 원나라의 강요로 1,000척을 실을 수 있는 큰 배 600척을 건조했다. 이 배들은 고려의 조선법에 의해서 건조한 것인데, 일본 원정에서 그 견고성이 실증되었다. 고려의 배들은 건조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들었다. 중국 배보다 평탄한 저판, 평면선수재, 가룽목 등으로 구조되는 평저선인 전통적 한국 배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는 3만여 명을 동원하여 불과 4,5개월 만에 크고 작은 배 900척을 건조해 냈다. 그리고 그 배들은 중국 배보다 훨씬 견고했다고 중국 문헌은 전하고 있다.

3.3.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유약과 태토에 포함된 적은 양의 산화철이 환원해서 생긴 푸른색의 자기이다. 고려 도공들이 이런 청자를 개발한 것은 10세기 무렵이었다. 그리고 12세기초, 고려의 청자기술은 가장

세련된 순청자를 만들어 냈다. 고려 도공들은 도자공예에서 새로운 경지에 들어서는 상감기술을 개발했다. 상감기술은 그릇의 표면을 파고 그 속에 백토 혹은 흑토를 매워서 청자의 푸른 바탕에 백색과 흑색의 무늬를 장식하는 기법이다. 최근의 기술고고학적 분석에 의하면, 고려청자는 송 원의 청자와 유약과 태토의 성분 구성, 소성 온도, 소성 시간과 분위기 등에서 기술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고려청자는 그릇의 모양과 디자인에서 뿐만 아니라 도자기의 미세구조와 색깔에서 중국의 청자와는 다른 공정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차기에 붉은 색을 내는 구리의 발색기법을 창출했다.

4. 고려와 원나라의 문화교류

유목은 투자비용이 적으면서도 생산력이 높고,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경제활동이다. 유목민은 먹을 음식과 입을 옷, 주거, 탈것, 연료뿐만 아니라 교역품, 양모, 가죽, 우유, 고기, 놀이 도구 등 필요한 것을 모두 유목에서 얻었다. 아래 표에서 유목이 몽골인들의 일용품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가 알 수 있다.

유목민의 일용품	음식	고기, 우유, 유제품, 아이락
	의복, 신발	털, 가죽 옷(델), 신발
	주거	게르(모천 주거)
	탈것	말, 황소, 낙타
	연료	소·말·양의 말린 똥
	교역품	동물의 털, 가죽, 유제품, 고기, 뼈, 꿀, 굽
	놀이, 완구	샤가이(복사뼈 놀이)

예나 지금이나 일상생활에서 평민들은 늘 이와 같이 살아왔지만 칭기스칸과 그의 후손들의 원정 이후 특히 지도층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와 종교 등의 영향을 받은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고려는 1231년부터 몽골의 침입을 받아 항전 끝에 1270년에 공식 복속하였다. 이후 1356년 공민왕의 반원운동이 성공하기까지 약 1세기동안 몽골족이 세운 원의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때 특히 고려 원 왕실과의 혼인을 비롯한 인적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고려의 풍속이 원에 전해지기도 하고, 몽골(원나라)의 풍속이 고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몽골제도와 관습법의 영향은 피정복민족의 법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는 못했지만 행정의 실제 영역에서 일정하게 몽골법의 영향을 받았음을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고려(특히 제주도), 남송을 포함한 아시아와 동유럽 유목민족에게 미친 몽골 관습법의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4.1. 몽골풍과 고려양

고려와 원나라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수많은 고려여인 원나라로 건너가 고려촌을 형성했던 시기에 고려의 문화는 “고려양(高麗樣)”또는 “고려국양”이란 이름으로 원나라 곳곳에 퍼져나갔으며, 반면 고려에서는 몽골풍(蒙古風)(변발, 몽골복식, 몽골의 관습법 등)이 유행하였다. 그런데 공민왕이 반원 개혁을 단행한 이후 변발, 호복이 금지되었고, 다른 몽골 풍속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풍속 중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대표적인 몽골 풍속으로는 여자들의 머리에 올리는 족두리, 남녀의 웃고름에 차는 장도칼, 신부의 두 볼에 찍는 연지, 또한 단령(옛날의 공복), 수화자(비올 때 신는 무관의 장화), 남자의 착수익(소매가 좁은 옷)와 홀태바지 등이 있다. 그리고 언어에서도 장사치, 시정아치, 그리고 벼슬아치 등 명사의 어미에 붙이는 언어습관, 왕의 진지 상을 수라라고 부르는 것, 가라말, 송골매 등 이름이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생활풍속도 몽골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고려양이라 불렀다. 충렬왕 이후 고려의 역대 왕들이 왕세자 때 원나라에 살면서 원나라 공주와 혼인하였으며, 두 나라는 물물교류 및 정치 사회 문화 교류가 활발하였다. 고려가 원나라에 미친 영향을 보면 원나라에 머물렀던 고려 세자궁의 생활양식, 충렬왕 때부터 공녀로 간 수많은 고려 여인들, 원나라에서 벼슬한 고려인들, 고려에서 건너간 공물 등이 여러 방면으로 교류의 매체가 되었다.

고려왕은 비단 복식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음악을 비롯해서 생활 풍속,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퍼져갔다. 이 시기 고려에서 원에 전해진 음식으로는 찜밥과 빈대떡 및 쌀떡, 떡팔 그리고 만두를 포함한 고려 다식(茶食), 고려 조청까지 전해졌다. 그리고 북경에는 고려인의 집단거주지인 고려정이 있었으며 초원에도 수많은 고려성(高麗城)이 형성되었다.

4.1.1. 변발



고려당시 성행하였던 중세 몽골 남자의 머리 모양은 그 형태에 있어 머리 정수리 양쪽 두정골 부위의 변발은 정수리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뽀뽀히 밀고 둘레에 남은 머리털 중 앞머리는 이마쪽으로 늘어뜨리고 뒷머리는 두 귀의 귀편에서 두 줄로 땀아 늘어뜨린 것이 원나라 당시의 보편적인 모양이다. 몽골풍의 영향으로 조선 성종때까지 몽골의 복식과 머리 모양이 성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 관련 여러 자료들이 현재 양국의 석인상과 다양한 회화자료 및 출토 유물들에서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1.2. 족두리

족두리는 한국 여자들이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머리 위에 얹는 꾸미개인데 챙이 없는 작은 모자 같이 생겼다. 겉에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쓰기도 하고 산호나 진주 등을 달거나 색색의 수를 놓아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하였다. 족두리는 결혼한 여자들만이 쓰며 혼례 등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였다. 원래 이 족두리는 몽골의 여인들이 외출할 때 쓰던 모자였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크기가 매우 작은 장식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모자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틀어 올린 다음 그 위에 살짝 올려놓고 비녀를 꽂아 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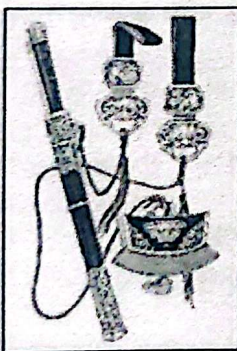
족두리는 여인들이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머리 장식에 매우 많은 돈을 낭비하였던 조선 시대 후반에 이르러 널리 보급되었다. 오늘날 족두리는 혼례식 때 신부가 머리에 쓰는 장식품으로 전통의 맥을 이어 오고 있다.

4.1.3. 은장도

장도는 조선 시대에 남녀가 지니고 다니던 작은 칼인데 은장도는 은으로 만든 것으로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길이는 대부분이 10~15cm 안팎으로 매우 작고 옷에 달거나 찰 수 있게 작은 고리가 달려 있다. 칼자루와 칼집은 보통 같은 재료로 만들며 금·은·산호·호박·비취·옥 등을 비롯해 나무나 뼈 등이 쓰인다. 장도에는 젓가락이 달린 경우가 많았는데 음식에 담가 독이 들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또 호박 따위의 재료를 사용한 것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몸에 상처를 입었을 때 이를 칼로 깎아 바름으로써 피를 멎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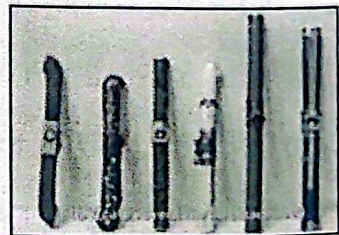
원래 남녀가 함께 장도를 차는 풍습은 고려시대에 몽골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널리 퍼지면서 한국의 유교문화와 어울려 고유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칼날에 '일편단심(一片丹心)'이라는 글씨를 문양처럼 새기기도 하는 은장도는 흔히 한국 여인들의 곧은 절개를 상징한다. 한국에서 오늘날 일상생활에 어울리지 않아 장도가 생산되는 일도 드물고 만드는 기술마저 거의 사라졌지만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4.1.4. 연지



신부가 뺨에 연지를 찌는 풍습, 혹은 여성이

옷고름에 차는 장도 등도 몽골풍의 일부로 언급되어 왔는데 이와 유사한 풍습은 고구려, 백제 등 삼국시대에도 이미 있었던 것이어서 이것을 몽골풍의 일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윤용혁)도 있다.



그러나 연지는 아시아에서 아직도 몽골조과 한민족만이 상고시대부터 중국과 몽골에서 나는 잇꽃잎을 혼인례에 사용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에서는 천지합일 부부합궁의 천신인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인 삼신에게 순종을 하겠다는 표징으로 이마와 볼에 연지를 발라 왔다. 이마에 바른 곤지는 우주자연의 진리인 조화신에게 순종하겠다는 뜻이요, 우측볼에 바른 연지는 자

녀를 잘 가르치는 교회신에게 순종하겠다는 뜻이며, 좌측불에 바른 연지는 가정과 이웃과 더불어 공존공화하는 교회신에게 순종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여강이 시집갈 때 이마와 양 볼에 연지를 찍었으나, 몽골에서는 오늘날 서몽골 지역에서만 일부 소수민족에서만 양 볼에 연지를 찍어 혼례를 올리고 있다. 한국과 몽골의 연지는 모두 예로부터 잡귀의 접근을 예방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예속된다는 복종관념에서 찍기 시작했으며 민간에서의 잇꽃임을 이용한 연지의 사용은 고려말 충렬왕이 몽골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부터 동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4.2. 몽골과 제주도

역사의 여러 시기에서 특히 제주도와 대마도는 13세기 초기에 대몽골국이 건설되면서 쿠빌라이 칸 및 그의 후손들에 의해 직간접으로 지배를 받게 된다. 전략적인 지정학적 위치의 그 중요성 때문에도 제주도는 일본과 남송을 정벌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와 목장으로, 대마도는 일본정벌의 전초 기지로서 수십 년 동안 동지나해 항로의 주요거점이었다.

제주 방언 속에 중세 고려와 원나라 관계에 따른 몽골어 차용어가 있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널리 알려져 왔다. 역사적으로 제주도는 원나라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약 100년간 몽골, 색목인들과 관계를 맺어온데 따른 유목문화의 특성이 다분히 반영된 곳이다. 원의 입장에서 제주도만큼 목마장으로 몽골의 기후, 지형과 매우 흡사한, 모든 것이 준비된 천혜의 요새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몽골은 삼별초를 토벌한 뒤 도명을 탐라에서 그 어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라는 의미의 한어 음역인 제주로 부르지 않았는가 추정한다.

제주 방언에 특히 말, 매, 지명, 관직과 관련 몽골어 차용어가 있는 것은 역사의 흔적이자 증거로서 그 가치가 크고, 연구 필요성이 높으며, 차용어 여부와 어원을 밝히는 일은 당연히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기준으로 역사적 배경과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의 문화교류는 주변의 나라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

되었다. 이를 확실하게 밝힐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로 진하지 않지만 현존하는 문화재와 역사기록들을 통해서 고려시대의 대외교섭과 문화교류, 특히 원나라와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였고, 고려와 원나라가 상호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문화재 중에서 도자기, 불교문화재(불상, 불탑, 불화), 회화(그림), 공예품 등이 참으로 뛰어나고 아름다우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유래를 밝히는 것은 세계화와 최첨단기술, 그리고 각국의 폭넓은 교류 덕분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 멀지 않으리라 믿는다.

700백여 년간 거의 단절되었다가 1990년에 수교를 맺음으로써 다시 회복된 한국과 몽골의 교류가 나날이 발전하고 활발해지는 가운데 양국의 문화교류를 더욱더 충실하게 이어 나가기 위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강돌가, 『몽골의 역사』, 김장구·이평래 역, 동북아역사재단, 2009

국립국어연구원, 『우리문화 길라잡이』, 학고재, 2002

김기선, 『한·몽 문화교류사』, 민속원, 2008

전상운, 『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 연세대출판부, 1998

한국교원대학교역사교육과교수진, 『아틀라스 한국사』, 사계절, 2004

한국미술사학회 편, 『고려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4

Корйө, Юаний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

М. Амартайван

[Хураангуй]

Корйөгийн үед Солонгосы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 дараагийн үе эхлэх хүртэл тасралтгүй үргэлжилж байсан бөгөөд, харилцаж байсан улс гүрнүүдээс дийлэнх нь Зүүн Азийн нутаг дэвсгэрт оршиж байсан улс гүрнүүд, өөрөөр хэлбэл Сүн, Ляо, Юань байжээ. Эдгээр улс гүрэнтэй харилцааны шууд ба дам аргын аль алийг хэрэглэж харьцангуй өргөн дэлгэр холбоотой байсан байна.

Корйөгийн соёлын өвөөс шаазан ваар, буддын соёлын өв(бурханы баримал, суварга, бурханы хөрөг), уран зураг, гар урлалын эд зүйлийг онцлон дурдалтай. Соёлын энэ бүх өв гайхалтай өнгө үзэмж, өвөрмөц онцлогоороо олны анхаарлыг эртнээс татсаар ирсэн билээ.

Монголчууд Алтай язгуурын хэл хэрэглэдгээс гадна гарал үүслийн хувьд ч солонгосчуудтай олон талаараа төстэй байдаг. Түүнчлэн Монголын Юань гүрэн Корйөг наа орчим жил эрхшээн захирах хугацаанд хоёр орны хооронд соёлын олон талт харилцаа өрнөж, зан заншилд хүртэл харилцан нөлөөлсний ул мөрийг илэрхий олж харж болно. Ялангуяа ээтэн гутал оймс, бөс даавууны үрчлээ арилгах илүүр зэргийг дурдахгүй байх аргагүй.

Корйөгийн үеийн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 нь ойр тойрны улс орнуудтай нягт уялдаатай хөгжиж байв. Үүнийг баттай нотлох хэрэглэгдэхүүн хомс боловч өнөөг хүртэл хадгалагдан үлдсэн соёлын өв,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 бичгүүдээс үзэхэд Корйөгийн үеий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 болон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 ялангуяа Юань гүрний талаарх харилцаа нэлээд өргөн дэлгэр байсан агаад, Корйө, Юань хоёр нэг нэгэндээ харилцан багагүй нөлөөлснийг тодруулах боломжтой. Долосон зуугаад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бараг тасалдаад байсан харилцаа 1990 онд БНСУ, МУ-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р дахин сэргэж,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 өдрөөс өдөрт өргөжин тэлж байгаа хэдий ч тэр дундаа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г улам тууштай залгамжлан хөгжүүлэхийн тулд хоёр орны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г гүнзгийрүүлэн судлахын ач холбогдол багагүй хэмээн үзэж байна.

Түлхүүр үг :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 Корйөгийн соёл, Юаний соёл, Юантай харилцсан нь.